

불가리아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재, 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의해 엄격하게 금지되며 위반시에는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됩니다.



<http://www.kotra.or.kr>
<http://www.globalwindow.org>

◀ 목 차 ▶

I. 국가일반

국가개요 / 1
국가조직 및 정치제도 / 6
주요인사 / 7
외교관계 / 8
주한주재 국기관 / 12
한국과의 주요이슈 / 13

II. 경제

경제정책 / 19
최신 경제동향 및 전망 / 21
주요 산업 동향 / 23
정보조사 자료원 / 24

III. 경제무역통계

거시경제통계 / 27
무역통계 / 27
투자통계 / 31

IV. 출장가이드

기후 /	32
시차.근무시간 /	34
도량형 /	35
출입국.비자 /	35
환율.환전 /	38
물가정보 /	39
교통.통신 /	41
호텔.식당 /	44
관공서 관행 /	45
공휴일 /	46
여행시 유의사항 /	47
유용한 연락처 /	49
관광명소 /	52

V. 무역

1. 무역시스템의 이해	
교역관련 주요법규 /	55
수입규제제도 /	56
관세제도 /	57
주요인증제도 /	58
지적재산권 /	58
소비자보호제도 /	58
교역관련 국가기관 /	59
2. 바이어 발굴	
시장 특성 /	59
오프라인을 통한 바이어 발굴 /	60
온라인을 통한 바이어 발굴 /	62
3. 협상과 계약	
상담 요령 및 비즈니스 에티켓 /	62
계약 체결시 유의할 점 /	64
4. 통관 및 운송	
통관절차 /	65
운송 /	65
5. 무역분쟁	
분쟁해결 절차 /	66
유형별 분쟁사례 /	67

VI. 투자

1. 투자 동향

외국기업 투자동향 / 68

우리기업 투자동향 / 70

2. 법인설립

투자환경 / 70

투자인센티브 / 73

타당성조사 / 77

투자 진출형태 및 설립절차 / 78

입지선정 / 82

공장 설립 / 83

투자관련 정부기관 / 86

투자관련 서비스기관 / 86

3. 사업관리

노무관리 / 88

조세제도 / 91

외환관리 / 95

4. 현지정착

이주정착 가이드 / 95

I. 국가일반

1. 국가개요

가. 일반 사항

국 명	불가리아(Bulgaria), The Republic of Bulgaria
위 치	유럽 동남부, 발칸반도 남동부에 위치 루마니아, 그리스, 터키, 세르비아•몬테네그로, 마케도니아, 흑해와 접경
면 적	110,993평방km (한반도의 약 1/2, 유럽국가 중 15번째 규모) 국경 1,808km, 해안선 354km, 영해 12해리
기 후	보통적인 대륙성기후로 4계절이 있으며 연평균기온은 섭씨 10.5도 - 지역적으로 중앙의 발칸산맥을 경계로 남부 평야지역은 지중해성 기후, 북쪽은 대륙성기후임 - 우리나라의 기후와 대체로 비슷하나 겨울에는 눈이 좀더 많고 추우며 여름에는 습도가 낮아 무더운 날씨가 적음 - 겨울 평균 기온: -5 ~ 5도, 여름 평균 기온: 26 ~ 30도
수 도	소피아 (SOFIA), 인구 117만 명
인 구	- 797만 명(2006년 8월 현재) - 출생률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국가중의 하나(9.2명/천명)로서 인구 증가율 -0.5% - 주요 도시: SOFIA(117만 명), PLOVDIV(34만 명), VARNA(32만 명), BURGAS(21만 명), RUSE(18만 명), STARA ZAGORA(17만 명)
민 족	불가리아계 666만 명(83.5%), 터키계 75만 명(9.4%), 집시 37만 명(4.6%), 기타(유대인, 루마니아인, 러시아인, 그리스인 등) 19만 명(2.4%)
언 어	불가리아어, 상용어는 러시아어, 영어, 독어, 불어
종 교	불가리아 정교 82.6%, 회교 12.2%, 기타(카톨릭, 프로테스탄트 등) 1.3%
건국(독립) 기념일	- 3.3일 (1878년) - 실질적인 독립은 1908.9.22 (오토만 제국으로부터 독립) * 이로 인해 불가리아의 경우 3.3일과 9.22일이 모두 국경일임
정부형태	의회 민주주의제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혼합)
국가원수	- 대통령 Georgi Parvanov (2002.01.22, 54.13%, 취임, 임기 5년) - 총리 Sergi Stanishev (2005.08.16 취임) * 사회당(BSP ; Bulgaria Socialist Party) 당수
입 법 부	- 단원제(240석), 4년 임기로 의석의 절반은 직선제, 나머지는 정당별 비례대표제로 선출 - 2005.6.25일 실시된 총선에서 집권당이던 SNM을 누르고 BSP가 제1당으로 부상(240석 중 82석 확보, 34% 지지 획득) • SNM(53석), MRF(34석), Ataka 연합(21석), UtdDF(20석), DSB(17석), BPU(13석) - BSP를 주축으로 하는 BSP, SNM, MRF 3개 정당의 연정이 3차례의 정부 구성 노력 끝에, 2005. 8.16 출범 - 각료 직위 배분: BSP(8), SNM(5), MRF(3), 전문가(1) - 국회의장: Mr. Georgi Pirinski(2005.7.11 취임, 임기 4년)

주요정당	(여당) - 사회당(BSP: Bulgaria Socialist Party) - 시메온 2세 국민 운동당(SNM: Simeon II National Movement) - 권리. 자유 운동당(MRF: Movement for Rights and Freedoms) (야당) - ATAKa 연합당 - 민주 세력 동맹당(UDF: Union of Democratic Forces) - 불가리아 민주당(DSB: Democrats for strong Bulgaria) - 자유 민주 동맹당(UFD: Union of Free Democrats) 등
정부성향	- 중도 우익, 친 EU, 친 NATO, 친미, 친독 - 군사력 : 42,470명 . 육군 : 25,000명 . 해군 : 4,370명 . 공군 : 13,100명

나. 역사

1) 기원전

- 약 2만년 전 청동기와 철기시대에 트라키아인이 거주
- BC 480년경 트라키아인에 의한 도시국가 건설

2) 로마 지배

- AD 46년부터 로마 식민지배
- 480 불가리아인 아시아지역으로부터 유입 시작
- 5세기 야만족의 침입으로 로마제국 쇠퇴

3) 제1불가리아제국

- AD 681년경 불가리아인들이 현재의 위치로 이주, 정착. 불가리아 국가 건설(Han Asparouh가 Pliska를 수도로 결정)
- 861년 보리스1세(Boris I) 기독교로 개종, 불가리아인의 개종 시작
- 855년 또는 862-3년 키릴형제가 불가리아문자(키릴문자) 발명
- 893년 수도를 Pliska에서 Preslav로 이전
- 927년 수도를 Ohrid(현재의 마케도니아)로 이전
- 1018년부터 동로마제국 식민지배

4) 제2불가리아 제국

- 1185년 동로마로부터 독립
- 1218-1241 Ivan Assen 2세의 통치 아래서 국토가 아드리아해안에서 에게해에 이르는 광대한 영역을 확보

5) 터키 식민지배

- 1396년부터 1878년까지 약 500년간 오스만터키의 지배
- 1762년 불가리아 문예부흥기의 시작(오스만터키의 지배 저항 운동 시작)
- 1877년 러시아 대 오스만터키 전쟁 선포

6) 근 대

- 1878년 러시아, 터키전쟁의 결과 터키로부터 독립 (3월 3일, San Stefano 조약)
- 1878년 베를린 조약에 의거 San Stefano 조약에 의해 불가리아에 부여된 영토 중 3분의 1이 열강에 의해 분할됨
- 1879년 Battenberg의 알렉산더 왕자가 부임
- 1879년 소피아를 수도로 설정
- 1885년 동루멜리아지역이 불가리아로 통합(9월 6일)
- 1886년 알렉산더 페위
- 1886-19018 페르디난드1세 왕자로 설정.
- 1908년 오토만 제국으로부터 독립 선언, 페르디난드 1세 즉위(9월 22일)
- 1912년 1차 발칸전쟁, 불가리아, 세르비아, 그리스가 터키에 대항하여 전쟁
- 1913년 2차 발칸전쟁, 불가리아는 세르비아, 그리스, 루마니아, 터키의 연합군에 패하여 영토를 상실
- 1915년 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군과 연맹
- 1919년 1차 대전에서의 패배로 영토 상실 (Neuilly 조약)
- 1918-1943 보리스 3세 통치
- 1941년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군과 연맹
- 1943년 보리스 3세 사망, 시메온 2세 즉위
- 1944년 소련군 진주

7) 공산화

- 1945년 '게오르기 디미트로프(Georgi Dimitrov)' 공산당 서기장 집권 1946.9 인민 공화국 선포
- 1946.9 시메온 2세 망명
- 1948.12 5차 전당대회에서 국가 미래개발을 위해 소련 모델 채택 결정
- 1954 토도르 지브코프(Todor Zhivkov) 서기장 선출
- 1949 게오르기 디미트로프 사망, 볼코 체르벤코프(Vulko Chervenkov) 집권

8) 민주화 및 현대

- 1989.11 공산정권 붕괴(토도르 지브코프 퇴진), 민주화 시작
- 1989.11 16개 야당정치기구가 민주세력연맹(Union of Democratic Forces:UDF) 결성
- 1990.1 안드레이 루카노프(Andrei Lukanov) 수상으로 지명
- 1990.6 최초의 직접선거에 의해 의회구성
- 1991.7 민주주의 헌법 채택
- 1991.11국명을 '불가리아 공화국'으로 개칭
- 1991.11 민주세력연맹(UDF)가 총선에서 승리, 110석을 획득
 - 필립 디미트로프(Philip Dimitrov) 내각 출범
- 1992.1최초 직접선거에 의해 Zhelyu Zhelev 대통령 당선(민주세력출신)
- 1992.12 Berov 내각 출범
- 1994.10 대통령 국회해산, 과도내각 구성

- 1994.12 조기총선 실시
 - 사회당(BSP, 구공산세력 중심)이 과반수 의석을 획득하여 구 공산 세력의 재집권
- 1995.1 잔 비데노프(Zhan Videnov) 내각 출범 (사회당 당수)
- 1996.11 대통령 선거에서 UDF 소속의 피터 스토야노프(Peter Stoyanov) 대통령 당선
- 1996.12 잔 비데노프(Zhan Videnov) 내각 사임
- 1997.1 사회당 퇴진 및 조기총선 요구 시위 발생
- 1997.2 대통령 및 여, 야간 조기총선 합의
- 1997.4 조기총선 실시
 - UDF 가 52% 의 지지 획득으로 재집권
- 1997.5 이반 코스토프(Ivan Kostov) 내각 출범
- 2001 총선
 - 2001.4 국회의원선거 결과 시메온 2세 국민 운동당(SNM)이 제1당으로 등장
 - 2001.7 SNM과 MRF 연합 내각(시메온2세 내각) 출범
- 2001.10 대통령선거에서 사회당 게오르기 파르바노프(Georgi Parvanov) 후보가 당선
- 2004.4.2 NATO 가입
- 2004.6.15 EU 부문별 가입협상 완료
- 2006.6.25 총선에서 사회당(BSP)이 집권당이던 시메온 2세 국민 운동당(SNM)을 누르고 제1당으로 부상(240석중 82석 확보, 34% 지지 획득)
 - SNM(53석), MRF(34석), Ataka 연합(21석), UtdDF(20석), DSB(17석), BPU(13석)
- 2005.8.16 사회당(BSP)을 주축으로 하는 사회당, 시메온 2세 국민운동당(SNM), 권리자유 운동당(MRF) 3개 정당의 연립정부 출범
 - 사회당 당수인 세르게이 스타니셰브(Sergi Stanishev) 내각 출범

다. 주요 경제 지표

주요지표	단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경상 GDP	미\$백만	12,599	13,557	15,500	19,857	24,131	26,648
경제 성장률	%	5.4	4	4.8	4.3	5.6	5.5
1인당 GDP	미\$	1,542	1,690	1,978	2,538	3,101	3,443
재정 수지	BGN백만	-267	-255	-218	1	659	986
- 세입	BGN백만	11,062	11,838	12,525	14,072	15,858	17,983
- 세출	BGN백만	11,331	12,093	12,743	14,071	15,199	16,997
무역 수지	미\$백만	-1,176	-1,580	-1,595	-2,478	-3,371	-5,078
- 수출(FOB)	미\$백만	4,825	5,113	5,692	7,445	9,888	11,821
- 수입(FOB)	미\$백만	6,600	6,693	7,287	9,923	13,259	16,899
경상수지	미\$백만	-702	-984	-827	-1,856	-1,416	-3,133
외환보유고	미\$억	34.6	35.8	44.3	60.3	84.1	81.3

인구(연말)	만 명	815	789	785	782	778	772
물가상승률	%	11.4	4.8	3.8	5.6	4.0	3.8
이자율	연%	4.62	4.67	3.35	2.67	2.47	2.05
연평균환율	BGN/USD	2.1233	2.1847	2.077	1.7326	1.5751	1.5741
연말실업률	%	17.9	17.8	16.3	13.5	12.2	10.7
외국인투자	미\$백만	1,002	813	458	2,097	2,883	2,324

자료원 : 불가리아 통계청(NSI), 불가리아 중앙은행(BNB)

라. 주요 부존 자원

- 보크사이트(알루미늄의 원광), 구리, 납, 아연, 석탄, 목재 등

마. 지형

- 지리적 특성

- 불가리아는 북위 41-44도, 동경 22-28도 정도의 남동부 유럽에 위치해 있으며 동남 쪽으로는 터키, 남쪽으로는 그리스, 북쪽으로는 루마니아, 서쪽으로는 세르비아, 마케도니아와 접경하고 있으며 동쪽으로는 흑해와 접하고 있음.
- 불가리아는 유럽과 아시아(중동) 지역을 연결하는 통로에 위치하여 동서양 문화 교류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음.
- 불가리아의 면적은 110,919km²(한반도의 약 1/2)로 유럽 국가 중에서 15번째 규모이며 미국의 테네시 주보다 약간 큼.
 - 육지 110,555km², 강 및 호수 360km²
 - 국경 길이 총 1,808km, 해안선 길이 354km, 영해 12해리
 - 경작 가능지 37%, 산림 35%, 목초지 16%
 - 관개지역 12,370km²

- 지형적 특성

- 불가리아는 북부와 남동부는 구릉 및 평야지역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산악지역임.
- 북단은 북위 44도 13분 동경 22도 40분에 위치한 티모크 강
- 남단은 북위 41도 14분 동경 25도 17분에 위치한 베이카타 봉
- 동단은 북위 43도 32분 동경 28도 37분에 위치한 샤블라 봉
- 서단은 북위 42도 19분 동경 22도 22분에 위치한 키트카 봉
- 인접국: 북부는 루마니아(609km), 남부는 그리스(493km), 동부는 흑해(378km)와 터키(259km), 서부는 구유고(506km)로 국경선 총 길이는 2,245km
- 국토 길이는 동서로 세르비아 국경에서 흑해연안까지 520km이며, 남북으로는 루마니아에서 그리스까지 330km임.
- 국토 면적의 5% 정도는 해발 1600m 이상의 고지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악지대는 국토 면적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함.

- 최고봉은 해발 2952m의 무살라(릴라 산맥)이며, 알프스 이남의 발칸반도에서 제일 높음. 이어 비흐렌(피린 산맥)은 해발 2914m임. 이들 산악지대는 불가리아 남부 지역에 위치.
- 로도피 산맥은 릴라 산맥의 동쪽에서 시작되어 그리스와의 국경선을 따라 형성되어 있음.
 - 다발 자연재해: 지진 및 산사태
- 남부지역은 산악지대로 겨울에는 스키 리조트 관광객으로 붐빔. 겨울철 스키는 관광 수입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영국, 독일, 러시아 등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스키를 즐기려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음.
- 흑해 해안지역은 총 연장 378km이며, 여름 휴양객 들이 많이 찾는 곳으로 여름철 관광 수입에 중요한 지역임.
- 루마니아와 국경을 이루고 있는 다뉴브 강은 강을 이용한 운송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동굴은 약 700개가 있으며, 가장 깊은 굴은 415m이며, 가장 긴 동굴은 약 15km를 넘음.
- 온천지대는 600여 개가 있음.

2. 국가조직 및 정치제도

가. 최근 정치 동향

- 2006.6.25 총선에서 사회당(BSP)이 집권당이던 시메온 2세 국민 운동당(SNM)을 누르고 제1당으로 부상(240석중 82석 확보, 34% 지지 획득)
 - 이외에 SNM(53석), MRF(34석), Ataka 연합(21석), UtdDF(20석), DSB(17석), BPU(13석)
- 2005.8.16 사회당(BSP)을 주축으로 하는 사회당(BSP), 시메온 2세 국민운동당(SNM), 권리자유 운동당(MRF) 3개 정당의 연립정부 출범
 - 사회당 당수인 세르게이 스타니셰브(Sergi Stanishev) 내각 출범(05.8.16)
- 신정부 정책 방향
 - 신정부는 2007년 불가리아의 EU 가입, 지속적인 고도의 경제성장, 사회적으로 책임이 있는 정부를 강조
 - 세르게이 스타니셰브 총리는 불가리아의 고도 경제성장 지속, 2007. 1. 1일 EU 가입, 신속한 사법 개혁, 의료 복지 혜택 확대, 고용 증진, 민간 기업의 활동 진작, 조직 범죄와 부패 척결을 신정부의 우선 과제로 제시

나. 선거 제도

- 대통령
 - 국가 원수로서 직접 선거로 선출
 - 임기 5년, 중임 가능

- 주요 권한
- 총선 실시권(대통령이 원내 제1, 2, 3 당에 차례로 조각을 의뢰하였으나 모두 실패할 경우, 의회 해산 및 총선 실시권 행사)
- 법률 거부 및 공포권(의회에서 통과되어온 법률을 대통령이 거부할 수 있으나 의회 재통과시에는 대통령이 이를 공포)
- 기타 군 통수권, 외교사절 임명 접수권, 조약 체결권, 공무원 임면권, 사면권 등 보유

○ 의회

- 단원제로서 4년 임기의 의원 240명으로 구성
- 선출 방식은 의석의 절반은 직선제, 나머지는 정당별 비례대표제로 선출
- 총 31개의 선거구가 있으며 선거구별 의석 수는 등록 선거인 수에 비례하여 배분
- 소피아 36석, 바르나 14석, 비딘 4석, 가브로보 4석 등
- 21세 이상의 불가리아 시민권 소지자이면서 실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없는 자는 국회 의원에 입후보할 수 있음.
- 18세 이상의 불가리아 시민권 소지자에게는 선거권이 부여됨.
- 단, 실형을 선거 받고 감옥에 수감된 경력이 있는 자는 선거권이 제한됨.
- 선거 운동 시작은 선거일로부터 30일전부터이며 선거 운동 종료는 선거 개시로부터 24시간 전까지 임.
- 공식적인 선거 결과 발표 전에 출구 조사 결과를 발표할 수 없으며 선거 당일 주류 판매를 금하고 있음.

3. 주요 인사

(2006. 8. 30일 현재)

직 책	성 명	부임 일자
대통령(President)	Mr. Georgi Parvanov	2002.1.22
수상(Prime Minister)	Mr. Sergei Stanishev	2005.9.26
국회 의장(Chairman of the National Assembly)	Mr. Georgi Pirinski	2005.7.11
대법원장(Charirman of the Supreme Court)	Mr. Konstantin Penchev	2004.3.22
부수상 겸 재난관리정책장관 (Deputy Prime Minister and Minister of Disaster Management Policy)	Mr. Emel Etem	2005.9.26
부수상 겸 교육과학장관 (Deputy Prime Minister and Minister of Education and Science)	Mr. Daniel Vassilev Valtchev	2005.9.26

부수상 겸 외무장관 (Deputy Prime Minister and Minister of Foreign Affairs)	Mr. Ivailo Georgiev Kalfin	2005.9.27
환경.수자원장관 (Minister of Environment and Water)	Dr. Dzhevdet Chakarov	2005.9.26
경제.에너지장관 (Minister of Economy and Energy)	Mr. Rumen Stoyanov Ovcharov	2005.9.26
내무장관(Minister of Interior)	Mr. Rumen Yordanov Petkov	2005.9.26
보건장관(Minister of Health)	Mr. Radoslav Nenkov Gaydarski	2005.10.4
행정개혁장관 (Minister of Administrative Reform)	Mr. Nikolay Vassilev Vassilev	2005.9.26
지역개발장관 (Minister of Regional Development)	Mr. Assen Dimitrov Gagauzov	2005.9.23
법무장관(Minister of Justice)	Mr. Georgi Petkov Petkanov	2005.9.26
재무장관(Minister of Finance)	Mr. Plamen Vassilev Oresharski	2005.9.26
교통장관(Minister of Transport)	Mr. Petar Vassilev Mutaftchiev	2005.9.26
국방장관(Minister of Defence)	Mr. Vesselin Bliznakov	2005.9.26
노동.사회정책장관 (Minister of Labour and Social Policy)	Mrs. Emilia Maslarova	2005.9.26
유럽담당장관 (Minister of European Affairs)	Mrs. Meglena Shtilianova Kuneva	2005.9.26
문화장관(Minister of Culture)	Mr. Stefan Lambov Danailov	2005.9.26
농림장관 (Minister of Agriculture and Forestry)	Mr. Nihat Tahir Kabil	2005.9.22

4. 외교관계

가. NATO 가입

1) NATO와의 협력

- 1994.2월 이래 NATO의 Partnership for Peace에 참여, NATO 기준에 따라 군 개혁 및 NATO와의 고위급 정치 대화 강화
- 코소보 사태 관련, 불가리아는 1999.6월 NATO 평화유지군에 주재국 영토 통과를 허용하는 한편, 미국의 對테러 전쟁 관련, 2001.9월 불가리아 영공 통과를 허용하고 Bourgas 항을 식량 공급지로 제공하는 등 NATO의 활동에 적극 협력

2) NATO 가입 실현

- 2002.11월 프라하 NATO 정상회의에서 불가리아 NATO 가입 초청 실현

- 2004.4.2일 불가리아와 여타 6개 신규회원국의 NATO 본부에서의 가입 기념식 행사를 통해, 불가리아의 NATO 가입 실현(2004.3.29일 미국 행정부에 비준서 기탁)

3) 발칸지역 안정을 위한 나토 확대 필요성 강조

- 코소보 사태 및 마케도니아 사태 등 발칸지역 분쟁이 국제 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면서 발칸지역 국가에 대한 나토 확대가 긴요하다는 점을 주장

4) NATO 비공식 외교장관 회담 개최

- 2006.4.27 - 28일간 소피아에서 NATO 비공식 외교장관 회담 개최
 - Rice 미 국무장관을 비롯한 26개 회원국 대표 및 NATO와의 양자 협의를 위해 러시아, 우크라이나 외교 장관이 참석하는 등 총 34개국 대표 참석
 - 동 회담은 2006년 말 Riga NATO 정상회담의 준비 회담적 성격으로서 ▲한국을 비롯한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NATO 비회원국과의 향후 Partnership 설정 문제 ▲아프간, 수단, 이란을 비롯한 지역 정세 ▲NATO 회원국 확대 문제 등을 협의

나. EU 가입 추진

- 불가리아는 1995. 2월 유럽연합(EU) 준회원국 지위를 획득(체코 및 루마니아와 동시)한 이후 EU와 자유무역 협정 체결 등으로 경제적 교류를 강화하고 있고, 1999. 12월 이후 가입 협상을 시작한 이래 루마니아와 함께 2007.1.1일 가입을 목표로 협상을 추진하고 있음.
- 1999. 12월 헬싱키 EU 정상회담 시 불가리아는 2차 가입 대상국으로 결정되어 가입 협상이 2002. 2월 개시된 이후 2004. 6월 총 31개 분야의 협상을 종료한 상태임.
- 2002. 12월 코펜하겐 EU 정상회담 시 제시된 불가리아의 2007년 EU 가입 일정에 따라 불가리아는 현재 2007. 1. 1일 EU 가입 달성을 위해 EU와의 협상과정에서 제시한 공약 사항의 철저한 이행과 EU 25개 회원국들로부터 비준을 받는 절차만 남겨 놓은 상태임.
- 불가리아 정부는 2005. 4월 EU 가입 조약에 서명을 하였고 불가리아 의회는 2005. 5월 EU 가입 조약을 비준하였음.
- 그러나 2004. 6월 부문별 가입협상을 완료하면서 EU가 정한 수준이나 기준에 미달할 경우 가입이 1년간 연기될 수 있다는 소위 보장조항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부문별 협상내용의 이행이 부진할 경우 불가리아의 EU 가입은 2007.1.1일이 아닌 2008. 1.1일 가입으로 1년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임.
- 한편 불가리아는 EU 가입 추진과 더불어 유로화를 사용하기 위한 준비도 진행하고 있으며 예정대로 불가리아가 2007.1.1일부로 EU에 가입할 경우 2009년부터 유로화를 사용할 예정으로 있음.

- 2006.8.30일 현재 총 25개 EU 회원국들 중 슬로바키아, 헝가리, 슬로베니아, 사이프러스, 그리스, 에스토니아, 체코, 스페인, 이탈리아, 몰타,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등 20개국이 불가리아의 EU 가입 조약을 비준하였음.
- 독일, 벨지움, 덴마크, 프랑스, 아일랜드 등 5개국이 2006.8.30일 현재까지 미비준
- EU 집행위는 2006년 10월 최종 검토 보고서(Monitoring Report)를 통해 불가리아 및 루마니아의 EU 가입 수용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임.

다. 이라크전 관련 Coalition 참가

- 불가리아 정부는 2002-3년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유엔안보리 토의 시 미국의 입장을 적극 지지한데 이어 영공통과 허용, Sarafovo 공군 기지 제공, Karbala 지역에의 480여명의 경보병 대대 파병
- 2003.12.27 동 부대에 대한 자살테러공격으로 5명 사망에 이어, 2004년에 3명이 사망하여, 총8명 사망
- 2004.7월 불가리아 인질 2명이 이라크에서 무장단체에 의해 피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라크에서 불가리아 파병부대의 지속적인 활동과 국제 테러리즘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입장 견지
- 2005.4월 민간 헬리콥터 추락으로 불가리아 민간인 4명 사망
- 2004.11월 불가리아 파병부대 위치를 Qadissiya 지역으로 이동
- 2005.12월 불가리아는 미국 등 우방국과 협의를 거쳐, 파병 부대를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한 후 2006. 1월 파병 부대 완전 철수

라. 발칸지역 협력 강화

1) 정치. 군사협력

- 기본적으로 발칸 역내국간 배타적 동맹결성에 반대하고 선린 우호관계 추구
- 최근 역내국간 정치. 안보협력 증진을 위한 남동유럽 국방장관 회의 및 외무장관 회의 등에 적극 참여 하고 있으며, 코소보 사태를 계기로 발칸지역 다국적 평화 유지군 창설에 주도적 역할

2) 지역경제협력기구 참여

- 흑해경제협력기구(BSEC: Black Sea Economic Cooperation)
- 흑해경제협력기구(BSEC: Black Sea Economic Cooperation)는 1992년 흑해 연안 국간 수송, 에너지, 통신, 농업, 금융 및 환경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터어키의 주도로 공식 출범한 개방적 지역경제협력 기구
- 현재 회원국은 11개국(알바니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불가리아, 루마니아, 그루지아, 그리스, 몰도바, 러시아, 터어키, 우크라이나)이며 옵서버는 7개국 (폴란드, 튀니지아, 이스라엘, 슬로바키아, 이집트 오스트리아, 이태리) 임

- BSEC 창설 당시, 회원국간 정치적 대립(특히, 그리스-터어키) 등 많은 제약 요인에
도 불구하고, 공동 관심사항인 경제개발 및 인프라 구축 분야에서 기능적 협력을 도모,
제도적 경제협력체로 진일보 중

○ 중구협력체(CEI: Central European Initiatives)

- 중구협력체(CEI: Central European Initiatives)는 1989년 공산정권 붕괴 이후
헝가리, 오스트리아, 유고 및 이태리 참여 하에 역내분쟁해결 및 중부 유럽 내 분열
방지를 위한 지역협력체로 태동
- 1992.7월 비엔나 개최 정상회의 시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가
가입하였으며, 1995.10월 몰도바가 16번째 회원국으로 가입

○ 중구자유무역기구(CEFTA: Central Europe Free Trade Agreement)

- 중구자유무역기구(CEFTA: Central Europe Free Trade Agreement)는 코메콘이라는
사회주의 지역 경제블록 체제 와해 이후 대서방 교역 의존도 급증에 따른 상호 교역
촉소방지, EU 가입 원화화를 위해 1992.12월 체결되어 1993.3.1일부터 발효
- 회원국(7개국) : 체크,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불가리
아(1999.1.1일 가입)
- 98.9.11-12 체크의 프라하에서 개최된 CEFTA 정상회의에서 회원국간 농산물 교역자
유화, 역내 무역분쟁 해결기구 등을 논의하였으나 각국간 이해 대립으로 합의도출
에 실패
- 2004.5.1일부 체크,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의 EU 가입으로 인해
실질적인 회원국은 불가리아와 루마니아이며 이들 2개국이 2007.1.1일부로 EU에
가입하면 실질적으로 CETFA는 존재 의미가 없게 됨

○ 남동유럽경제회의(SEEf: Southeast Europe Economic Forum)

- 남동유럽경제회의(SEEf: Southeast Europe Economic Forum)는 남동유럽 지역에 대한
경제개발 및 공동 관심사항 협력 등을 위해 민간 주도로 개최되는 정례회의 성격
- 매년 소피아에서 공동 관심사항, 경제발전을 위해 회의 개최

마. 미국과의 관계

- 적극적인 친미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라크 관련 제재 및 대 테러 정책에 적극적
으로 찬성하고 있음.
- 2003년도 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미국의 제안에 대해 적극적 지지 노선을
견지하여 EU 회원국 일부로부터 비난을 받은 일도 있음.

바. 러시아 및 CIS와의 관계

- 대서방관계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 러시아 및 CIS와의 관계강화를 추진.
- 최근 석유, 가스 등 러시아에 지나친 에너지 의존을 탈피하기 위해 아제르바이잔, 그루지아 등과 흑해항로 개설 및 송유관증설 등을 모색

사. 아시아와의 관계

- 한국, 일본, 호주, 중국 및 아.태 신 공업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관계 강화 희망함
- 상대적으로 EU 및 미국과의 관계협력 증진에 중점을 두고 아시아 지역과는 경제협력 증진을 중심으로 교류를 강화하고 있음

아. 국제 정치·경제기구 참여 확대

- 유엔 활동 적극 참여
 - 2002-3년 임기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
 - 2002.9월에는 안보리 의장국으로서 9.11 1주년 안보리 특별회의 의장국 역할 수행
- WTO 정회원국 가입 실현(96.12)
- 2004년 유럽 안보 협력 기구(OSCE;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의장국
 - 2004년부터 2002년 의장국(포르투갈) 및 2003년 의장국(화란)과 함께 OSCE Troika로 활동
 - 2004.12.6 - 7일, 소피아에서 OSCE 각료이사회를 성공적으로 개최

자. 미국 군사기지 유치 노력

- 미국의 세계적 군사전략 재검토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서구주둔 미군기지의 동유럽 배치에 폴란드, 루마니아 및 불가리아가 후보국으로 검토됨에 따라 불가리아 정부는 미군기지 유치 의사를 적극 밝히고 미국측과 협의 진행
- 불·미 양국은 2006.4.28일 불가리아 내 미군 주둔 목적으로 불·미 방위 협력 협정을 서명하였는 바, 군대 주둔은 2007년부터 개시될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 군사력 규모는 2,500명 예정(5 - 6개월 정도 순환근무체제)

5. 주한주재국기관

가. 불가리아 대사관

- 주소 : 서울시 용산구 한남2동 723-42
- 전화 : (02) 794-8625/6
- 팩스 : (02) 794-8627
- 경제담당참사관 : Mrs. Dobrinka Vitcheva

나. 불가리아 명예 총영사

- 주소 :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6-14
- 전화 : (02) 3014-2800
- 명예총영사 : 김희용 회장

다. 한-불가리아 친선 협회

- 주소 : 서울 성동구 성수2가 3동 273-15
- 전화 : (02) 461-9226
- 팩스 : (02) 461-4998
- 협회장 : 최조현 회장

6. 한국과의 주요이슈

가. 기본 관계

- 89.4 KOTRA : 소피아 무역관 개설
- 90.3.23 : 외교 관계 수립
- 90.6.13 : 주 불가리아 한국대사관 개설 (초대 대사 김좌수)
- 90.9.10 : 주한 불가리아 대사관 개설 (초대 대사 Boyko Mirchev)
- 95.3 : KOTRA 소피아 무역관 폐쇄
- 2002.11 : KOTRA 소피아 무역관 재 개설
- 2004.1 : 알렉산더 사보프(Alexander Savov) 주한 불가리아 대사 부임
- 2004.4.9 : 정재식 현 주 불가리아 한국 대사(제6대) 부임

나. 문화 협력 현황

- 한.불 양국 정부는 양국 국민간의 상호 이해 제고가 정치.경제분야 발전의 기초라는 공동 인식하에, 문화 예술단 교환 방문등과 같이 양국간 인적 교류 확대에도 노력하고 있음.
- 94.4 문화협정 체결
 - 95.4월, 2001.10월 및 2006. 1월 교육.문화협력 시행계획서 각각 서명
 - 91.1월 한-불 문화교류협회 발족
- 주요 문화교류 실적 및 문화행사
 - 방한
 - 92. 4 : 불가리아 아트 페스티벌
 - 94. 3 : Plovdiv 오페라 공연
 - 94. 7 : 불가리아 챔버 오케스트라 공연
 - 00. 10 : 현대 미술 교환 전시회
 - 05. 9 : 불가리아 회화 전시회

- 방불
 - 92. 9 : '한국문화의 날' 행사
 - 94. 3 : 국립예술단 공연
 - 95. 9 : 태권도 시범단 공연
 - 96. 6 : 서울 예술단 공연
 - 97. 12 : 한국 현대도자기전시회
 - 98. 11 : 한국 현대미술전시회
 - 98. 11 : 장보고의 꿈 공연
 - 99. 6 : 사물놀이 공연
 - 99. 6 : 태권도 시범단 공연
 - 99. 9 : 금호 현악 4중주 공연
 - 00. 3 : 이두식 교수 미술전시회
 - 00. 5 : 강동석 바이올린 연주회
 - 00. 6 : 한국전통무용단 공연
 - 00. 7 : 현대미술 교환 전시회
 - 00. 9 : 한국 현대 시의 밤
 - 01. 5 : 소프라노 송광선 독창회
 - 01. 6 : 국악실내악단 공연
 - 01. 9 : 한국현대조형작가회전
 - 02. : 국수호디담무용단 공연합창단 공연, 한국 영화제,
 - 05. 6 : 부산 시립 무용단 공연
 - 05. 10 : 기원 오페라단 공연
 - 06. 5 : 문화마을(들소리) 공연
- 한국학 연구 지원
 - 소피아 대학 동양학 센타에 한국어 강좌 개설(92.3)
 - 95.10월 소피아대학 한국어학과 정식 개설
 - 한국 국제교류재단에서 동학과 지원(연 15,000미불 내외)
 - 30만불 규모 소피아대 한국학과 건물 증축 사업 완료(2003.6)
- 태권도 사범 파견
 - 92-94 첫 태권도 사범 정부파견
 - 96. 9월부터 3개월간 국립체육대학에 파견
 - 2000.10월부터 정부파견 태권도 사범 활동 중

다. 주요 인사 교류 현황

○ 방 한

- 91. 5.: Vulkov 부수상 겸 외무장관
- 91. 9.: Pushkarov 상공장관
- 92. 6.: Dobrev 외무차관
- 93. 3.: Ganev 유엔총회의장(전 불가리아 외무장관)
- 94. 7.: Daskalov 외무장관
- 95. 4.: Zelev 대통령
- 99.10.: Rajkov 외무차관(Tassev 무역차관, Starvrev 산업차관)

- 02. 4.: Vassilev 부총리 겸 경제장관, Petrov 교통통신장관
- 02.12.: Kalchev 행정장관
- 03. 4 : Chovanov 정보청장
- 04. 3 : Sofianski 소피아 시장
- 04. 4 : Bozadjiev 경제부 차관
- 04. 9 : Borissov 검찰총장
- 05. 6 : Kalchev 행정장관
- 05. 12 : Chaoushev 외교차관
- 06. 2 : Kostadinova BOC위원장

○ 방불

- 90. 2.: 홍순영 대사(수교 교섭차)
- 90. 3.: 최호중 외무장관(수교의정서 서명)
- 90. 5.: 정동성 체육장관
- 92. 6.: 우호협력 사절단(단장 채의석 대사)
- 96. 4.: 이환균 재무부 차관(EBRD 총회 참석)
- 97. 5.: 의원친선협회 사절단(단장 : 현경대 의원)
- 99. 5.: 김용준 헌법재판소장
- 00.10.: 민관합동 통상투자 시장조사단
- 01. 1.: 의원친선협회 사절단(단장 : 김명섭 의원)
- 01. 4.: 2010세계박람회 유치 교섭 사절단
- 01. 8.: 최성훈 외교통상부 차관
- 01.10.: 2010세계박람회 유치교섭사절단(단장:김혁규 경남지사)
- 02. 4.: 김재철 무역협회회장(대통령 특사)
- 02. 7.: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
- 02. 8.: 황두연 통상교섭본부장
- 02.11.: 박관용 국회의장
- 03. 1.: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단(단장: 서정화 위원장)
- 03. 4.: 변재일 정보통신부 장관
- 04. 8.: 국회 박희태 부의장. 문화관광위원단(단장: 이미경 위원장)
- 04.10.: 민관합동 동유럽 경제사절단
- 05. 6.: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
- 06. 6.: 한명숙 국무총리

라. 한인 현황

○ 약 150명(지사원, 유학생, 선교사, 자영업자 등)

- 한글학교 운영
- 한인회 회장 : 김경작
 - 전화 : (00359) 899-912407(휴대폰), e-mail : jack5674@hanmail.net
- 한인회 총무 : 박성태, 전화 : (00359) 898-447837(휴대폰)

마. 경제통상 협력

1) 한국의 對불가리아 무상원조 현황

- 연수생 : 147명 초청
 - 2002. 12월 KOICA 연수생 불가리아 동창회 결성
- 전문가 : 11명 파견
- 기자재 : 107만불 상당 공여
- 프로젝트
 - 소피아 장애인복지센터 건립 (50만불)
 - 소피아대학교 한국어학과 증축 (30만불)
- 2004. 12월 소피아에 KADO 정보접근센터 구축 (30만불)

2) 한국과의 무역관계

- 우리나라는 불가리아와의 교역에서 '92년부터 지속적인 무역 흑자를 유지하고 있음.
- 90년대 중반 수출액이 미\$50백만(96년)에 이르렀으나 이후 불가리아의 경제 불안, 우리나라의 금융위기 등으로 인해 급격히 감소하여 '99년도에는 미\$19백만으로 감소
- 2000년도 이후 교역규모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4년도에는 수출 미\$279백만, 수입 미\$19백만으로 최대 실적을 기록했으며 무역흑자도 최대규모인 미\$166백만을 기록함.
- 2005년 對 불가리아 수출은 전년 대비 30.7% 감소한 미\$193.3백만, 수입은 21.2%가 증가한 미\$24.0백만으로 무역수지는 미\$169백만의 흑자를 기록하였음.

최근 우리나라 대 불가리아 무역추이 및 교역비중

(단위 : 미\$천, %)

연도	대 불가리아(미\$천)			우리나라 전체 점유비(%)		
	수출	수입	무역수지	수출	수입	무역수지
2005	193,304	24,032	169,272	0.072	0.008	0.755
2004	279,014	19,829	259,189	0.109	0.009	0.882
2003	57,996	18,065	39,931	0.022	0.007	0.266
2002	28,536	14,861	13,675	0.018	0.01	0.132
2001	21,557	9,745	11,812	0.014	0.007	0.126
2000	22,698	9,077	13,621	0.013	0.006	0.116
1999	19,483	11,137	8,346	0.014	0.009	0.035

자료원 : KOTIS, 한국통계

- 한국의 對 불가리아 주종 수출 품목은 승용차, 합성수지, 냉장고, 화물자동차, 진공 청소기, 전자응용기기, 폴리에스터사, 자동차부품, 타이어 등이며 주종 수입 품목은 연초류, 자동제어기, 비스코스사, 수산가공품, 알루미늄 괴 및 스크랩, 정밀화학 원료 등임.

우리나라의 對 불가리아 주요 수출 품목 및 수출 실적

(단위 : 미\$ 천, %)

순위	품목명	2004 년		2005 년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279,014	381.1	193,340	-30.7
1	승용차	227,582	954	143,676	-36.9
2	합성수지	14,223	65	12,586	-11.5
3	냉장고	3,095	77.1	4,472	44.5
4	화물자동차	825	39.4	4,154	403.4
5	진공청소기	1,474	-0.6	2,442	65.7
6	기타전자응용기기	2,651	19.5	1,740	-34.4
7	폴리에스터사	413	-73.7	1,700	311.8
8	자동차부품	873	0.4	1,491	70.8
9	타이어	1,190	73.1	1,360	14.3
10	의료용 전자기기	357	-30.4	994	178.1
11	보조기억장치	257	-	971	277.6
12	펌프	239	797.8	895	274.5
13	기타플라스틱제품	539	55.5	802	48.8
14	전동기	11	12.9	772	6,758.30
15	비디오카메라	2,060	67.7	752	-63.5
16	기타철강금속제품	500	213	586	17.3
17	연결부품	497	98	558	12.2
18	의료용 기기	387	-13.5	556	43.6
19	폴리에스텔 섬유	557	24.4	536	-3.7
20	기타의직물	409	248.9	532	30.1

자료원 : KOTIS, 한국통계

우리나라의 對 불가리아 주요 수입 품목 및 수입 실적

(단위 : 미\$ 천, %)

순위	품목명	2004 년		2005 년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19,829	9.8	24,032	21.2
1	연초류	1,754	6,954.40	4,992	184.6
2	자동제어기	1,294	152.3	3,058	136.2
3	비스코스사	340	-45	1,896	457.6
4	기타수산물가공품	1,247	-6.7	1,836	47.2
5	알루미늄 과 및 스크랩	642	-74.8	1,461	127.5
6	기타 정밀화학 원료	6,671	8.3	1,372	-79.4
7	직물제 의류	1,917	59.7	1,307	-31.8
8	원동기	845	-12.8	772	-8.6
9	의약품	660	6.1	762	15.5
10	무기류부품	0	-	613	-
11	실리콘웨이퍼	339	439.4	520	53.5
12	동 과 및 스크랩	526	40.7	506	-3.7
13	집적회로반도체	622	56.5	492	-20.9
14	폐 건전지	67	4.4	432	544.2
15	초코렛·코코아조제품	149	-	390	161.6
16	자동차부품	309	49.4	318	3.1
17	변압기	104	2,612.30	302	189.3
18	편직제 의류	304	-32.8	301	-1
19	주류	14	-53.3	230	1,601.40
20	모사	297	-28.3	170	-42.7

자료원 : KOTIS, 한국통계

3) 한국과의 투자 관계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對 불가리아 직접투자는 2006년 6월말 신고기준으로 총 7건에 82백만 불, 실제 투자기준으로 총 5건에 55백만 불로 집계되고 있음.

우리나라의 對 불가리아 업종별 투자건수 및 금액(2006. 6월 기준)

(단위 : 건, 미\$천)

업종	신고기준(건)	신고기준(금액)	투자기준(건)	투자기준(금액)
제조업	3	3,260	1	163
도소매업	2	1,024	1	1,000
숙박음식업	1	52,205	1	52,205
부동산업	1	25,500	1	1,500
총계	7	81,989	5	54,868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 한국의 주요 對 불가리아 투자진출 업체로는 대우가 '96년 9월 웨라톤 호텔 지분 67% (22백만불), '97년 5월 무역센터(Interpred) 지분 70%(24백만 불)를 각각 인수하여 운영한 바 있으나 웨라톤 호텔은 2002년 5월 그리스 호텔 체인에, 무역센터는 2001년 12월에 이탈리아 기업에 각각 매각한 후 철수 하였음.
- 현대중공업에서 '97년 7월 변압기 제조회사인 Elprom Trafo를 인수하여 현재 발전소 및 변전소용 변압기를 생산(투자규모 6.5백만 달러 ; 초기투자 3백만 불 + 증액투자 3.5백만 불)하고 있음.
- (주)아이피에스에서 2005년 Qual Tec이라는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현재 프린터용 잉크 및 토너를 생산하고 있음.
- 이외에 개인 투자가로 식품 등 무역업체인 Choice Ltd, 자동차 부품 수입 및 수리 업체인 Auto Bulgaria Ltd, 여행업체인 JIKO Tour Ltd 등이 있음.
- 2005년 인조모피 제조(15백만 불), 타포린 제조(6백만 불), 스피커 제조(4백만 불), 인터넷 서비스(50만불) 등의 투자 프로젝트들이 추진되었으나 아직까지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II. 경제

7. 경제정책

가. 경제 개황

- 불가리아 경제는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전통적으로 농업부문이 강세를 보이고 철강, 화학, 전자, IT, 군수와 같은 중화학분야에서 COMECON 시장 보호 정책에 힘입어 상당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었으나 90년대 초에 시장경제가 도입된 이후에는 동 중화학분야에서의 국제 경쟁력을 상실하고, 농업분야에서도 개혁 지연으로 동 분야에서의 경쟁력 회복도 부진한 상태임.
- 한편 서비스산업 분야는 최근 상당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는 서비스산업 중심의 현대식 경제 발전을 의미하기 보다는 부진한 공업 분야에 대한 상대적인 신장으로 평가됨.

- 서비스 산업이 차지하는 총 부가가치(GVA)는 89년 29.5%에서 2004년(입수 가능한 가장 최근 수치를 반영) 59.1%로 증가하였으나, 민간 서비스 분야의 비중은 아직도 낮은 반면 공공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 상황 (다만 관광, 통신분야는 급성장세 시현)
- 반면 공업분야가 차지하는 GVA는 89년 59.4% 에서 2004년(입수 가능한 가장 최근 수치를 반영) 30.0% 로 감소
- 불가리아 경제에서 민간부문이 차지하는 GVA는 1989년 이래 급성장하여 2004년(입수 가능한 가장 최근 수치를 반영) 66.3%에 도달한 바, 이는 공산주의 체제 붕괴 직후 이루어진 민간인에 대한 부동산 반환 조치와 최근 제조업 및 3차 산업의 민영화 신장에 기인함.
- 96/97 경제위기 이후 UDF 정부(97)의 '先안정, 後발전' 전략에 따라, 불가리아는 환율과 물가 등의 경제 안정 기조 회복에 성공하였으며, 2001. 7월 출범한 SNM 정부는 경제 안정과 성장을 조화시키는 정책을 추구하면서, EU가입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였음.

나. 경제성장 확대 노력

- 2005.8.16일 출범한 신정부(BSP, SNM, MRF 3개 정당의 연합내각)는 이전 SNM 정부의 경제 성장과 안정 위주의 정책에 일반 국민에 대한 의료, 연금 혜택 확대와 같은 사회주의 요소를 가미한 경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즉, 신정부는 경제성장과 안정의 조화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음.
- 경제 장에 필요한 자본 확충을 위해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 노력
- 2000년도 5% 경제성장에 이어 2001년 4.0%, 2002년 4.8%, 2003년 4.2%, 2004년 5.6%, 2005년 5.5% 의 견실한 경제성장 달성에도 불구하고 소득, 보건, 교육, 노동 등 제반 분야에서 문제점이 조성되고 있는 상태임.

다. 신 정부의 주요 경제개혁 정책

- 신정부는 이전 SNM 정부의 경제 성장과 안정 위주의 정책에 일반 국민에 대한 의료, 연금 혜택 확대와 같은 사회주의 요소를 가미한 경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경제성장에 필요한 자본 확충을 위해, 외국인투자 유치 노력을 강화
- 매년 6 - 8%의 경제 성장 및 실업률을 10% 수준으로 감소
- 민영화 지속과 함께 사회간접자본 확충
- 의료 서비스와 연금 제도 개선 등 사회보장 강화
- IMF 통화위원회의 지속적 활동 및 균형 예산 달성
- 현행 법인세(15%) 유지와 함께 재정 상황을 감안한 부가가치세 인하(20% → 18%)

라. 지하경제 문제

- 밀수, 외화 반출, 부정부패 등 지하경제의 비중(전체 경제의 40% 내외 추정)이 매우 큰 바, 신 정부는 지하경제의 양성화 노력 중임.

8. 최신 경제동향 및 전망

가. 경제 동향

2005년도 불가리아의 실질 경제 성장률은 5.5%를 기록했으며 이는 정부에서 당초 예상했던 5.0%에 보다 다소 높아진 수치임.

이와 같은 경제 성장세는 거시 경제지표상의 재정, 물가 부문의 안정에 기인한 것이며 한편으로 불가리아 정부의 지속적인 지하경제규모 축소화 노력에 힘입은 것이라고 할 수 있음.

1) 실질 경제성장률

- 5.5%(2005), 5.6%(2004), 4.3%(2003), 4.8%(2002), 4.0%(2001), 5.8%(2000), 2.4%(1999), 3.5%(1998), -6.9%(1997) (자료원: www.stat.bg)
- 2004년도(입수 가능한 가장 최근 수치를 반영) 총 부가가치(GVA) 창출액 기준으로 농업 부문은 10.9%로 전년의 11.6%에 비해 다소 낮아진 반면 제조업은 29.7%에서 30.0%로, 서비스업은 58.7%에서 59.1%로 다소 높아졌음. (자료원: www.nsi.bg)
- 2005년도 불가리아 경상GDP는 미\$ 26,648백만, 1인당 GDP는 미\$ 3,443백만으로 집계되었음.

2) 소비자 물가 상승률

- 물가 상승률은 계속 안정세를 유지하였음. 2005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8%를 나타내 전년도 4.0%에 비해 다소 낮아졌으며 계속적인 양호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음.
- 3.8%(2005), 4.0%(2004), 5.6%(2003), 3.8%(2003), 4.8%(2002), 11.4%(2001), 6.2%(2000)

(자료원: www.stat.bg)

3) 실업률

- 고용시장의 경우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이와 같은 실업률의 저하는 정부의 고용 촉진책과 함께 실업자에 대한 의료보험 등 사회보장 제도의 혜택 축소에 따라 명목적인 실업인구가 감소한 때문으로 분석됨.
- 2005년 실업률은 10.7%로 전년도 12.16%에 비해 상당히 개선되었음.
- 10.7%(2005), 12.16%(2004), 13.52%(2003), 16.27%(2002), 17.88%(2001)

(자료원: www.stat.bg)

4) 환율

- IMF의 관리 체제하에 있는 불가리아의 통화인 레바는 2002년부터 IMF에 의해 1유로 = 1.95583 레바로 고정되었으며 이 고정 환율은 2006년에도 계속 유지될 전망이다.

- 최근 유로화의 가치 상승에 따라 레바화의 명목 유효 환율도 계속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2006년 1월 1달러 = 1.64레바였던 레바화 환율은 2006년 8월말 기준 1달러 = 1.52 레바까지 상승한 상태임.
- 불가리아 수출의 55% 이상이 EU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레바화의 가치 상승은 유로 지역 이외의 경쟁자와 비교할 때 불가리아 기업의 경쟁력에 큰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5) 재정 수지

- 재정부문의 경우 2002년까지 적자 상태에 있었으나 2003년도 중 BGN 1백만의 흑자로 전환된 이후 2004년도에 BGN 659백만, 2005년도에 BGN 986백만의 흑자를 기록하였음. 이는 지하경제규모의 축소를 위한 노력과 탈세방지책의 강화책에 기인하고 있음.
- 한편 당초 예상보다 경제성장이 높아져 세수익 증대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6) 무역 및 경상 수지

- 2005년 고유가와 국내수요 급증으로 수입이 크게 늘어난 반면 수출 증가는 이에 못미쳐 큰 폭의 무역수지 및 경상수지 적자 기록
- 경상수지 적자(2005년) : US\$ 3,133백만 (GDP의 14.9%)
- 무역수지 적자(2005년) : US\$ 5,078백만 (GDP의 19.0%)

불가리아의 무역 및 경상수지 추이

주요지표	단위	2003	2004	2005
무역 수지	미\$백만	-2,478	-3,371	-5,078
- 수출(FOB)	미\$백만	7,445	9,888	11,821
- 수입(FOB)	미\$백만	9,923	13,259	16,899
경상수지	미\$백만	-1,856	-1,416	-3,133
경상수지/GDP	%	-9.3	-8.5	-14.9

자료원 : 불가리아 통계청(NSI), 불가리아 중앙은행(BNB)

나. 2006 - 2007년 경제 전망

1) 국내 경제 전망

- 경제성장 : 4.5 ~ 5 %로 둔화 전망
- 정부의 재정지출 억제, 중앙은행의 여신제한조치로 인한 내수 억제, 중공업 제품 수출 부진 등이 경제성장 둔화의 주요 요인
- 물가 : 4% 이내의 안정세 지속
- 임금상승 둔화, 정부의 물가안정화 정책 등으로 4% 대의 물가상승 전망

2) 국제 경제 전망

○ 수출

- 주요 수출대상국의 경제상황 호전이 예상되면서 15% 이상의 높은 수출 신장세 지속 전망

○ 경상수지

- 수출증대, 수입증가 둔화, 관광수입 증가 및 EU 경상지원으로 경상수지 개선 전망
- 2005년 12월 합의한 2007-13년 EU 예산안 가운데 110억 유로 수혜 예정

○ 외채

- 경상수지 적자 보전을 위한 해외차입 필요에 따른 외채누적 지속 전망

3) EU 가입 추진 동향

○ 2005년 4월 EU 가입 협정 체결 이후 불가리아 정부는 2005년 1월 1일부 EU 가입을 위해 총력

- 그러나 2005년 10월 EU 집행위는 불가리아의 EU 가입 진전 상황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부패, 조직범죄 등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 표명
- EU가 정한 수준이나 기준에 미달할 경우 불가리아의 EU 가입은 2007년 1월 1일이 아닌 2008년 1월 1일 가입으로 1년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 불가리아의 EU 가입 여부는 2006년 10월 EU 집행위의 최종 검토 보고서를 통해 결정될 예정

9. 주요 산업 동향

과거 소비에트 블록에서는 중공업이 특화되어 상당한 수준을 유지하여 왔으나 체제 전환 이후부터는 기술적 취약성, 낙후된 설비 및 코메콘(COMECON) 시장 상실 등으로 중공업 분야가 취약해지고 상대적으로 통신, 의료 서비스, 관광 등 서비스업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추세임.

2005년도 산업별 GDP 대비 생산 비중은 1차 산업(농업 등) 10.9%, 2차 산업(전력, 가스, 건설, 수도, 광업 등) 30.0%, 3차 산업(공공부문, 교육, 상업, 숙박, 음식업 등) 59.1%

농업은 사회주의 시절의 집단 영농 체제가 소규모 자영농으로 바뀌면서 유희 경작지가 발생, 총 620만 헥타르의 농지 가운데 69%가 경작(27% 목초지) 중이며 주요 농작물은 담배, 밀, 옥수수, 보리 등 임.

정치·경제적 안정에 힘입어 2000년대부터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제조업은 금속가공, 기계 등이 국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고, 섬유, 봉제, 전기 광학 분야도 급성장 중

90년대 말부터 민간부문의 성장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어 2005년말 기준으로 총 부가가치(GVA)에서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26.7%로 축소되고, 민간부문은 73.3%로 확대되었으며 국내총생산(GDP)에서도 공공부문은 23.3%, 민간부문은 64.1%를 차지

10. 정보조사 자료원

가. 중앙정부기관

1) 행정부

- 수상실 : www.government.bg
 - 정부기관 홍보자료 및 각 부처 장관 프로필 등 소개
- 경제부 : www.mi.government.bg
 - 산업정책, 무역정책 및 지원제도, 관광부문 및 민영화정책 등 소개
- 재무부 : www.minfin.bg
 - 조세관련 및 거시경제지표 등 정보 제공

2) 입법부

- 불가리아 의회 : www.parliament.bg
 - 불가리아 헌법, 의회 뉴스 및 활동, 입법 관련 소개

3) 사법부

- 헌법재판소 : <http://www.constcourt.bg>
 - 헌법재판소 역할 및 기능 소개, 과거 판결 요약문 제공

나. 중앙정부 산하 기관

1) 산업진흥 및 투자유치기관

- 불가리아 투자진흥청(Invest Bulgaria Agency) : www.investbg.government.bg
 - 불가리아 투자유치기관으로 투자환경 정보 제공
- 불가리아 민영화청(BPA) : www.priv.government.bg
 - 불가리아 민영화 추진 실무기관으로 민영화대상 기업 및 방법 등 정보 제공
- 불가리아 중소기업청(Agency Small & Medium Enterprises) : www.sme.government.bg
 -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제도, 기금, 대외협력 등 정보 제공
 - 중소기업 무역진흥 활동
- 불가리아 특허청(BPO) : www.bpo.bg
 - 특허권, 지적재산권 보호 등에 대한 등록 절차 및 방법 안내
- 불가리아 관세청(BCO) : www.customs.bg
 - 관세율표, 세관 정책, 통관 절차 등

2) 무역 및 통계 관련기관

- 불가리아 통계원(NSI) : www.nsi.bg
 - 불가리아 전반적인 통계관련 정보 제공(농업, 공업, 수출입, 고용, 국민소득 등)
- 불가리아 관세청(NCA) : www.customs.government.bg
 - 불가리아 관세율 관련 정보 제공

다. 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 연구소

1) 상공회의소 및 경제단체

- 불가리아 상공회의소(BCCI) : www.bcci.bg
 - 불가리아 경제일반 정보 및 회원정보 제공
- 불가리아 산업협회(Bulgaria Industrial Assoc.) : www.bic.bia-bg.com
 - 불가리아 경제일반 정보 및 기업정보 제공
- 불가리아 국제기업협회(Bulgaria Int'l Business Assoc.) : www.biba.bg
 - 불가리아 외국기업 협회로 경제백서 발간

2) 연구소

- 유럽연구소(European Institute) : www.europeaninstitute.net
 - 불가리아 EU 가입에 관한 조사정보 제공
- 경제개발센터(Center for Economic Development : CED) : www.ced.bg
 - 불가리아 경제 및 경제분야 분석과 조사

3) 온라인 경제정보 제공

- 경제청(Agency for Economy) : www.stat.bg
 - 불가리아 주요 경제 통계 정보 제공 (영문 및 불가리아어)
- 경제개발센터(Center for Economic Development ; CED) : www.econ.bg
 - 불가리아 경제 정보 및 뉴스 등 제공

라. 금융기관

1) 중앙은행

- 불가리아 중앙은행 : www.bnb.bg
 - 금융 통계 제공(환율, 국제수지, 대외채무, 수출입 및 외국인투자 등)

2) 상업은행

- BULBANK : www.bulbank.bg
 - 불가리아 주요 상업은행 중의 하나로 이태리 은행이 투자
- UBB (United Bulgarian Bank) : www.ubb.bg
 - 불가리아 주요 상업은행 중의 하나

마. 언론기관

1) 뉴스사

- Bulgaria News Agency (BTA) : www.bta.bg
 - 불가리아 및 국제 뉴스 제공(일부 영문 및 불가리아어)

2) 신문사

- 경제신문(PARI) : www.pari.bg
 - 불가리아 일간 경제지, 주요 기사 영문 제공
- 캐피탈신문(Capital) : www.capital.bg
 - 불가리아에서 제일 인기 많은 경제/사회 주간지 (불가리아어)
- 드네브닉(Dnevnik) : www.dnevnik.bg
 - 일간지(불가리아어)
- 트루드(Trud) : www.trud.bg
 - 일간지(불가리아어)
- 세가(Seга) : www.segabg.com
 - 일간지(불가리아어)

3) 온라인 인터넷 신문

- 미디어풀(Mediapool) : www.mediapool.bg
 - 불가리아어 인터넷 신문
- 노비니테(Novinite) : www.novinite.com
 - 영문 인터넷 신문

III. 경제무역통계

11. 거시경제통계

주요지표	단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경상 GDP	미\$백만	12,599	13,557	15,500	19,857	24,131	26,648
경제 성장률	%	5.4	4	4.8	4.3	5.6	5.5
1인당 GDP	미\$	1,542	1,690	1,978	2,538	3,101	3,443
재정 수지	BGN백만	-267	-255	-218	1	659	986
- 세입	BGN백만	11,062	11,838	12,525	14,072	15,858	17,983
- 세출	BGN백만	11,331	12,093	12,743	14,071	15,199	16,997
무역 수지	미\$백만	-1,176	-1,580	-1,593	-3,303	-4,490	-5,079
- 수출(FOB)	미\$백만	4,825	5,113	5,688	7,439	9,888	11,821
- 수입(CIF)	미\$백만	6,600	6,693	7,281	10,742	14,378	18,330
경상수지	미\$백만	-702	-984	-827	-1,856	-1,416	-3,133
외환보유고	미\$억	34.6	35.8	44.3	60.3	84.1	81.3
인구(연말)	만명	815	789	785	782	778	778
물가상승률	%	11.4	4.8	3.8	5.6	4.0	3.8
이자율	연%	4.62	4.67	3.35	2.67	2.47	2.05
연평균환율	BGN/USD	2.1233	2.1847	2.077	1.7326	1.5751	1.5741
연말실업률	%	17.9	17.8	16.3	13.5	12.2	10.7
외국인투자	미\$백만	1,002	813	458	2,097	2,883	2,324

자료원: 불가리아 통계청(NSI; National Statistical Institute; www.nsi.bg)

12. 무역통계

가. 불가리아 무역 통계

최근 3년간 교역동향

(단위: 미\$백만, %)

연도별	수출(FOB)	수입(CIF)	무역수지
2003	7,445	9,923	-2,478
2004	9,888	13,257	-3,369
2005	11,820	18,330	-5,079

자료원: 불가리아 통계청(NSI; National Statistical Institute; www.nsi.bg)

□ 주요 국별 수출입

주요 수출국

(단위: 미\$백만, %)

국가별	2004		2005	
	금액	점유율	금액	점유율
총계	9,888	100	11,820	100
이태리	1,296	13.1	1,425	12.1
터키	992	10.1	1,237	10.5
독일	1,014	10.3	1,162	9.8
그리스	987	10	1,119	9.5
벨지움	592	6	703	5.9
프랑스	447	4.5	554	4.7
루마니아	394	4	447	3.8
스페인	334	3.4	385	3.3
미국	443	4.5	356	3.0
세르비아	345	3.5	353	3.0
한국	13	0.1	20	0.2

자료원: 불가리아 통계청(NSI; National Statistical Institute; www.nsi.bg)

주요 수입국

(단위: 미\$백만, %)

국가별	2004		2005	
	금액	점유율	금액	점유율
총계	14,378	100	18,330	100
러시아	1,825	12.7	2,849	15.5
독일	2,103	14.6	2,494	13.6
이태리	1,417	9.8	1,648	9.0
터키	869	6.1	1110	6.1
그리스	829	5.8	921	5.0
프랑스	766	5.3	861	4.7
중국	469	3.3	708	3.9
우크라이나	585	4.1	702	3.8
루마니아	425	2.9	681	3.7
영국	350	2.4	419	2.3
한국	110	0.8	144	0.8

자료원: 불가리아 통계청(NSI; National Statistical Institute ; www.nsi.bg)

주요 품목별 수출입

(단위: BGN 백만, %)

품목분류(SITC)	수출(FOB)			수입(CIF)		
	2004	2005	증감률	2004	2005	증감률
TOTAL	15 617.1	18 490.6	18.4	22 725.8	28 716.4	26.4
Food and live animals	1 056.0	1 258.1	19.1	1 007.2	1 133.1	12.5
Beverages and tobacco	366.6	352.7	-3.8	113.5	99	-12.8
Crude materials, inedible (except fuel)	959.6	1 179.9	23.0	1 361.2	1 762.7	29.5
Mineral fuel, lubricants and related materials	1 601.0	2 396.8	49.7	3 795.4	5 780.4	52.3
Animals and vegetable oils, fats and waxes	46.5	56	20.4	78	88.2	13.1
Chemical and related products n.e.c.	1 202.3	1 406.3	17.0	2 357.8	2 722.7	15.5
Manufactured goods classified chiefly by material	4 304.1	4 906.7	14.0	4 912.0	5 780.8	17.7
Machinery and transport equipment	1 929.7	2 633.1	36.5	6 714.6	8 818.4	31.3
Miscellaneous manufactured articles	4 010.2	4 124.4	2.8	2 063.6	2 192.5	6.2
Commodities and transactions n.e.c.	141.1	176.6	25.2	322.5	338.6	5.0

주 : 2005 년 적용 환율 US\$ 1 = BGN 1.56425

자료원 : 불가리아 통계청(NSI; National Statistical Institute; www.nsi.bg)

나. 불가리아와 한국과의 무역통계

한국의 對 불가리아 무역추이 및 교역비중

연도	대 불가리아(미\$천)			우리나라 전체 점유비(%)		
	수출	수입	무역수지	수출	수입	무역수지
2005	193,340	24,032	169,308	0.072	0.008	0.755
2004	279,014	19,829	259,189	0.109	0.009	0.882
2003	57,996	18,065	39,931	0.022	0.007	0.266
2002	28,536	14,861	13,675	0.018	0.01	0.132
2001	21,557	9,745	11,812	0.014	0.007	0.126
2000	22,698	9,077	13,621	0.013	0.006	0.116

자료원: KOTIS, 한국 통계

□ 한국의 對 불가리아 주요 품목별 수출입

주요 수출 품목

(단위: US\$, %)

순위	품목명	2005 년		2006(1 월~06 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 계		193,340	-30.7	53,790	-63.0
1	승용차	143,676	-36.9	19,444	-83.9
2	무선전화기	-	-	6,145	-
3	냉장고	4,472	44.5	4,428	113.1
4	합성수지	12,586	-11.5	4,190	-43.1
5	진공청소기	2,442	65.7	1,800	54.1
6	화물자동차	4,154	403.4	1,509	-8.8
7	칼라 TV	483	-75.4	1,206	187.8
8	기타전자응용기기	1,740	-34.4	1,017	47.0
9	타이어	1,360	14.3	778	12.3
10	보조기억장치	971	277.6	766	65.6
11	자동차부품	1,491	70.8	652	-1.3
12	무선수신기	475	-70.7	630	1437.3
13	폴리에스터사	1,700	311.8	517	-37.8
14	의료용기기	556	43.6	510	127.5
15	광산기계	-	-	482	-
16	금속절삭가공기계	-	-	479	-
17	기타 플라스틱제품	802	48.8	436	4.2
18	기타 인조섬유장섬유사	323	16.5	401	86.0
19	세탁기	300	-	353	317.8
20	폴리에스터 직물	349	-79.2	337	100.1

자료원: KOTIS, 한국 통계

주요 수입 품목

(단위: US\$, %)

순위	품목명	2005 년		2006(1 월~06 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 계		24,032	21.2	25,125	179.7
1	선박	-	-	12,000	-
2	사료	2	-	3,600	173474.8
3	알루미늄괴및스크랩	1,461	127.5	1,631	362.8
4	자동제어기	3,058	136.2	1,211	-19.4
5	직물제의류	1,307	-31.8	742	22.0
6	동괴및스크랩	506	-3.7	503	58.4
7	연초류	4,992	184.6	432	4.7
8	원동기	772	-8.6	423	-10.5
9	집적회로반도체	492	-20.9	351	13.7
10	기타비철금속제품	20	-	315	-
11	기타정밀화학원료	1,372	-79.4	314	-71.4
12	실리콘웨이퍼	520	53.5	297	16.8
13	기타수산물가공품	1,836	47.2	289	-58.3
14	의약품	762	15.5	271	-4.8
15	금속성형가공기계	-	-	253	-
16	자동차부품	318	3.1	202	66.9
17	연마제품	78	-	182	15826.0
18	비스코스사	1,896	457.6	182	-79.5
19	변압기	302	189.3	147	70.4
20	인쇄기계	128	555.2	143	134.3

자료원: KOTIS, 한국 통계

13. 투자통계

가. 불가리아 투자 통계

외국인투자 추이

(단위: 백만불, %)

구 분	1996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신설 및 증액 투자액(A)	180	404.4	592.1	635.5	793.7	769.1	1,743.4	1,297.8	2,324.2
전체에서 비중	70.2	65.2	72.3	63.5	97.6	85	83.1	52.2	100
민영화(B)	76.4	215.6	226.7	366	19.2	135.6	353.5	1,189.7	0
전체에서 비중	29.8	34.8	27.7	36.5	2.4	15	16.9	47.8	0
합계(A+B)	256.4	620	818.8	1,001.5	812.9	904.7	2,096.9	2,487.5	2,324.2

자료원: 불가리아 중앙은행(BNA)

1992년부터 2005년까지 국별 외국인투자 누계액

(단위: 백만불, %)

구 분	오스트리아	그리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미국	스위스	헝가리	영국	사이프러리	일본	한국
순위	1	2	3	4	5	6	7	8	9	10	24	32
금액	2,516	1,257	999	802	793	594	571	561	555	553	44	4.5
비중	19.5	9.7	7.7	6.2	6.1	4.6	4.4	4.3	4.3	4.3	0.3	0.03

자료원 : 불가리아 중앙은행(BNA)

1998년부터 2005년까지 부문별 외국인투자 누계액

(단위: 백만불, %)

구 분	금융	무역	통신	전기.가스	부동산	석유.화학	광업	건설	식품	섬유	목재	요식업
순위	1	2	3	4	5	6	7	8	9	10	11	12
금액	2,287	1,696	1,621	1,033	833	612	537	374	283	254	192	191
비율	19.8	14.7	14.1	9.0	7.2	5.3	4.7	3.2	2.5	2.2	1.7	1.7

자료원: 불가리아 중앙은행(BNA)

나. 우리나라의 對 불가리아 투자 통계

우리나라의 對 불가리아 업종별 투자건수 및 금액(2006. 6월말 기준)

(단위: 건, 미\$천)

업 종	신고기준	신고기준	투자기준	투자기준
	(건)	(금액)	(건)	(금액)
제조업	3	3,260	2	163
도소매업	2	1,024	1	1,000
숙박음식업	1	52,205	1	52,205
부동산업	1	25,500	1	1,500
총 계	7	81,989	5	54,868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 현황”

IV. 출장가이드

14. 출장가이드

1. 기후

- 보통적인 대륙성 기후로 4계절이 뚜렷하며 연평균 기온은 섭씨 10.5이며 연평균 강우량은 650mm임.
- 지역적으로 평 지대와 산악 지대의 기후 차이가 크고 4계절이 뚜렷함. 여름의 흑해연안 지역은 소피아에 비해 기온이 높으며 맑은 날씨가 많은 편임. 특별하게 우기가 분명하지는 않으나 겨울에서 봄으로 가는 환절기에 비가 자주 내리는 편임.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은 장마기간은 없음. 가끔 여름에 큰 우박이 내려, 농작물이나 자동차 등에 피해를 주는 경우가 발생함.

- 여름 기온 : 26 - 30C, 겨울 기온 : -5 - 5C
- 소피아의 경우 해발 550m 이상의 높은 지대에 위치하고 있고 분지에 위치해 있어 날씨 및 기온의 변화가 비교적 심함.
 - 겨울에 영하 15도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도 많으며 눈이 많이 내림.
 - 봄에는 비가 자주 내리며 비가 내리는 경우 기온이 많이 내려감.
 - 여름에는 건조하며 30도 이상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으나 습도가 낮아 쾌적한 기분을 느낄 수 있음. 다만 여름에 1주일 정도는 열대야 현상처럼 습도가 높고, 무더운 기분을 느끼는 경우도 있음.
 - 가을에는 비교적 맑으나 고지대에 위치한 특성상 날씨 변화가 많은 편임.
- 불가리아의 봄은 일년 중 날씨변화가 가장 심하며 해발 1000미터 이상 지대에는 4월 중순에도 눈이 내릴 때가 있음. 첫눈은 10월 하순에서 11월 초까지 내리는 편이며 가끔 10월 초에 눈이 내리는 경우도 있음. 또한 불가리아의 산악지대에서는 3월과 4월 중순까지 스키를 즐길 수 있을 정도로 눈이 쌓임. 자동차로 지방을 여행하는 경우 급격한 날씨 변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도시 지역에는 안개가 심하게 끼는 경우도 있음.
- 불가리아의 여름은 비교적 덥고, 습도가 낮음. 그러나 산간지역의 경우 해발이 높은 곳에 서는 기온이 내려갈 수 있음. 3, 4월에는 비가 오고 날씨 변화가 많지만 6-8월 중에는 비교적 기온이 높고 맑은 날씨를 보임. 다만 가끔 5-6월 경 갑자기 직경 3-4cm의 우박이 내리는 현상이 나타나 작물 및 차량, 설비 등에 많은 피해를 주기도 함. 여름엔 흑해해안 지역은 휴양객들로 매우 붐비며 일부 산악지대의 숙박시설 등도 휴양객들이 많이 찾는 편임.
- 불가리아의 가을은 상당히 짧은 편임. 9월초까지 흑해해안에서 휴양을 하기도 하지만 9월 중순이 되면 해수욕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기온이 내려감. 10월에 첫눈이 내리는 것이 일반적임. 산악지대의 단풍은 10월말이 되면 사라지며 11월이 되면 겨울로 접어드는다고 할 수 있음.
- 겨울에는 지역적으로 폭설이 내려, 교통이 두절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함. 따라서 겨울에 지방으로 여행하는 경우 일기예보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음. 또한 내륙지방을 자동차로 여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폭설에 대비한 장비를 갖추는 필요가 있음.

< 방문 시 복장 >

- 겨울에는 반드시 방한복을 준비할 필요가 있음.
- 여름의 경우 긴 옷은 거의 필요 없으나 갑자기 추워질 수 있으므로 긴 소매 옷을 최소한 한가지 준비하여야 함.
- 봄과 가을에는 기온변화가 많으므로 반드시 두꺼운 옷을 준비하여야 함.
- 여름이라 할지라도 산악지역에서 머무는 경우 긴 옷을 준비하여야 함.
- 여름에는 모기 등 충해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2. 시차/근무시간

가. 시차

- GMT 표준시보다 2시간 앞섬. GMT + 2 (섬머타임 기간인 4월 - 9월은 GMT + 3)
- 한국과의 시차는 7시간(하계 섬머타임 기간은 6시간)임.
 - 한국 시간 = 불가리아 시간 + 7시간
 - 불가리아 시간 = 한국 시간 - 7시간
- 섬머타임 기간 : 3월 마지막 주 일요일 -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
 - 한국 시간 = 불가리아 시간 + 6시간
 - 불가리아 시간 = 한국 시간 - 6시간

* 2006년의 경우 3월 27일 - 10월 28일

나. 근무 시간

- 주 5일, 일일 8시간 주당 40시간임.
- 정부기관 및 은행: 08:30 - 16:30
 - 은행의 경우 17:00까지 영업하지만 당일 송금 등의 업무처리는 15:30에 종료(당일 타 은행 계좌로 송금이 가능한 시간은 은행마다 다소 다르게 운영함)
 - 공무원의 경우 신축 근무제가 적용되며 사전에 약속하여야 함.
- 기업: 09:00 - 17:00
 - 일부 소규모 자영업자, 민간기업의 경우 늦게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많음.
- 생산 현장 : 07:00 - 16:00
 - 생산 공장의 경우 아침 일찍 근무를 시작하는 경향이 강함.
 - 그러나 개별 공장 근무시간은 각 기업별로 다름.

다. 영업 시간

- 상점 : 매일 10:00-20:00
 - 통상적으로 일요일에도 개점하는 경우가 있음.
 - 대형 슈퍼마켓의 경우 연중 무휴 개점
- 식당 : 통상적으로 밤 11시까지 영업
 - 통상적으로 일요일에도 영업하나 일부 식당은 일요일 휴무함.
 - 성탄절, 부활절에는 대부분 영업을 하지 아니함.
- 디스코텍: 통상적으로 밤 10시 또는 11시에서 다음날 새벽5시까지 영업
- 불가리아에는 24시간 편의점은 거의 없으며 일부 24시간 운영 주유소에서 영업함.

라. 여름 휴가

- 공무원들의 경우 대부분 8월에 집중되어 있으나 7월 중순부터 휴가 시작되고, 휴가 일수는 근무일 기준 연간 20일이며 따라서 1개월 정도가 됨.
- 소규모 자영업자의 경우 아예 휴가기간 동안 사무실 폐쇄(약 1개월 정도)하고, 일부 근로자의 경우 여름휴가 2 - 3주, 겨울휴가 1 - 2주를 사용함.

3. 도량형

- 불가리아는 도량형으로 미터법을 사용함
 - 1 Km = 0.62 miles
 - 1 Kg = 2.2 pounds
 - 1 pint = 0.568 litres

4. 출입국/비자

가. 비 자

비자 발급처는 재외 불가리아 공관, 항공 및 각 국경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임. 우리나라 국민의 경우 단기사증면제협정(외교관, 관용, 일반)이 94.8월 체결되어 관광객은 (90일 이내 체류) 비자가 면제됨. 장기체류(취업 및 유학)의 경우에는 반드시 한국 또는 제 3국에서 최초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함.

현지 투자 개인사업자로서 1년 이상의 체재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현지 사업체의 종업원수가 10명 이상이어야 하며 10명 미만을 고용할 경우 장기비자 취득이 어려움. 다만 투자금액이 50만 달러 이상이면 불가리아어를 구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종업원 고용수와 관계없이 장기 비자 취득이 가능함. 불가리아 정부는 2004년까지는 개인투자자의 경우 투자 규모가 25만 달러 이상일 경우에는 장기체재 비자를 발급했으나 2005년도부터는 투자 금액을 50만 달러로 인상하였으며 이 외에도 불가리아 구사 능력을 요구하도록 변경 하였음.

불가리아 정부는 2004년도 하반기부터 정상적인 장기체재 취득을 하지 않고 단기 비자 면제협정을 이용하여 3개월마다 출국하고 재입국하는 방식으로 장기 체재하고 있는 외국인의 입국심사를 강화하여 적법한 비자 미 취득자에 대한 입국을 거부하고 있으며 규정된 기한 내에 비자를 갱신하지 않는 경우에도 적발하여 벌금을 부과하는 조치를 강화하고 있음.

캐나다, 핀란드, 독일, 이탈리아,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영국 여권 소지자는 비자를 취득하여야 하며 입국비자 취득에는 큰 어려움이 없고 공항 및 각 세관에서 신청 즉시 발급 가능함. 다만 비자 종류에 따라 30유로(대외 공관에서 정상 취득)에서 100유로까지(1년간 멀티비자) 비자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함. 공항 및 국경 세관에서 비자 취득 시 특별한 구비서류는 없고 다만 비자 신청서와 비자대를 지불하면 됨.

< 비자 발급처: 주한 불가리아대사관 >

- 주소: 서울 용산구 한남 2동 723-42
- 전화: 794-8627
- 휴일: 토, 일요일, 양 국가의 공휴일
- 업무시간: 10:00-13:00

비자 발급처인 주한 불가리아대사관에서는 장기비자의 경우 일단 불가리아에 입국한 후 인근지 불가리아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비자 발급을 신청하는 것을 권하기도 하며 실제로 불가리아에 입국한 후 인근지인 그리스 데살로니키 불가리아 영사관에 비자 신청을 하여 발급 받는 경우도 있음.

나. 출입국 절차

출입국에 필요한 특별한 절차는 없음.

입국 시 신고물품이 있을 경우에만 세관 검사대를 거치며 그 외에는 대부분 세관 검사 없이 통관함. 단, 세관원 임의로 선택하여 세관 검사를 하므로 Sample, 촬영장비 등을 반입하는 경우 반드시 ATA carnet 등 증명서를 휴대하여야 함. 특히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견본을 휴대하는 경우 반드시 견본이라는 증명서를 필요로 함.

또한 현금을 BGN8,000 (4,000유로) 이상 소지한 경우에는 반드시 세관에 신고하여야 함. 미 신고 시 이 금액을 초과하는 현금을 반출할 수 없으며 세관 검사에서 적발될 경우 압류 및 처벌을 받을 수 있음.

귀금속의 경우 금 및 백금의 경우 60그램까지 자유롭게 소지할 수 있으며 은의 경우 300그램까지 세관신고 없이 반출입이 가능함.

다. 방역

특별한 제한규정이 없음.

라. 면세품 보유한도

- 담배 200개비, 또는 시가 50개, 또는 담배 200g, 또는 Cigarillos 100개 중 택1
- 술 1리터와 포도주 2리터, 또는 포도주 2리터와 샴페인 2리터 중 택1
- 향수 50ml
- 커피 500g, 또는 커피 추출액 200g
- 차 100g, 또는 차 추출액 50g

위 한도량은 1개월 이내에 2회 입국하는 경우 20%가 감소되고, 총 면세반입품목가액은 1인당 100유로 (미성년자의 경우 50유로)를 초과할 수 없음.

물품 1개의 가격이 1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전체 금액에 대해 관세 및 부가세 과세 대상이고, 물품 여러 개의 가격이 1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만큼 관세 및 부가세 과세 대상임.

비상업용 물품으로 물품 가액이 100유로를 초과하고 1500유로 이하인 경우 관세는 5%가 적용 되고, 비상업용 물품으로 물품가액이 15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관세율표에 근거한 관세가 부과됨.

마. 출입국 유의사항

외국인의 경우 불가리아 입국시점으로부터 5일 이내에 체재 숙소를 인근지 경찰서에 신고 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2006년 1월 1일부터 동 제도가 폐지되었으며 대신 입국시 입국 신고 카드에 체재 숙소를 기재토록 제도가 변경되었음.

바. 항공편

소피아에는 유럽의 주요 항공사가 취항하고 있는데 Air France, Alitalia, Austrian Air, British Airways, Czech Airlines, Aeroplott, LOT, Lufthansa, Malev, Olympic, Swissair, Turkish Airline, Hemus Air, 그리고 Bulgarian Air 등임.

한국으로부터 입국하는 경우 대부분 서유럽 도시를 경유하며 통상적으로 해당 서유럽에서 1박한 후 다음날 소피아로 연결되고 있음. 다만, 일부 항공노선(모스크바 경유 Aeroplott, 프라하 경유 대한항공, 중국 경유 Austrian Air 등)의 경우 당일 소피아로 연결됨.

불가리아에서 한국으로 귀국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서유럽 주요 도시 경유 시 서유럽 도시에 서 체재할 필요 없이 당일 연결되며 한국에는 다음날 도착하게 됨.

Bulgarian Airlines은 국내선인 소피아-바르나, 소피아-부르가스에 취항하며 다수 유럽, 중동 수도에 취항하고 있음.

직항편이 운행되는 주요 도시로는, 부카레스트(루마니아), 아테네(그리스), 이스탄불(터키), 밀라노 및 로마(이태리), 취리히(스위스), 런던(영국), 파리(프랑스), 모스크바(러시아), 키예프(우크라이나), 마드리드(스페인), 텔아비브(이스라엘), 바르샤바(폴란드), 프라하(체코), 부다페스트(헝가리), 프랑크푸르트 및 뮌헨(독일), 비엔나(오스트리아) 등임.

소피아 공항 홈페이지(www.sofia-airport.bg)에서 소피아와 주요 도시간 항공 일정을 검색 할 수 있음.

사. 소피아 교통편

소피아는 버스, 트램, 트롤리 통합시스템으로 승차권은 0.5 BGN(불가리아레바)이며 신문 가판대(키오스크), 승차권매표소에서 구매하며 짐이 많은 경우에도 추가 티켓하나가 필요 함.

버스, 트램, 트롤리버스 등에 승차하는 경우 표를 검표기에 넣어 탑승시간을 기록해야 함. 유효시간은 1시간이며 수시로 검표원이 탑승하여 유효한 승차권 소지 여부를 확인하고 유효한 승차권 미소지자에 대해서는 승차권 가격의 10배에 해당하는 벌금(BGN5.00)을 부과함.

그러나 버스, 트램, 트롤리 버스 등은 노선을 알기가 어려우므로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만 택시는 바가지요금이 많으므로 택시회사 중 비교적 신뢰성이 높은 OK택시

(택시 외부에 OK로고가 새겨져 있음)를 탑승할 것을 권유함. 소피아 공항에는 OK택시 창구가 있으며 입국장을 나오면 OK택시가 항상 대기하고 있으니 이를 이용하기 권장함. 택시요금은 야간 할증요금(저녁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이 있으나 전반적으로 요금이 저렴하므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음.

5. 환율/환전

불가리아 화폐단위는 레브(Lev)이며 복수의 경우 레바(Leva)라고 부름. 불가리아 화폐의 약칭은 BGN이며 1999년 화폐가치의 절상 이전 화폐는 BGL로 표기함.

불가리아 지폐는 100, 50, 20, 10, 5, 2레바 및 1 레브가 있고 동전은 1레브, 50, 20, 10, 5, 2, 1 스토팅키(Stotinki)가 있음. 1레브는 100스토팅키임.

1999년부터 IMF에 의해 레바는 독일 마르크화에 고정되어 있었으나 2002년 유럽에 유로화가 도입되면서 **1유로=BGN1.95583**으로 고정되게 되었음. 레바와 미달러화와의 환율은 유로화와 달러화간 환율에 의해 중앙은행에서 매일 지정 고시함. 2006.8.31일 현재 약 미\$1=BGN1.52 이나 환전소에 따라 수수료 부과 여부 및 적용환율의 차이가 많으므로 미리 환율을 확인한 후 환전하는 것이 바람직함.

환전은 은행뿐만 아니라 시내 일반 환전소에서 가능하며 우체국, 은행에서는 여권 등 신분증명서를 요구하지만 시내 환전소에서는 여권 등 신분증 없이 환전할 수 있음. 단, 길거리에서 접근하는 개인 환전자로부터 환전하지 말아야 함. 길거리에서 접근하는 개인 환전자의 경우 위폐나 신문조각 등을 이용하여 속이는 경우가 많음. 또한 민간 환전소라 할지라도 환율을 꼭 확인하여야 함.

공항환전소, 민간환전소, 은행에서 여권을 제시하고 환전하며 민간환전소 환율이 가장 유리함. 환전 시 영수증을 받지 않으면 실제액수보다 적게 줄 수도 있으므로 환전하면서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야 함. 또한 환전상에서 서류에 서명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환율과 최종 금액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서명하여야 함.

일부 환전소에서는 1999년 화폐가치 절상 이전의 舊화폐로 환전해주는 경우도 있으므로 조심하여야 함. 또한 일부 환전소에서는 환율을 혼동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상적인 환율이 1.50이라고 할 경우 환전소 밖에 고시한 환율을 1.155로 표시하여 다른데 비해서 높은 환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오해하도록 하는 경우임. 따라서 환전소 밖에 고시된 환율의 소수점 자리 수 및 숫자를 확인하여 속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환전소는 대부분 휴일이나 야간에는 문을 닫으나 시내 일부 환전소의 경우 24시간 영업하는 경우도 있음. 주말에 공항에 도착하는 경우에는 공항 환전소에서 소액(20달러 정도) 환전하는 것이 바람직함.

공항에서 환전하는 경우 입국장의 환전소는 환율차이가 매우 크며 출국장의 환율은 정상적인 환전소 환율을 적용하고 있음. 도착장과 출국장의 거리는 50미터 정도이므로 가능하면 출국장으로 이동하여 환전하는 것을 권장함.

불가리아 중앙은행에서 고시하는 주요 통화에 대한 그날 그날의 환율 정보는 불가리아 중앙은행 홈페이지 (www.bnb.bg)에서 확인할 수 있음.

6. 물가정보

□ 도시 : 소피아(불가리아)			- 환율 : US\$ 1 = BGN 1.52		
번호	항목	US\$	번호	항목	US\$
	1. 의복			7. 잡화	
1.1	남성양복(1벌, 순모100%)	850	7.1	구두(1켤레, 소가족)	55
1.2	넥타이(1개, 실크100%)	73	7.2	치약(150g, 1개)	1.2
1.3	와이셔츠 (1벌, 면100%, 긴팔, 흰색, 현지브랜드)	64	7.3	칫솔(1개)	2.4
1.4	양말(1켤레, 면100%, 현지산)	12	7.4	면도기(1세트)	4.2
1.5	코트(1벌, 롱코트, 추동)	607	7.5	건전지(1세트, 1.5V AA)	1.0
1.6	스타킹(1켤레, 밴드타입, 현지브랜드)	6	7.6	화장지(1통, 300매)	1.2
1.7	청바지(Levi's)	65	7.7	비누(1개)	0.6
	2. 식료품			8. 사무용품	
2.1	쇠고기(1KG, 안심)	3.3	8.1	복사용지(1권, 250매, A4)	4
2.2	돼지고기(1KG 구이용)	4.2	8.2	볼펜(12개)	2
2.3	닭고기(1KG, 생닭)	1.8	8.3	연필(12개, HB 사무용품)	1.3
2.4	쌀(1KG, Short Grain)	1.2	8.4	공CD(1통, 12개입, 700MB)	9.4
2.5	밀가루(1KG)	0.9	8.5	휴대폰(범용형)	222
2.6	설탕(1KG, 백설탕)	0.9	8.6	휴대폰사용료(1개월, 기본)	6
2.7	계란(10개)	1.2	8.7	인터넷가설비(1회 최초, 1회 설치)	18
2.8	감자(1KG, 현지산)	0.3	8.8	인터넷사용료(1개월, 기본)	15
2.9	미네랄워터(1.5ℓ, Evian 1Pet)	1.5		9. 자동차	
	3. 한국식품		9.1	자동차(2000cc, 기본, A/T)	15,500
3.1	고추장(1Kg)	없음	9.2	엔진오일(1ℓ)	4.2
3.2	된장(1Kg)	1.8	9.3	휘발유(1ℓ)	1.1
3.3	라면(1개)	1.5	9.4	자동차등록비(2,000cc)	115
3.4	설령탕류(1인분, 설령탕, 곰탕등)	9.7	9.5	자동차보험료 (2,000cc, 1년, 신규종합보험)	1,432
3.5	불고기(1인분, 200g)	12		10. 대중교통	
3.6	삼겹살(1인분, 200g)	12	10.1	지하철(1구간)	0.3
3.7	김치찌개(1인분)	9.7	10.2	시내버스(1구간)	0.3
	4. 기호식품		10.3	택시(기본요금)	0.3
4.1	햄버거(1개)	2.4	10.4	택시(추가요금/Km)	0.3
4.2	피자(1판)	11		11. 공공서비스	
4.3	코카콜라(1캔, 250ml)	0.6	11.1	전화개통비 (1회선, 가입비, 장치비 포함)	60
4.4	맥주(수입산, 1캔, 355ml)	1.2	11.2	전화사용료(월 기본요금)	8.5
4.5	담배(수입산, 1갑)	1.6	11.3	전화사용료(3분, 시내 평상)	0.15
4.6	위스키(1병, 750ml)	18.2	11.4	공중전화(3분, 시내 평상)	0.21
4.7	커피(1병, 175g)	7.9	11.5	국제전화 (현지-서울, 3분, 평상)	1.8
	5. 주택(150㎡)		11.6	국내우편 (일반편지, 1통, 2~3페이지)	0.2

5.1	[임차]중급아파트 (침실3개미만, Semi-furnished)	1,650	11.7	국제우편(일반편지, 1통, 10g이하, 현지-서울)	20.4
5.2	[임차]중급단독주택 (대지 500㎡ 및 침실 4개미만)	1,500	11.8	특급우편(DHL, 1개, 1Kg 이하, 현지-서울)	74
5.3	중개수수료(월 임차료의 %)	50%	11.9	전기요금(1KW/h, 가정용)	0.11
5.4	임차보증금(월 임차료의 %)	100%	11.10	수도요금(1㎡, 가정용)	0.4
	6. 가전제품		11.11	가스요금(1㎡, 가정용)	0.3
6.1	TV(29인치, 칼라, 범용)	333			
6.2	VTR(6헤드, 범용)	120			
6.3	DVD Player(범용, 비디오콤보)	86			
6.4	전자레인지	106			
6.5	냉장고(500L급, 가정용)	423			
6.6	에어컨(400W급, 가정용)	545			

□ 도시 : 소피아(불가리아)			- 환율 : US\$1 = BGN1.55		
번호	항목	US\$	번호	항목	US\$
	12. 교육			18. 노동여건	
12.1	외국인학교(주재국내 외국인학교 수)	60개교	18.1	법정최저임금(월 급여)	91
12.2	외국인학교(등록금, American School)	없음	18.2	상여금(월급여 대비%, 연간)	100%
12.3	외국인학교(기부금)	2,121	18.3	사회보장부담금 (월 급여 대비%, 연간)	42.7%
12.4	외국인학교(수업료, 초등1년간)	8,181	18.4	법정휴가일수(연간)	20일
12.5	외국인학교(수업료 중등 1년간)	8,181	18.5	출산휴가일수(연간)	730일
12.6	외국인학교(수업료 고등1년간)	8,121	18.6	연간국경일	12일
	13. 레저·오락		18.7	토요 휴무(실시여부)	실시
13.1	골프장 그린피(비회원, 18홀, 1라운드)	42	18.8	노동 쟁의 시 냉각기간일수	없음
13.2	골프장회원권 (18홀, 매매가능, 종신 양도가능)	1,442	18.9	주당 법정근무시간	40일
13.3	골프공(1타)	80		19. 사업여건	
13.4	골프채(Callaway, 드라이버 1개)	909	19.1	법정최저자금	3.000
13.5	DVD 타이틀(1개, 최신영화)	1.2	19.2	회사설립 변호사 비용	1,818
13.6	영화관람료 1회(개봉관, 성인최신)	3.6	19.3	외국인업체 세제혜택(법인세)	15%
	14. 의료·약품		19.4	외국인업체 세제혜택 (개인소득세)	24%
14.1	의료보험료 (4인가족, Full Cover, 치과제외)	4,818	19.5	법인은행대출금리(1년)	9%
14.2	병원진료비 (의료보험×, 몸살감기, 내과초진)	9			
14.3	병원진료비 (의료보험○, 몸살감기, 내과초진)	0.9			
14.4	치과(스켈링, 1회)	12			
14.5	약품(해열제, 아스피린, 10정)	0.5			
	15. 신문·방송·잡지				
15.1	현지신문(1개월, 현지유력지)	20			
15.2	한국신문(1개월)	없음			

15.3	케이블TV(1개월, 기본시청료)	11			
15.4	잡지(1부, Time 혹은 Newsweek)	2.7			
	16. 호텔				
16.1	특급호텔 (정상요금, 싱글1박, 시내중심지)	315			
16.2	특급호텔 (할인요금, 싱글1박, 시내중심지)	133			
16.3	중급호텔 (정상요금, 싱글1박, 시내중심지)	109			
16.4	중급호텔 (할인요금, 싱글1박, 시내중심지)	60			
16.5	조식 (특급호텔, Continental Breakfast)	21			
16.6	조식 (중급호텔, Continental Breakfast)	9			
	17. 임금				
17.1	사무실직원(월 급여, 대졸초임)	300			
17.2	사무실비서(월 급여, 학력불문)	200			

7. 교통/통신

가. 교통 수단

시내 교통수단으로는 택시, 버스, 트롤리버스, 전차(트램), 지하철 등이 있음.

택시요금은 자유화되어 있어 택시 회사마다 다르므로 승차 시에는 유리창에 적혀있는 요금 체계를 확인하여야 함. 통상적으로 기본요금은 택시 유리창에 부착되어있는 요금표의 가장 윗 줄에 표시된 금액이 km당 요금으로 이 요금이 0.39레브(평상시요금)나 0.45레브(야간 할증요금)로 되어 있는 택시를 탑승하면 됨.

요금표는 보통 두 칸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왼쪽 보다 작은 숫자는 낮 시간대 요금, 오른쪽의 보다 큰 숫자는 야간 할증요금을 나타내고 있음. 요금표의 첫 줄에 표시된 기본요금 외에 분당, 거리당 요금 등이 제시되어 있음. 요금표의 첫 줄에 표시된 기본요금이 0.80레브나 1.0레브로 적혀 있는 택시는 요금이 매우 높은 택시임.

야간 할증요금 적용시간은 밤 10시 이후부터 오전 6시까지이며 통상적으로 콜을 할 경우 콜 요금으로 0.40레브가 추가됨.

콜택시는 OK택시가 신뢰도가 높고 안전하며 근처에서 OK 택시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호텔이나 식당 등에 요청하여 OK택시를 불러달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함. 택시를 부를 때에는 반드시 목적지를 알려주어야 함. 늦은 야간에 운행되는 택시의 경우 바가지 요금 등에 주의하여야 함. 일부 택시의 경우 미터기를 수동으로 조작 가능한 경우도 있고, 외국인에 대해서는 도로를 우회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 OK택시 전화번호 : 973-2121 (영어 구사 가능한 사람이 근무)

택시의 경우 고유한 3자리 숫자 번호가 있으므로 승차 시에는 동 택시번호를 기억해두면 사후 문제 발생시 참고가 될 수 있음. 그러나 귀중품을 택시에 두고 내리는 경우 해당 고유번호를 기억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찾을 가능성은 거의 없음. 짐칸에 실은 짐을 내리지 않는 경우에도 되찾기가 어려우며 일부 짐을 내려주지 않고 도망가는 택시사고도 발생한 바 있음.

소피아를 벗어난 도시에서 택시를 이용할 경우 항상 요금표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특히 관광지에서의 택시요금은 소피아의 택시요금에 비해 아주 높게 설정되어 있으며 미리 택시 요금을 확인하고 승차할 필요가 있음.

지하철, 버스 및 트램, 트롤리버스 등은 승차 후 1시간 유효한 표를 정류장에서 구입할 수 있으나 출퇴근 시간에는 상당히 복잡하고 소매치기 등을 조심해야 함. 장기 체류자의 경우 월간 승차권, 트램과 버스간 연계승차권 등을 구입할 수 있으며 10회 사용 승차권을 구입하는 경우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음.

버스, 트롤리버스, 트램, 지하철 등의 1회 승차권은 0.50 레바이며 무임승차 적발 시에는 5레바를 벌금으로 지불하여야 함. 시내에는 소위 1레브 마이크로버스가 있는데 이는 노선 버스로 탑승구간에 관계없이 요금이 1레브임.

비교적 운행되는 시간간격이 짧아 편리 하게 이용할 수 있음. 다만 노선을 알아야 하므로 처음 도착한 외국인은 이용하기가 어려움. 지하철의 경우 현재 1개 노선 5개역구간만 운행되고 있으며 현재 지하철 확장 공사가 진행되고 있음.

나. 전화

호텔의 국제전화요금은 매우 높으며 호텔 로비 환전소(리셉션)나 비즈니스센터에서, 또는 상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공중전화카드 카드(500펄스기준 26레바)를 구입해서 사용하거나 KIOSK에서 공중전화카드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불가리아 공중전화는 동전용과 카드용으로 구분되며 동전용은 0.50레바 동전을 사용하여야 하고 카드용은 두 종류로 구분되는데 Mobika에서 운영하는 Bluephone 과 Bulfon에서 운영하는 Orangephone임. Bluephone과 Orangephone은 공중전화기 색깔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전화 카드는 각각 적합한 카드를 이용하여야 함.

호텔의 경우 국제 전화카드(Net Solution Card)를 판매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호텔 체재 시에는 리셉션에 문의하는 것이 좋음.

다. 공중전화 이용

공중전화용 동전(우체국에서 판매)을 투입구 위에 올려놓고 다이알을 돌림. (상대방이 수화기를 들면 자동투입)

공중전화는 시내 곳곳에 설치되어 있으나 고장난 것이 많고, 공중전화는 디지털 방식전화(7자리 이상 전화번호)와 아날로그 방식의 두 종류가 병용되고 있음.

라. 휴대전화

불가리아에서의 휴대전화는 GSM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여행자들의 경우 공항에서 임대하는 휴대전화를 이용할 수 있음.

휴대전화 서비스 업체는 Mobiltel, Globul 및 Vivatel 등 3개 회사가 있으며 가입자 수는 Mobiltel이 약 65%, Globul이 33%, Vivatel이 2% 정도를 각각 차지하고 있음. (Vivatel은 2005년 12월부터 서비스 개시)

마. 국내에서의 이동

국내선 항공은 흑해연안의 Varna와 Bourgas 등 2개 도시에 연결되고 있으며 여름에는 이들 두 흑해연안도시에 관광객전용 국제선이 연결되고 있음.

소피아 공항에서 흑해연안의 Varna와 Burgas 공항까지는 40분 정도가 소요됨.

국내에서의 이동은 철도나 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철도에 비해 버스 이용이 편리함. 철도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내부 시설도 지저분한 편임. 버스의 경우 비교적 시설이 잘 되어 있으며 시간이 단축되고, 운행시간 간격도 짧은 편임. 그러나 전반적인 도로망이 열악하여 버스여행의 경우에도 이동거리에 비해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편임.

차량을 렌트하는 경우 도로사정이 열악하고 비교적 운전습관이 험악하여 어려움. 도로는 보수가 잘 되어 있지 않아 사고 위험성이 높으며 표지판이 키릴어로 되어있어 불가리아 문자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의 경우 목적지를 찾는 것이 어려울 수 있음.

바. 우체국

우체국은 각 지역에 설치되어 있어 이용이 비교적 편리한 편이고, 우체국의 경우 대부분 점심시간에는 문을 닫음. (12시-1시)

일정 중량 이상의 소포는 중앙우체국에서 찾을 수 있음.

EMS 발송은 중앙우체국에서만 가능하나 한국으로의 EMS 발송은 불가능함.

사. 인터넷 환경

인터넷 카페는 시내 곳곳에 설치되어 있으며 시간당 이용료는 대체로 1유로 수준임.

일부 호텔의 경우 자체 LAN 케이블을 객실에 연결해 놓고 있어 LAN 카드가 설치된 노트북 컴퓨터를 휴대하는 경우 즉시 이용 가능함.

시내에는 560여대의 컴퓨터를 갖춘 대형 PC방도 설치되어 있음.

개인가정에서는 주로 모뎀을 이용하여 접속하거나 케이블TV 회선을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하고 있음.

아. 항공편

소피아에는 유럽의 주요 항공사가 취항하고 있는데 Air France, Alitalia, Austrian Air, British Airways, Czech Airlines, Aeroplott, LOT, Lufthansa, Malev, Olympic, Swissair, Turkish Airline, Hemus Air, 그리고 Bulgarian Air 등임.

한국으로부터 입국하는 경우 대부분 서유럽 도시를 경유하며 통상적으로 해당 서유럽에서 1박 한 후 다음날 소피아로 연결되고 있음. 다만, 일부 항공노선(프라하 경유 대한항공과 체코항공, 모스크바경유 Aeroplott, 중국경유 Austrian Air 등)의 경우 당일 소피아로 연결됨.

불가리아에서 한국으로 귀국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서유럽 주요 도시 경유 시 서유럽 도시에서 체재할 필요 없이 당일 연결되며 한국에는 다음날 도착하게 됨.

Bulgarian Airlines은 국내선인 소피아-바르나, 소피아-부르가스에 취항하며 다수 유럽, 중동 수도에 취항하고 있음.

직항편이 운행되는 주요 도시로는, 부카레스트(루마니아), 아테네(그리스), 이스탄불(터키), 밀라노 및 로마(이태리), 취리히(스위스), 런던(영국), 파리(프랑스), 모스크바(러시아), 키예프(우크라이나), 마드리드(스페인), 텔아비브(이스라엘), 바르샤바(폴란드), 프라하(체코), 부다페스트(헝가리), 프랑크푸르트 및 뮌헨(독일), 비엔나(오스트리아) 등임. 소피아 공항 홈페이지(www.sofia-airport.bg)에서 소피아와 주요 도시간 항공일정을 검색할 수 있음.

8. 호텔/식당

가. 주요 호텔

- Sheraton Sofia Hotel Balkan (별 5)
 - 전화 : ++359-2-981-6541
 - 팩스 : ++359-2-980-6464
 - 주소 : 5 Sveta, Nedelya Sq., 1000 Sofia
 - 무역관 할인요금 : 160유로(아침식사, 세금, 봉사료 포함)
- Hilton Hotel (별 5)
 - 전화 : ++359-2-933-5000
 - 팩스 : ++359-2-933-5111
 - 주소 : bul. Bulgaria 1, 1421 Sofia
 - 무역관 할인요금 : 140유로(아침식사, 세금, 봉사료 포함)
- Kempinski Hotel Zografski(별 5)
 - 전화 : ++359-2-969-2222
 - 팩스 : ++359-2-969-2223
 - 주소 : 1 Bulgaria Blvd., Sofia 1421
 - 무역관 할인요금 : 120유로(아침식사, 세금, 봉사료 포함)
- Princess Hotel (별 4)
 - 전화 : ++359-2-933-8888

- 팩스 : ++359-2-933-8777
- 주소 : bul. Maria Luiza 131, 1202 Sofia
- 무역관 할인요금 : 50유로(아침식사, 세금, 봉사료 포함)

나. 주요 식당

- Chevermeto : 불가리아 전통식, 전통 춤, 노래 공연
 - 전화 : ++359-(0)2-963-0308
 - 주소 : 31 Cherni Vrah Blvd., Sofia
- Captain Cook : 생선요리 전문 식당
 - 전화 : ++359-(0)2-954-9098
- Panorama : 불가리아 전통식 및 유럽식
 - 전화 : ++359-(0)2-969-2440
 - 주소 : Kempinski Hotel, Sofia
- Sakura : 일본식
 - 전화 : ++359-(0)2-969-2420
 - 주소 : Kempinski Hotel, Sofia
- Sushi Bar : 일본식
 - 전화 : ++359-(0)2-943-4004
 - 주소 : National Library, Sofia
- 코리아 하우스(Korea House) : 한국 식당
 - 전화 : ++359-(0)2-963-0365
 - 주소 : 34 Elemag Street, Izgrev, Sofia
- 롤 앤 스시(Roll & Sushi) : 한국인이 경영하는 김밥 전문 분식점
 - 전화 : ++359-(0)2-868-1145
 - 주소 : 3, Georgi Bradistilov Street, Sofia

9. 관공서 관행

관공서의 공식 근무시간은 통상 09:00 -18:00 까지이나 실질적으로 업무가 이루어 지는 시간은 오전에는 09:30 -12:00 까지이고 오후에는 14:00 -17:00 까지라고 생각하고 일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출, 퇴근시간을 전후한 시간에는 실질적으로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공무원들의 경우 1달 가까이 휴가를 가는 경우가 많으며 휴가는 7월과 8월에 집중되고 있음.

과거에는 공무원에게 선물이나 돈을 주면 일이 빨리 처리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 들어 이와 같은 공무원들의 부조리는 크게 줄어들고 있음.

10. 공휴일

가. 법정 공휴일

공휴일명	일자
신정 New Year	1.1
내셔널 데이 National Day - 1878년 오스만 터키로부터의 독립을 기념	3.3
부활절 Orthodox Easter Monday(매년 변경될 수 있음)	4.24 (2006년)
노동절 Labor Day	5.1
Cyrillic Alphabet 창조 기념일	5.24
통일기념일	9.6
독립기념일	9.22
Day of the Enlighteners	11.1
성탄절	12.24-26

나. 임시 휴일

공휴일 사이에 평일이 하루 있는 경우 대부분 이 평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 통상 해당 평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경우 그 다음 주 토요일은 근무일로 지정함. 부활절이나 5월 초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거의 1주일간 휴무하는 경우도 있음.

다. 여름 휴가

통상적으로 7월 중순부터 여름 휴가가 시작되지만 대부분 8월 중 여름휴가를 지내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7월 하순부터 8월 하순까지는 업체의 접촉이 매우 어려움. 또한 많은 사람들은 비용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터키, 그리스 등의 해안도시 휴가시즌이 끝나는 9월 중에도 이들 지역으로 휴가를 떠나는 경우가 많아 9월 중순까지도 정상적인 사업협약이 어려움.

라. 성탄절 휴가

통상적으로 12월 23일부터 정교의 성탄절인 1월 6일까지 정상적인 사업협약이 불가능하고 12월 24일부터 연초(1월 2일)까지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음.

마. 불가리아 근로자의 휴가

노동법상 8개월 이상 근무자에 대해서는 근무일 기준 20일간의 휴가를 주어야 하고 근무일 기준 20일은 4주간이며 1회의 휴가기간은 최소 근무일 기준 10일 이상이어야 함.

이외에도 노동법상에서 정한 휴가가 상당히 많으며 학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국가 시험 등에 응시하는 경우 25일 이상의 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는 등 휴가가 상당히 많은 편임. 일반적인 근로자의 경우 여름휴가 2-3주, 성탄휴가 1-2주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음.

11. 여행시 유의사항

가. 치안 문제

폭행, 강도 등 강력범죄는 빈발하지 않으나 소매치기 등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므로 복잡한 시내에서 가방이나 지갑 등에 대해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거리에서 집시들을 흔히 볼 수 있는 바 길거리에서 이들에게 돈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함. 일부 유색인종에 대해 반감을 지니고 있는 그룹도 있으며 이들과는 마찰을 회피할 필요가 있음.

조직범죄 집단간의 총기 및 폭발사건 등이 가끔 발생하고 있으며 범행발생이 우려되는 장소에는 가능한 한 접근하지 말아야 함. (유흥업소, 식당 등)

리셉션 등 행사에 참석하거나 혼잡한 지역에서는 소지품에 관해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하고 저녁시간에는 가능한 한 돌아다니지 않는 것이 좋으며 유흥업소 등에 출입할 경우에는 바가지요금 등에 주의 하여야 함.

현금 및 귀중품 등은 호텔의 сей프에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지갑 등 휴대 시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 필요함. 특히, 불필요한 친절을 베풀며 접근하는 자를 경계해야 하며 이들이 주는 음식물류는 먹어서는 안됨. (수면제를 사용한 강도 우려)

야간 택시 승차 시 바가지 요금에 주의 (요금 미터기 조작, 우회 등). 비교적 신뢰도가 높은 OK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OK택시라고 하더라도 사기 가능성은 있음.

불가리아의 경우 이라크 문제와 관련 적극적인 미국 지지 정책을 채택하고 있어 테러단체의 표적이 되고 있으므로 여행하는 경우 테러에 대비한 주의가 필요함.

자동차 여행자의 경우 자동차 도난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차량에서 하차 시에는 반드시 자동차 열쇠를 빼고, 문을 잠궜어야 함. 자동차 열쇠를 그냥 차에 두고 하차하는 경우 도난 될 가능성이 높음.

나. 의료 건강 문제

의료수준은 중간 정도로 평가되나 의료자재가 구식이고 병원 시설이 매우 열악하므로 질병이 있는 경우 인근지 서유럽으로 긴급 이동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

의약품 구입시 처방전이 필요하나 사소한 약품의 경우 시내의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구입 가능함. 가정 상비약- 감기약, 배탈약, 항생제, 연고류- 등은 국내에서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함.

거리에 주인 없는 개가 많으므로 이들에 주의하여야 하며 물렸을 경우 광견병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 음료수

불가리아의 경우 수질이 좋고 시내 또는 교회 주변에 음용수를 무료로 공급하고 있으므로

이들 지하 온천수를 마시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수도의 경우 수도관이 오래돼 불순물이 섞여 나오는 경우도 있음. 상점에서 판매되는 광천수를 마시는 것이 안전함.

대부분 시판되는 광천수는 탄산이 포함되지 않은 광천수이며 탄산이 포함된 광천수를 원하는 경우 반드시 종업원에게 문의할 필요가 있음.

라. 제품 구입시

대부분 상점은 정찰제를 실시하므로 가격인하 협상 등은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그러나 가격이 붙어있지 않은 상품을 구입할 경우에는 바가지 요금에 주의해야 함.

마. 식당에서

봉사료 제도가 정착되어 있지 않으나 음식값의 5% 전후로 봉사료 지불. 단, 계산서상에 봉사료가 포함된 경우에는 줄 필요가 없음.

잔돈을 거슬러주는 경우 통상적으로 1레브 미만의 잔돈은 주지 않는 것이 관행이므로 스토팅키 단위의 거스름돈을 받으려고 하지 말아야 함.

식당, 바 등의 경우 손님이 주문하지 않은 것을 추가로 부과하는 경우 등도 빈번하게 발견되므로 청구서 내역을 반드시 확인한 후에 지불할 필요가 있음.

바. 공원에서

거리에는 주인 없는 개, 고양이 등 애완용 동물이 많으며 이른 아침 산책하는 경우 이들 거리에 있는 맹견을 주의할 것. 불가리아에는 거리에 돌아다니는 개가 무척 많으며 이중에는 맹견도 있음. 특히 겨울에 먹을 것이 없고 해가 짧은 경우 이른 아침에 거리를 산책하거나 조깅하는 것은 위험함.

봄부터 여름까지 공원, 풀밭, 산 등에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 흡혈벌레(tick)에 주의해야 함. 흡혈벌레의 경우 살갗을 파고 들어가며 바이러스를 보유한 흡혈벌레에 물리는 경우 치명적이기도 함. 흡혈벌레에 물린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병원에 가서 벌레를 제거해야 하며 비전문가가 제거하다가 벌레의 일부가 살갗에 남아 있는 경우 위험함.

사. 매춘

소득수준이 낮아 많은 여성들이 매춘에 관계되고 있으며 도시 내 유흥가 또는 도로변에서 호객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음.

불가리아에도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환자는 공식적으로 약500명으로 발표되고 있으나 실제 환자는 더욱 많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들 매춘행위는 절도 등의 범죄행위와 연결될 수 있음.

아. 화장실

공중화장실은 대부분 유료임. (사용료는 30에서 50 스토팅키)

유료공중화장실에는 대부분 화장지가 비치되어 있으나 무료공중화장실의 경우 화장지가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개인이 준비하여야 함.

자. 신용카드 사용

대중 음식점에서나 소매점에서는 대부분 현금결제만 수용하며 신용카드는 고급음식점이나 고급 상품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음.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상점의 경우 대부분 출입문에 결제 가능 신용카드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음.

소피아의 유명한 쇼핑거리의 상점들이나 유흥업소에서는 대부분 신용카드결제가 가능함. 다만, 신용카드의 경우 정보를 불법으로 빼내어 사용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사용 시 주의를 필요로 함.

별3개 이상의 중급 및 고급 호텔 대부분에서는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고, 지방도시로 가는 경우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한 식당이나 상점이 극히 적은 편임.

신용카드 ATM 기기는 은행 및 대형 건물 내에 설치되어 있어 현지 현금을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음.

12. 유용한 연락처

가. 무역관

- 주소 : B519, Interpred-WTC, 36 Dragan Tsankov Blvd., Sofia 1057
- 전화 : ++359-2-969-5030/31/32/34
- 팩스 : ++359-2-969-5033

< 현지직원 >

- 김두환 (Kim Doo Hwan)
 - 직통전화 : ++359-2-969-5037
 - 전자우편 : branch@kotra-sofia.org
- 도브린카 코토바 (Miss. Dobrinka Kotova) : 영어/프랑스어 가능
 - 직통전화 : ++359-2-969-5032
 - 전자우편 : research@kotra-sofia.org
- 알렉산드라 디미트로바(Alexandra Dimitrova) : 영어/러시아어 가능
 - 직통전화 : ++359-2-969-5031
 - 전자우편 : marketing@kotra-sofia.org

나. 대사관

- 주소 : 7A Fl., Interpred-WTC, 36 Dragan Tsankov Blvd., Sofia 1057
- 전화 : ++359-2-971-2181
- 팩스 : ++359-2-971-3388

- 직원
 - 정무경제담당 : 정운진 참서관
 - 영사 : 박정민 서기관

다. 한인회

- 회장 : 김경작
 - 전화 : ++359-2-973-3915
 - 휴대전화 : ++359-889-912-406
- 총무 : 박성태
 - 전화 : ++359-2-865-7609
 - 휴대전화 : ++359-898-447-837

라. 여행사

- LEE' s KOR-BUL
 - 대표 : 이상종
 - 전화/팩스 : ++359-(0)2-987-7849
 - 휴대전화 : ++359-(0)888-551-711
- JIKO Tour
 - 대표 : 민지홍
 - 전화/팩스 : ++359-(0)2-840-1259
 - 휴대전화 : ++359-(0)888-692-583
 - 홈페이지 : www.jikotour.com

마. 한국식당

- Korean House
 - 전화 : ++359-(0)2-963-0365
 - 주소 : 34 Elemag Street, Izgrev, Sofia
- 롤 앤 스시(Roll & Sushi)
 - 전화 : ++359-(0)2-868-1145
 - 주소 : 3, Georgi Bradistilov Street, Sofia

바. 현지진출 한국업체

- 현대중공업(주) 현지법인
 - 법인장 : 구경본
 - 전화 : ++359-(0)2-938-1062
 - 팩스 : ++359-(0)2-936-0742
- 삼성물산(주) 사무소
 - 전화 : ++359-(0)2-971-3389
 - 팩스 “ ++359-(0)2-971-3386
 - 사무소장 : 이장직

- 현대종합상사 사무소
 - 전화 : ++359-(0)2-708-118
 - 팩스 : ++359-(0)2-708-424
 - 사무소장 : 칼린 다미아노프(Mr. Kalin Damianov)
- LG상사 사무소
 - 전화 : ++359-(0)2-931-1666
 - 팩스 : ++359-(0)2-931-1680
 - 사무소장 : 루멘 라덴코프(Mr. Roumen Radenkov)
- 삼성전자 사무소
 - 전화 : ++359-(0)2-971-3796
 - 팩스 “ ++359-(0)2-971-3796
 - 사무소장 : 닉 이코노모프(Mr. Nick Iconomoff)
- LG전자 지사
 - 전화 : ++359-(0)2-817-3434
 - 휴대전화 : ++359-(0)886-087-769
 - 지사점 : 여현구

사. 한국 교포 기업인

- HKC Ltd : 봉제업
 - 전화 : ++359-(0)2-846-7062
 - 팩스 : ++359-(0)2-846-7082
 - 대표 : 장희관
- Choice Ltd : 식품/직물무역업
 - 전화 : ++359-(0)2-868-7091
 - 팩스 : ++359-(0)2-962-4962
 - 대표 : 박종태
- KMC Consulting : 정착 및 경영자문
 - 대표 : 김경작
 - 전화 : ++359-(0)89-9912-407
- Korea Motor : 자동차정비 및 서비스
 - 전화 : ++359-(0)888-675-597
 - 대표 : 여동익
- Korbul Ltd : 자동차부품수입 판매
 - 전화 : ++359-(0)2-980-5692
 - 대표 : 허성춘
- Auto Bulgaria Ltd : 중고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수입 판매
 - 전화 : ++359-(0)888-973-735
 - 대표 : 권영광

- K&C Co., Ltd : 무역
 - 대표 : 최 원석
 - 전화 : ++359-(0)2-973-3037
- 민박/하숙
 - 전화 : ++359-(0)2-971-5173

아. 종교 관련

- 기독교 한인교회
 - 전화 : ++359-(0)2-945-5741
 - 팩스 : ++359-(0)2-376-569
 - 목사 : 강태기
- 천주교 영어미사
 - 장소 : 5 Oborishite Street, Sofia
 - 시간 : 일요일 오전 11:00
- 외국인 개신교 영어 예배
 - 장소 : Interpred-WTC, 36 Dragan Tsankov Blvd., Sofia
 - 시간 : 일요일 오전 11:00

자. 기타 유용한 전화번호

- 경찰 : 166
- 앰블런스 : 150
- 화재 : 160
- 전화안내 : 144(국내), 0123(국제)
- 공항안내 : 937-2121
- 열차안내 : 31111
- 카드분실신고 : 986-4544
- 교통사고신고 : 66-5060

13. 관광명소

가. 소피아(Sofia) 시내

1) 알렉산더 네브스키 사원

- 네오 비잔틴 양식의 발칸반도 최대의 사원(사원 내부가 1,300 평방 미터로서 5,000 명 집회 가능)
- 불가리아의 해방을 위해 터키와 싸운 러시아 병사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1882 년 공사 시작, 1924 년에 완성
- 내부의 벽은 러시아, 불가리아 유명 화가들이 그린 성화로 가득함
- 지하실에는 고대와 중세 불가리아의 유물, 성화를 전시

2) 국립 역사 박물관

- 소피아 시내 중심에 소재하다가 2000. 8 월 대통령 관저(보야나 소재)의 일부 건물로 이전하였음.
- 1984 국립역사박물관으로 개조되어 선사시대로부터 1912 년까지의 불가리아 중요 문화재를 전시

3) 성 게오르기 교회

- 웨라톤 호텔의 정원에 있는 소피아의 가장 오래된 건축물의 하나
- 3-4 세기 경 이교도 사원으로 건축된 것으로 추측되며 로마시대에 교회로 사용되다가 터키 지배 시에는 회교사원으로 사용됨.

4) 비토샤 산

- 소피아시 남쪽에 위치한 해발 2,290m 의 산
- 중턱의 코피토 호텔(별 5 개) 전망대에서는 소피아 시가를 한눈에 볼 수 있음.
- 최고봉 체르니 브르흐 바로 밑에 알레코까지 케이블카 운행

5) 법원 건물

- 1940 년 최고 재판소로 건축한 장엄한 건물
- 입구에 사자상이 있음
- 1984 년 국립역사박물관으로 개조되어, 선사시대로부터 1912 년까지의 불가리아 중요 문화재를 전시하였으나 2000 년도에 박물관이 이전하고 법원건물로 사용 중임

6) 국립 미술관

- 불가리아 르네상스 양식에 바로크 양식을 가미한 황색 건물, 터키로부터 해방 후 왕궁으로 사용
- 현재 서쪽 절반은 국립박물관, 동쪽 절반은 민속박물관으로 사용

7) 구공산당 본부

- 1989 년 민주화 시위 때 수난을 당했으나 현재는 의원 회관으로 사용

8) 세르디카의 유적

- 세르디카는 비잔틴 시대 소피아의 이름
- 구 공산당 본부 앞 광장의 지하에서 5-6 세기 경의 성벽과 정문 유적이 발견됨

9) 성페트카 지하 교회

- 구 공산당 본부 앞 광장의 지표위에 지붕이 나와 있는 교회
- 터키 지배 당시인 14 세기에 건축

10) 성 네델리아 교회

- 불가리아 정교 교회
- 1923 년 이곳에서 당시 국왕 보리스 3 세 암살 미수 사건이 발생함

11) 반야 바시 모스크

- 터키 지배 당시인 1575 년 건축된 회교 사원

나. 지방 명소

1) 릴라 사원

- 소피아 남동쪽 120km, 릴라 산맥 깊은 산림 속에 위치
- 500 년 터키 지배 동안 불가리아 문자 및 문화를 지켜온 불가리아인들의 영혼의 고향
- 발칸반도에 있어서 정교 수도원의 총 본산
- 10 세기에 최초 건축, 현재는 19 세기 중반 보수 개축된 모습
- 정교한 건축술, 벽화, 성화, 고문서, 나무십자가로 유명
- 불가리아 내 9 개 유네스코 지정 문화유산 중의 하나
- 소피아에서 차로 2 시간 정도 소요

2) 플로브디프 (Plovdiv)

- 불가리아 제 2 의 도시로서 로마시대의 원형극장과 舊도시(Old Town)가 보존되어 있음.
- 불가리아 최대 전시장이 있으며 국제 전시회가 자주 개최되는 도시임. 소피아에서 차로 1 시간 40 분 정도 소요

3) 벨리코 터르노보 (Veliko Turnovo)

- 11-14 세기 불가리아의 수도로서 독특한 자연 경관과 전통가옥으로 유명

4) 카잔룩(Kazanluk)

- 장미의 계곡으로 유명하며, 매년 6 월 첫주일 장미 축제가 열림.

5) 코프리브쉬티차(Koprivshitsa)

- 1800 년대 후반 터키 지배에 대한 항쟁, 독립운동이 일어난 지역으로 당시의 전통 가옥이 잘 보존되어 있음.

6) 벨로 그라척 : 고대 동굴과 돌기둥이 있음.

7) 바르나(Varna), 부르가스(Burgas)

- 흑해 연안의 여름 휴양 도시이며 항구도시로서 수입화물의 반입 관문임. 흑해연안에 고대도시의 모습이 간직되어 있는 네세바르(Nesevar), 소조폴(Sozopol) 등이 있음.

8) 보로베츠(Borovets), 팜포르보(Pamporovo), 반스코(Bansko)

- 스키 리조트가 있음. 겨울철 서유럽 관광객이 많이 찾음.
- 보로베츠(Borovets) - 소피아에서 1시간 30분 거리
- 팜포르보(Pamporovo) - 소피아에서 3시간 30분 거리
- 반스코(Bansko) - 소피아에서 2시간 30분 거리

9) 넛세바르(Nesebar) - 소피아에서 4시간 30분거리

- 흑해 중부 연안의 소도시
- 전통양식의 건축물이 잘 보존되어 있음

10) 소조폴(Sozopol) - 소피아에서 4시간 30분 거리

- 흑해 남부 해안의 소도시
- 전통양식의 건축물이 잘 보존되어 있음

다. 관광안내 웹사이트

- 불가리아 전체 소개 : www.bulgariatravel.org
- 한국인 여행사 : www.jikotour.com

V. 무역

15. 교역관련 주요법규

불가리아에서 대외무역과 관련된 제반 사항들은 상법(the Commercial Act)에 규정되어 있음.

가. 수입관리제도

- 위험물, 환경보존 등 국제협약에 의해 규제되는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전품목의 수출입이 자유화되어 있음.
- 무역업에 종사하기 위한 별도의 허가나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으며 법인, 자연인 모두 수출입 주체가 될 수 있음.
- 118개 개발 및 최빈국가에 대해서는 일반특혜관세(GSP)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GSP 관세율은 다자간협정 관세율의 70%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음.
 - 일부 최빈개도국 품목에 대해서는 0세율 적용
- 다자간협정 평균관세율은 12%이며 농산품이 21.87%, 공산품은 8.6%로 설정되어 있음.
- 최고관세율은 공산품은 40%, 농산품은 80%임.
- 품질인증, 규격 등의 분야는 EU 가입을 앞두고 EU의 규정과 일치시키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 EU와의 자유무역협정으로 공산품의 경우 EU와의 수출입이 자유화되어 있음(2002년 1월 1일부).
- EFTA 및 CEFTA 회원국과도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어 있으며 그 외에 터키, 마케도니아, 이스라엘,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세르비아, 몰도바 등과 자유무역 협정이 체결되어 있음.
-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된 국가의 경우 대부분의 공산품은 관세부과 없이 수입됨.

나. WTO 관련

- 1996년 12월 1일부터 WTO에 가입하였음.
- WTO 정부조달관련협정에는 가입하지 않고 있으며 옵저버 자격으로 정부구매위원회에 1997년부터 참가하고 있음.

다. 수입제한제도

- WTO 협정에 의거 반덤핑, 상계관세, 긴급수입제한 조치 등을 운영하고 있음.
- 현재까지 상계관세조치를 취한 적은 없으며 반덤핑조치의 경우 최초 발동 사례가 있음. 한편 긴급수입제한 조치는 6차례 조사가 진행된 바 있고 이중 두건에 대해 수입제한 조치를 도입한 바 있음.

라. 표준규격 및 품질인증

- 불가리아의 표준규격은 BDS로 표기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보는 표준원(Bulgarian Institute for Standardization; www.bds-bg.org)에서 구입 가능함.
- EU의 CE마크제도와 유사한 C0마크 제도를 채택 운영하고 있음.
- 위생 관련 규정 및 제도를 EU 제도와 조화시키고 있음.
- 동물, 동물성식품 및 동물성원료 등의 수입 시에는 검역 관련 증명서를 필요로 함.
- 전염병균 관련 식물의 수입을 금지할 수 있음.
- 포장 및 표기 등의 규정은 EU의 제도와 조화를 추진 중에 있음.

16. 수입규제제도

가. 수입관리제도

- 위험물, 환경보존 등 국제협약에 의해 규제되는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전품목의 수출입이 자유화되어 있음.
- 무역업에 종사하기 위한 별도의 허가나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으며 법인, 자연인 모두 수출입 주체가 될 수 있음.
- 118개 개발 및 최빈 국가에 대해서는 일반특혜관세(GSP)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GSP 관세율은 다자간협정 관세율의 70%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음.
 - 일부 최빈 개도국 품목에 대해서는 0세율 적용

- 다자간협정 평균 관세율은 12%이며 농산품이 21.87%, 공산품은 8.6%로 설정되어 있음.
- 최고 관세율은 공산품은 40%, 농산품은 80%임.
- 품질인증, 규격 등의 분야는 EU 가입을 앞두고 EU의 규정과 일치시키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 EU와의 자유무역협정으로 공산품의 경우 EU와의 수출입이 자유화되어 있음.(2002년 1월 1일부)
- EFTA(1993년) 및 CEFTA(2002년 1월) 회원국과도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어 있으며 그 외에 터키, 마케도니아, 이스라엘,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세르비아, 몰도바 등과 자유무역 협정이 체결되어 있음.
-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된 국가의 경우 대부분의 공산품은 관세부과 없이 수입

나. 세계무역기구(WTO) 관련

- 1996년 12월 1일부터 WTO에 가입하였음.
- WTO 정부조달관련협정에는 가입하지 않고 있으며 옴저버 자격으로 정부구매위원회에 1997년부터 참가하고 있음.

다. 수입제한제도

- WTO 협정에 의거 반덤핑, 상계관세, 긴급수입제한 조치 등을 운영하고 있음.
- 현재까지 상계관세조치를 취한 적은 없으며 반덤핑조치의 경우 최초 발동 사례가 있음. 한편 긴급수입제한 조치는 6차례 조사가 진행된 바 있고 이중 2건에 대해 수입제한 조치를 취한 바 있음.

17. 관세제도

- 118개 개발 및 최빈 국가에 대해서는 일반특혜관세(GSP)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GSP 관세율은 다자간협정 관세율의 70%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음.
- 일부 최빈 개도국 품목에 대해서는 0세율 적용
- 다자간협정 평균 관세율은 12%이며 농산품이 21.87%, 공산품은 8.6%로 설정되어 있음.
- 최고 관세율은 공산품은 40%, 농산품은 80%임.
- EU와의 자유무역협정으로 공산품의 경우 EU와의 수출입이 자유화되어 있음.(2002년 1월 1일부)
- EFTA(1993년) 및 CEFTA(2002년 1월) 회원국과도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어 있으며 그 외에 터키, 마케도니아, 이스라엘,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세르비아, 몰도바 등과 자유무역 협정이 체결되어 있음.
-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된 국가의 경우 대부분의 공산품은 관세부과 없이 수입
- 불가리아의 수입 관세율은 다음의 불가리아 관세청(BCA) 웹사이트를 통해 조회할 수 있음.
- http://www.en.customs.bg/index_en.html

18. 주요인증제도

- 불가리아의 표준규격은 BDS로 표기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보는 표준원 (Bulgarian Institute for Standardization ; www.bds-bg.org)에서 구입 가능함.
- EU의 CE마크제도와 유사한 C0마크 제도를 채택 운영하고 있음.
 - C0 마크 획득 비용 : 약 200 유로
 - C0마크 획득 기간 : 품목별로 다소 상이하나 휴대폰의 경우 1 - 2개월
- 위생 관련 규정 및 제도를 EU 제도와 조화시키고 있음.
- 동물, 동물성식품 및 동물성원료 등의 수입 시에는 검역 관련 증명서를 필요로 함.
- 전염병균 관련 식물의 수입을 금지할 수 있음.
- 포장 및 표기 등의 규정은 EU의 제도와 조화를 추진 중에 있음.

19. 지적재산권

불가리아의 지적재산권, 특허권, 저작권 등에 관한 법률들은 대부분 유럽 연합(EU) 규정들과 일치되어 있음.

불가리아에서 지적재산권 및 특허권 보호는 내무부, 특허청(www.bpo.bg), 문화부, 관세청, 사법부 등에서 공동 관장하고 있음.

그러나 불가리아 정부의 지적재산권 보호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가리아에는 불법 음반 및 CD, 유명 브랜드 위조품 등이 널리 유통되고 있음. 최근 불가리아 정부는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및 불법 복제품 근절을 위해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있으며 지적재산권 침해 사범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고 있음.

20. 소비자보호제도

불가리아에서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들은 ‘소비자 보호 및 상거래 규칙에 관한 법률(Law on Customer Protection and Rules of Trade)’에 규정되어 있음.

소비자 보호 업무는 ‘상거래 및 소비자 보호 위원회(The Commission for Trade and Customer Protection)’에서 담당하고 있음.

문제가 있는 소비자는 상기 위원회 공식 홈페이지(www.ktzip.bg)나 전화상담서비스(hot line) 0700-11122를 통해 불만을 제기할 수 있음.

21. 교역관련 국가기관

가. 경제부(Ministry of Economy and Energy)

- 주소 : Contacts: 8 Slavianska Str., Sofia 1052, Bulgaria
- 전화 : (359-2) 940-7777
- 팩스 : (359-2) 940-7313
- 이메일 : callcentre@mee.government.bg
- 웹 사이트 : www.mi.government.bg
- 주요 기능 : 산업정책, 무역정책 및 지원제도, 관광부문 및 민영화 정책 등 총괄

나. 불가리아 중소기업청(Bulgaria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Promotion Agency)

- 주소 : 1 Sv. Nedelia Sqr., 1000 Sofia, Bulgaria
- 전화 : (359-2) 980-5069
- 팩스 : (359-2) 980-5869
- 이메일 : office@sme.government.bg
- 웹 사이트 : www.sme.government.bg
- 주요 기능 : 중소기업 지원 제도 수립, 중소기업 지원 기금 관리 및 운영, 중소기업 무역진흥 활동 등

다. 불가리아 특허청(Patent Office of the Rep. of Bulgaria)

- 주소 : 52b, Dr G.M.Dimitrov BLVD., 1040 Sofia, Bulgaria
- 전화 : (359-2) 970-1314
- 팩스 : (359-2) 873-5258
- 이메일 : tpetkova@bpo.bg
- 웹 사이트 : www.bpo.bg
- 주요 기능 : 특허권, 지적재산권 보호 등에 관한 업무 총괄

라. 불가리아 관세청(National Customs Agency)

- 주소 : 47 Rakovski Street, 1000 Sofia, Bulgaria
- 전화 : (359-2) 981-1129
- 팩스 : (359-2) 980-6897
- 이메일 : contacts@customs.government.bg
- 웹 사이트 : www.en.customs.bg
- 주요 기능 : 관세 관련 업무 총괄

22. 시장 특성

- 불가리아의 인구는 798만명이며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1인당 연간 소득 수준이 미화 3,100불로 상당히 낮은 편이며 따라서 구매력이 취약하며 대다수가 빈곤함. 근로자의 월평균 급여는 미화 200불 수준임.

- 불가리아 소비자나 기업들은 구매력이 낮아 가격에 가장 민감하며 일부 소비자들은 "Buy Bulgarian"을 선호하기도 함. 그러나 불가리아에는 봉제 산업을 제외한 이렇다 할 제조산업이 없으며 품질 수준이나 다양성이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임.
- 불가리아의 소득분배 구조상 대다수의 저소득층과 일부 신흥 고소득층으로 구분되며 중간 소득층이 상당히 적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시장 규모가 상당히 작으며 저가품과 고가품 시장으로 크게 양분되어 있는 상황임. 또한 이로 인해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판매가능 품목을 선정하기가 어려움.
- 지하경제규모가 공식 경제규모의 36%로 매우 높은 편이며 따라서 현금거래, 소량 구매 등 여러 가지 탈세 행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
- 빈부격차가 심해 상당수 수입품 가격은 서구, 미국 상가에서 판매되는 유사, 같은 제품보다 실제로 더 비싼 경우도 많으며 이들 유명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높은 편임.
- 우리나라 제품은 비교적 이미지가 좋게 형성되어 있으나 중국산의 저가품 공세가 지속되고 있어 가격경쟁에서 열세에 처해 있으며 앞으로 이와 같은 가격경쟁은 더 격화될 것으로 예상됨. 지나친 가격경쟁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브랜드 이미지의 제고가 필요하며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해 현지 수입상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마케팅 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음.

23. 오프라인을 통한 바이어 발굴

오프 라인상에서 바이어를 발굴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업체 디렉토리, 전시회 디렉토리, 협회 조합원 명부 등을 활용하는 것이며 바이어 발굴에 유용한 자료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음.

가. 업체 디렉토리

- 자료명 : Bulgarian Business Pages KRAS
 - Publisher: KRAS Plus Ltd.
 - Address: 57A, Dondukov Blvd. 1000 Sofia, BULGARIA
 - Tel: +359 2 981 9040
 - Fax: +359 2 981 8190
 - E-mail: info@kras.net
 - Web: www.kras.net
- 자료명 : Bulgaria Business Encyclopedia, Interidea
 - Publisher: Interidea Research Center
 - Address: Dobrudjanski krai Street, Bl. 1 Entr. G 1606 Sofia, BULGARIA
 - Tel/Fax: +359 2 952 4228
 - E-mail: inter_idea@mail.bg

- 자료명 : Who is Who on the Bulgarian Computer Market
 - Publisher: New Technik Publishing Ltd.
 - Address: 11, P.Volov Street, 1527 Sofia, BULGARIA
 - Tel/Fax: +359 2 943 4128
 - E-mail: whoiswho@newteck.bg
 - Web: www.newteck.bg
- 자료명 : Bulgarian Technical Catalogue
 - Publisher: TLL Media Ltd.
 - Address: Dimitar Nestorov Blvd., Bl. 119, Entr. B 1612 Sofia, BULGARIA
 - Tel./Fax: +359 2 951 6363
 - E-mail: office@tllmedia.bg
 - Web: www.tllmedia.bg
- 자료명 : Yellow Pages
 - Publisher: Bulgarian Yellow Pages Ltd.
 - Address: 15. Patriarh Evtimii Blvd. 1000 Sofia, BULGARIA
 - Tel.: +359 2 981 5100
 - Fax: + 359 2 981 5082
 - E-mail: info@yellowpages-bg.com
 - Web: www.yellowpages.bg

나. 주요 전시회 주관사 및 전시회 디렉토리

- 전시회 주관사명 : International Fair – Plovdiv
 - Address: 37, Tzar Boris III – Obединitel Blvd. 4003, Plovdiv, BULGARIA
 - Tel: +359 32 90 3600
 - Fax: +359 32 90 2432
 - E-mail: fairinfo@fair.bg
 - Web: <http://www.fair.bg>
 - International Fair – Plovdiv 가 주최하는 주요 박람회
 - 불가리아 국제 기술박람회(International Technical Fair)
 - 불가리아 소비재 박람회(International Consumer Goods and Technologies Fair)
 - 불가리아 농산물 박람회(Agra)
 - 불가리아 의료 박람회(Medicus Dento Galenia)
 - 불가리아 와인 박람회(Vinaria)
 - 불가리아 인쇄 박람회(PrintCom)
 - 상기 박람회 디렉토리들은 박람회 주관사를 통해 구입할 수 있음.
- 전시회 주관사명 : Bulgarreklama Agency Ltd.
 - Address: 147, Tzarigradsko Chaussee Blvd. 1784 Sofia, Bulgaria
 - Tel.: + 359 2 965 5220
 - Fax: + 359 2 965 5230
 - E-mail: bul-reklama@bulgarreklama.com
 - Web: <http://www.bulgarreklama.com>

- International Fair - Plovdiv 가 주최하는 주요 박람회 내역
- 불가리아 건축 박람회(BBW ; Bulgaria Building Week)
- 불가리아 인쇄 및 포장 박람회(Expoprint & Pack)
- 불가리아 안경 및 사진 박람회(Opto, Photo & Video Salon)
- 불가리아 의료 박람회(Bulmedica / Buldental)
- 불가리아 열관리 박람회(Bultherm / Bulcontrola)
- 불가리아 섬유·의류 박람회(Bgate ; Balkan Gate Apparel & Textile Exhibition)
- 불가리아 정보통신 박람회(BAIT Expo)
- 불가리아 조명 박람회(Expolight)
- 상기 박람회 디렉토리들은 박람회 주관사를 통해 구입할 수 있음.

다. 협회 조합원 명부

또 다른 유용한 바이어 발굴 방법은 관련 조합의 조합원 명부를 찾아 보는 것임

불가리아 협회 리스트는 다음의 불가리아 상공회의소(BCCI ; Bulgari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나 불가리아 산업협회(BIA ; Bulgarian Industrial Association) 웹 사이트를 통해 구할 수 있음

- BCCI 웹 사이트 ; <http://www.bcci.bg/services/info/associations.htm>
- BIA 웹 사이트 ; http://www.bia-bg.com/info/biamembers_en.html

24. 온라인을 통한 바이어 발굴

정보통신이 발달하면서 온 라인을 통한 바이어 발굴은 갈수록 편리하고 보편적인 방법이 되고 있음. 요즘에는 오히려 온 라인상의 정보가 넘쳐 나 취사선택이 어려울 정도임. 이런 측면에서 빠르고 효율적인 바이어 발굴을 위해 업체 정보가 정기적으로 업 데이팅되는 전문 사이트를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함. 그러나 불행하게도 불가리아에는 아직까지 유용하다고 할 수 있는 사용자 편의의 업체 검색 사이트가 없음. 전통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국제적인 검색 엔진들을 활용하여 검색어를 잘 입력하면 의외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음. 불가리아 국내 비즈니스와 관련된 검색 엔진과 온라인 업체 데이터베이스 엔진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음.

- http://www.download.bg/comp_browse.php
- <http://www.elmedia.net/ipp/index-en.htm>
- <http://www.search.bg/?ln=en>

25. 상담 요령 및 비즈니스 에티켓

가. 동등한 입장에서 상담

- 국민소득수준이 낮다고 경시할 수 있다는 편견을 버릴 것
- 사업 파트너로서 구매력에 관계없이 진실하게 상담

나. 수출가능성과 함께 시장동향 파악도 중시

- 시장규모, 경쟁관계 등에 대한 파악을 사전에 할 것
- 시장이 지역적으로 산재해 있다는 점을 고려 할 것
- 단기적인 측면보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접근이 필요

다. 대기업의 경우 직원은 다분히 피동적인 태도

- 동기부여 등이 낮은 수준임
- 가능한 한 민간 중소기업체를 사업 파트너로서 적극 모색

라. 신용상태 등 거래 전 점검 강화

- 금융부문의 취약성 존속,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성 파악 필요
 - Bulbank, UBB 등 비교적 건실한 은행과의 거래 유도
- 거래업체에 대한 신용상태는 반드시 확인 필요
- 대형설비의 경우 공급자 신용 제공이 필요
 - 수출입은행 : UBB 등과 전대자금계약체결 추진 중
- 거래 조건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 분쟁 발생시 재판 등 사법제도를 통한 해결 장기간 소요

마. 불필요한 약속을 남발하지 말고 사후 관리 철저

- 상담 중 너무 쉽게 약속을 하지 말 것
 - 견본 무료 제공, 즉시 추가자료 제공 등
- 상담 중 약속 내용에 대한 기록 철저 및 사후 관리 필요
 - 상담 후속 조치 내용은 약속한 기한 내에 이행
 - 이행이 늦어질 경우 사전에 해당 업체에 사유를 통보

바. 현지 문화와 관습에 대한 이해 노력 필요

- 키릴문자를 발명한데 대한 자부심이 강함.
- 선사시대 유적 등 다수 존재
- 유네스코지정 문화유산(9개) 및 자연경관 우수(12 국립공원)
- 비잔틴, 터키 등 장기간 외세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 생존을 위해 강자에 굴복, 명분보다 실리에 기민
- 서양 식사 예절 등에 대한 관심 필요
 - 불가리아는 독한 술(라키아)로 시작
 - 입안에 음식을 넣은 상태로 이야기하지 말아야
 - 스프 또는 음식을 먹을 때 소리를 내지 말아야

- 불가리아의 독특한 제스처
 - 긍정(예;DA)시 고개를 좌우로
 - 부정(아니요;NE)의 경우 고개를 아래위로
- 제스처보다는 음성(예, 아니요)를 잘 들어야 함.

사. 불가리아의 지리적인 여건 활용

- 불가리아 진출 시 불가리아의 지리적 여건(마케도니아, 루마니아, 세르비아, 그리스, 터키 인접)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 필요

26. 계약 체결시 유의할 점

가. 가격조건 제시

- 불가리아의 주요 항구는 Varna 이며 통상적으로 Varna 항구까지의 운송 조건에 의한 가격을 제시하여야 함. 즉, 가격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C & F Varna 조건으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함. 일부는 그리스항구 데살로니키를 이용하기도 하며 Varna 항구로부터 소피아까지 내륙 운송비는 20피트 컨테이너 하나에 약 800달러가 소요됨
- 가격은 유로화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불가리아의 화폐인 레바(Leva ; BGN)는 유로화에 환율이 고정되어 있으므로(1유로 = BGN1.95583) 현지인들은 대미 달러화 결제 시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할 수 있음.

나. 최소 주문량 제시

- 불가리아의 주요 수입상들은 필요 시 서유럽으로부터 소량을 수입하여 공급하는 거래 관행에 익숙해져 있으며 이로 인해 우리나라 업체에서 요구하는 최소 주문량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따라서 시장규모(인구) 및 구매력(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최소 주문량을 신중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다. 결제조건 제시

- 우리나라 업체는 대부분 T/T in advance 조건이나 L/C(신용장) at sight (일람불)를 요구하고 있으나 L/C 개설 시 약 미\$200의 수수료가 소요되어 현지 업체들이 신용장 거래를 기피하는 경우가 많음.
- 일부 사전 송금 및 잔액 도착 시 지불 등 결제조건에 대해 보다 신축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장임.

라. 계약서 작성 및 법률적 검토

- 일반적으로 불가리아는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일반적인 비즈니스 관행을 따르고 있음.
- 계약서는 영어로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임.

- 무역 분쟁을 회피하기 위해 중요한 계약 체결의 경우 계약 체결 전에 법률 전문가로 하여금 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토록 하고 계약 체결 후에는 국제 공증 기관의 공증을 받아 두는 것이 바람직함.

27. 통관절차

불가리아로 운송 시에는 불가리아 내 에이전트를 확보하고 있는 국내운송업체를 이용하여 현지 도착 시 통관업무까지 처리할 수 있음.

통관 시에는 인보이스, Packing List, B/L 등 기본적으로 통관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통관 시기에 맞춰 현지 공식 관세사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최고 관세율은 공산품은 40%, 농산품은 80% 이며 불가리아의 수입 관세율은 다음의 불가리아 관세청(BCA) 웹사이트를 통해 조회해 볼 수 있음.

* http://www.en.customs.bg/index_en.html

물품 통관 시 관세 이외에 부가가치세(VAT) 20% 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주류 등 일부 품목은 물품세(excise duties)도 납부하여야 함.

상당용 샘플, 전시품 등 일시 반입이나 일시 수입의 경우 A.T.A. 까르네(Carnet)를 소지하면 통관 시 면세가 되며 까르네 증서 자체가 수입 신고서로 인정되어 추가적으로 통관 서류를 작성할 필요가 없음. 단, 까르네 물품은 일정 기간 이내에 재 반출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함.

28. 운송

가. 무역항

불가리아의 대표적인 무역항은 불가리아의 동해안인 흑해에 있는 바르나(Varna)항과 브르가스(Bourgas)항이며 상세 내용은 아래 웹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바르나항 : www.ceebd.co.uk/ceebd/varna2.htm
- 브르가스항 : www.port-burgas.com

나. 공항 개황

불가리아에는 Sofia, Varna, Bourgas, Plovdiv 등 4곳에 국제공항이 있으며 공항별 상세 내용은 아래 웹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Sofia International Airport : www.sofia-airport.bg
- Varna International Airport : www.varna-airport.bg
- Plovdiv International Airport : www.plovdiv-airport.com
- Bourgas International Airport : www.bourgas-airport.com

다. 주요 운송회사

불가리아 운송업자협회(BNFA ; Bulgarian National Forwarders Association) 웹 사이트 (www.nsbs.bg) 에서 불가리아 운송회사들을 검색해 볼 수 있음.

라. 통관서비스 회사

불가리아 통관 및 무역 서비스 협회(BUCFTS ; BULGARIAN UNION FOR CUSTOMS AND FOREIGN TRADE SERVICES) 웹 사이트(<http://www.bsmvo.com/Eng/show.shtm>)에서 불가리아 통관서비스 회사들을 검색해 볼 수 있음.

29. 분쟁해결 절차

불가리아 기업과 무역 분쟁이 발생하여 당사자간 해결이 어려울 경우에는 불가리아 상공 회의소(BCCI)나 불가리아 산업협회(BIA) 내에 설치되어 있는 중재 법정(Arbitration Court) 을 통해 중재를 받을 수 있음. 단, BCCI 나 BIA 의 중재를 받기 위해서는 계약서상에 BCCI 혹은 BIA 가 무역 분쟁 중재 장소로 명시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BCCI 혹은 BIA 의 중재를 받을 수 없음.

불가리아는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뉴욕 협약(the New York Convention on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및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유럽 협약(the European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의 서명국이며 BCCI 나 BIA 의 중재는 유엔국제 통상법위원회(UNCITRAL)의 국제법에 기초함.

1) The Arbitration Court at the Bulgari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BCCI)

- 주소 : 42 Partchevich str., Sofia 1058,, Bulgaria
- 전화 : +359 2 980 9899, 987 26 31 (ext. 143)
- 팩스 : +359 2 987 3209
- E-mail: acourt@bcci.bg
- Web: <http://www.bcci.bg/arbitration/index.html>
- Contact Persons
 - Mrs. Lyubka Vassileva - secretary
 - Mrs. Boriana Nenкова - secretary

2) The Arbitration Court at the Bulgarian Industrial Association(BIA)

- 주소 : 16-20, Alabin Str., Sofia 1000, Bulgaria
- 전화 : +359 2 93 20917
- 팩스 : +359 2 987 2604
- E-mail : arbiter@bia-bg.com
- Web : http://www.bia-bg.com/arbitration/default_en.htm

불가리아는 무역 사고가 종종 발생하는 지역이고 분쟁 해결이 쉽지 않고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사고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함.

무역 분쟁 발생 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조치는 바이어의 해결 능력과 해결 의사를 확인하는 것임. 무역 분쟁이 발생하면 바이어는 고의로 접촉을 꺼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불가리아 현지에서 접촉을 시도하는 것이 효과적임. KOTRA를 통하거나 현지 교포를 통해 바이어 접촉을 시도하면 대부분의 경우 바이어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음.

바이어가 일방적으로 대금지불을 지연 혹은 거부하거나 고의로 클레임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바이어의 의견을 청취한 다음 양자가 조금씩 양보하여 타협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이며 도저히 해결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현지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좋음.

변호사는 현지에 진출해 있는 한국기업이나 KOTRA를 통해 소개 받는 것이 좋고 사건의 경위를 충분히 설명한 후 변호사가 제시하는 사건 해결 계획과 소요비용을 확인한 후 구체적인 행동에 들어가는 것이 좋음.

한편, 대금 미결제 등 분쟁 발생이 예견될 경우에는 수출보험공사 수출보험에 가입하고 진행하는 것도 한 방법임.

30. 유형별 분쟁사례

가. 물품 대금 미지불

짚은 편은 아니나 현지 바이어가 물품을 수령해 놓고도 물품 대금을 고의로 지불하지 않는 사례가 가끔 발생하고 있는 바, 바이어에 대한 확실한 신뢰가 없다면 T/T 나 L/C(신용장) 거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함.

나. 약속 미이행

이 유형은 한국 업체들이 현지 바이어로부터 먼저 수출대금을 T/T 로 받은 후 납품기한을 잘 지키지 않은 경우임. 바이어와 상담할 때는 먼저 수출대금을 송금해 주면 물건을 언제까지 보내주겠다고 약속하고서는 실제 대금이 입금되면 물건을 늦게 보냄으로써 바이어에게 손해를 끼치는 형태임. 이 유형은 소량 주문인 경우에 많이 종종 발생함.

다. 하자 미해결

이 유형은 한국 업체들이 현지 바이어로부터 수출 대금을 미리 받은 다음에 하자가 있는 제품을 보내 놓고 바이어와의 접촉을 회피하는 등 전혀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유형임.

VI. 투자

31. 외국기업 투자동향

□ 2003 년부터 2005 년까지 최근 3 년간 불가리아의 외국인 투자 유치 실적은 총 69 억 달러임.

○ 이는 불가리아가 1991 년 시장경제를 채택한 이후 2005 년까지 15 년간의 전체 누계 액 중 53% 에 해당하는 놀라운 실적 임.

외국인투자 추이

(단위: 백만불, %)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시설 및 증액 투자액(A)	635.5	793.7	769.1	1,743.40	1,297.80	2,324.20
전체에서 비중	63.5	97.6	85	83.1	52.2	100
민영화(B)	366	19.2	135.6	353.5	1,189.70	0
전체에서 비중	36.5	2.4	15	16.9	47.8	0
합계(A+B)	1,001.50	812.9	904.7	2,096.90	2,487.50	2,324.20

자료원 : 불가리아 투자청(IBA)

□ 국별 외국인투자 실적을 보면 1992 년부터 2005 년까지 불가리아의 외국인직접투자유치 누계 액은 129 억 달러이며, 이중 오스트리아가 25.1 억 달러(19.5%)로 가장 많고, 그 뒤를 이어 그리스 12.6 억 달러(9.7%), 독일 10 억 달러(7.7%), 이탈리아 8 억 달러(6.2%), 네덜란드 7.9 억 달러(6.1%), 미국 5.9 억 달러(4.6%), 스위스 5.7 억달러(4.4%), 헝가리 5.6 억 달러(4.3%) 등의 순서임.
(한국은 4 백 5 십만 달러로 32 위)

1992 년부터 2005 년까지 국별 외국인투자 누계액

(백만불, %)

구 분	오스 트리아	그리스	독일	이탈 리아	네덜 란드	미국	스위스	헝가리	영국	사이 프러리	일본	한국
순위	1	2	3	4	5	6	7	8	9	10	24	32
금액	2,516	1,257	999	802	793	594	571	561	555	553	44	4.5
비중	19.5	9.7	7.7	6.2	6.1	4.6	4.4	4.3	4.3	4.3	0.3	0.03

자료원 : 불가리아 투자청(IBA)

- 부문별 외국인 직접 투자 실적을 보면 금융이 22.97 억 달러(19.8%)로 가장 많고 그 뒤를 이어 무역이 16.9 억 달러(14.7%), 통신 16.2 억 달러(14.1%), 전기.가스 10.3 억 달러(9.0%), 부동산 8.3 억 달러(7.2%), 석유·화학 6.1 억 달러(5.3%), 광업 5.4 억 달러(4.7%) 등의 순서임.

1992년부터 2005년까지 부문별 외국인투자 누계액

(백만불, %)

구분	금융	무역	통신	전기.가스	부동산	석유.화학	광업	건설	식품	섬유	목재	요식업
순위	1	2	3	4	5	6	7	8	9	10	11	12
금액	2,287	1,696	1,621	1,033	833	612	537	374	283	254	192	191
비율	19.8	14.7	14.1	9.0	7.2	5.3	4.7	3.2	2.5	2.2	1.7	1.7

자료원: 불가리아 투자청 (IBA)

1992년부터 2005년까지 對 불가리아 투자 Top 25 외국 기업

Investor	Country	Bulgarian company	Sector
OTE	Greece	Globul, Cosmo Mobile	Mobile telecommunications
OTP	Hungary	DSK Bank	Banking
Unicredit Group	Italy	Bulbank	Banking
CEZ	Czech Republic	ER Sofia, ER Sofia - region, ER Pleven	Electricity distribution
EVN	Austria	ER Plovdiv, ER Stara Zagora	Electricity distribution
Viva Ventures / Advent International	USA / UK	BTC AD	Fixed-line and mobile telecommunications
Lukoil	Russia	Neftochim AD, Petrol AD	Petrochemicals, retail fuel
Solvay	Belgium	Sodi Devnya	Chemicals (soda ash)
Umicore / Cumerio	Belgium	Cumerio Pirdop MED	Copper smelter
National Bank of Greece	Greece	United Bulgarian Bank (UBB)	Banking
American Standard	USA	Vidima, Ideal Standard	Sanitary ware
E.ON	Germany	ER Varna, ER Gorna Oryahovitza	Electricity distribution
Miroglio	Italy	Miroglio Bulgaria, Interpred	Textile, real estate
Bank Austria / HVB	Austria	HVB Bank Biochim	Banking
OMV	Austria	OMV Bulgaria	Retail fuel
Shell	UK / Netherlands	Shell Bulgaria, Shell Gas Bulgaria	Retail fuel
Sisecam	Turkey	Trakia Glass	Glass industry
EMTF+ Mobitel Holding	Austria	Mobitel AD	Mobile telecommunications
Knauf	Austria	Knauf Gipsfazer	Building materials
Raiffeisen Bank	Austria	Raiffeisen Bank Bulgaria	Banking
METRO	Germany	Metro Cash & Carry Bulgaria	Department stores
Bareck Overseas	Cyprus	Druzha - Plovdiv	Glass industry
Willi Betz	Germany	SO MAT	Transport & logistics
Holcim (Holderbank)	Switzerland	Beloizvorski Cement	Cement industry
Carlsberg	Denmark	Carlsberg Bulgaria	Brewery

□ 향후 외국인 투자 전망

- 2007년 EU 가입을 앞두고 불가리아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향후 2 - 3년간 호조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 경제성장 지속, 물가안정 등 거시경제지표가 상당히 좋음
 -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비교적 인력이 풍부함
 - 법인세 인하, 인센티브 제공 등 정부의 투자유치 활동이 활발함

- 불가리아 투자청 (IBA)은 2007년말까지 40억 유로 이상의 외국인 투자가 유입될 것으로 전망
- 특히, 정보통신 등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

- 그러나 최근 2 - 3 년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EU 가입 시 인력 유출 확대 등으로 부정적인 요인도 지적되고 있음
 - 최근 부동산 가격은 연 30% 정도 급상승
 - 인력 유출 및 지속적인 인구 감소(연 3 - 5 만 명씩 감소)
 - 인프라 열악, 금융조달 어려움

32. 우리기업 투자동향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對불가리아 직접투자는 2006 년 6 월말 신고 기준으로 총 7 건에 82 백만 달러, 실제 투자 기준으로 총 5 건에 55 백만 달러로 집계되고 있음.

우리나라의 對 불가리아 업종별 투자건수 및 금액(2006. 6월말 기준)

(단위 : 건, 미\$천)

업 종	신고기준(건)	신고기준(금액)	투자기준(건)	투자기준(금액)
제조업	3	3,260	2	163
도소매업	2	1,024	1	1,000
숙박음식업	1	52,205	1	52,205
부동산업	1	25,500	1	1,500
총 계	7	81,989	5	54,868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의 주요 對불가리아 투자진출 업체로는 대우가 '96 년 9 월 웨라톤 호텔 지분 67% (22 백만불), ' 97 년 5 월 무역센터(Interpred) 지분 70%(24 백만불)를 각각 인수하여 운영한 바 있으나 웨라톤 호텔은 2002 년 5 월 그리스 호텔 체인에, 무역 센터는 2001 년 12 월에 이태리 기업에 각각 매각한 후 철수하였으며, 현대중공업에서 '97 년 7 월 변압기 제조회사인 Elprom Trafo 를 인수하여 현재 발전소 및 변전소용 변압기를 생산(투자규모 6.5 백만 달러 ; 초기투자 3 백만+증액투자 3.5 백만)을 하고 있고 (주)아이피에스에서 2005 년 Qual Tek 라는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현재 프린터용 잉크 및 토너를 생산하고 있음.

이외에 개인 투자자로 식품 등 무역업체인 Choice Ltd, 자동차 부품 수입 및 수리업체인 Auto Bulgaria Ltd, 여행 업체인 JIKO Tour Ltd 등이 있음.

최근 인조모피 제조(15 백만불), 타포린 제조(6 백만불), 스피커 제조(4 백만불), 인터넷 서비스(50 만불) 등의 투자 프로젝트들이 추진되었으나 아직까지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33. 투자환경

가. 투자환경

- 동서양의 교차 지점이자 발칸반도의 중앙에 위치한 불가리아의 지리적 여건, 유럽 대부분의 국가와 체결되어 있는 자유무역협정 및 2007년도 EU 가입 추진, 저렴하고 우수한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어 유럽시장 진출을 위한 거점으로서 활용할 가치가 높은 곳임.

- 1990년 시장경제 체도 도입 이후 정치, 경제적인 과도기로서 불안한 시기도 있었으나 현재는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외국기업을 내국기업과 동일하게 대우하고 있어 투자에 대한 정치적인 위험도는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
- 전반적인 투자위험에 대해서는 세계 3대 신용평가 기관들의 최근 불가리아에 대한 신용평가를 살펴보면 Fitch가 2005년 9월, S&P는 2005년 10월 불가리아의 신용등급을 BBB-에서 BBB+로 각각 상향 조정하였고 Moody's 또한 2006년 3월 불가리아의 투자 등급을 Ba1에서 Baa3로 상향 조정하였음.
- 외국인 투자 자유화
 - 불가리아는 외국인 투자의 장려와 이중과세 철폐를 위해 상호 투자보장 협정에 대한 국제협약을 체결
 - 투자와 관련된 자금의 송금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송금이 가능함.
 - 외국인 투자자는 외화를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으나, 투자에 의해 발생한 수익, 국가의 보상에 의한 양도 재산, 투자 종료시 발생하는 청산 자금, 투자 상품에 대한 판매 수입, 강제집행 영장 시행관련 금액 등에 관한 외화의 해외송금은 세금 납부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함.
- 외환관리
 - 불가리아 정부는 IMF의 권고에 따라 1999년 외환관리법을 개정하여 2000년 1월1일부터 외국환 거래를 자유화하였음.
- 투자보호제도
 - 불가리아 헌법과 외국인 투자법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불가리아 투자자와 동등하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내외국인 동등대우를 명시해 놓고 있음. 단 자연인은 토지 취득 불가하며, 법인은 토지, 건물 등 부동산에 대해 제한 없이 취득 가능함. 외국인 자연인의 경우 2014년부터 토지 취득을 허용하도록 헌법이 개정되었음
 - 동 규정은 모든 경제활동에 적용되며, 국영기업 사유화 과정의 참여와 주식, 국채, 사채, 기타 모든 유가증권의 취득에 있어서도 적용이 됨
 - 그러나 정부의 관료주의, 열악한 인프라, 빈번한 법률 개정, 과다한 세금, 은행체제 미 확립 등은 대 불가리아 투자자들에게 불만적인 요소로 부각되고 있음.

나. 외국인투자의 보호

1) 자국민 대우와 최혜국 지위

- 불가리아 헌법과 외국인 투자법은 외국인(외국에 등록된 법인, 개인 또는 시민단체)이 불가리아에서 경제 활동을 할 때 법으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국민과 동일한 권리를 누린다고 명기하고 있음(자국민 대우). 이 원칙은 영업 활동을 하는 모든 경제적·법적 형태에 적용됨.
- 불가리아가 체결한 상호 협정에서 국제 투자자에게 더욱 유리한 투자조건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협정국의 시민이나 법인은 동등한 특혜를 누릴 자격을 갖게 됨.(최혜국 지위)

2) 불리한 법적 개정에 대한 법률적인 보장

- 외국인 투자법에 의거해 현행법을 개정해 외국인투자에 법적 제한을 가할 경우 소급 적용하지 않으며 개정 이전의 투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3) 강제 수용으로부터의 보호

- 불가리아 헌법은 국가나 지방정부가 자신의 필요를 위해 민간 부동산을 강제 수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음. 강제 수용은 국가나 지방정부의 필요가 다른 방법으로는 해결될 수 없을 때 최후 수단으로서 법에 의해서만 실시할 수 있음.
- 상기 원칙은 국가 및 지방정부 부동산에 관한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음. 두 법 모두 강제 수용은 부동산 소유자가 동의를 하고 부동산이나 금전적인 적절한 보상을 수용하는 경우에만 실시할 수 있다고 명기하고 있음.
- 외국인 회사나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관련한 추가적인 보호는 외국인 투자법에 제시되어 있음. 동 법은 적용의 범위를 제한하고, 해결해야 할 절대적으로 중대한 국가적 필요가 있고 또 동일 지역에 소재한 시장가치가 동일한 부동산으로 보상이 될 경우에 한해 부동산을 강제 수용할 수 있다는 일반 원칙을 부연 설명하고 있음.

다. 투자 허가

- 불가리아 법은 외국인의 법인체 설립 또는 기존 법인체의 지분 인수를 허용하고 있음. 이들 회사는 불가리아 상법(Trade Act)에서 정한 법인 형태를 취해야 함. 외국인 법인체나 개인의 지분 참여에는 제한이 없음.
- 불가리아 상법에 의해 다음 법인들이 설립되고 외국인투자자가 참여할 수 있음.
 - 합명회사(unlimited partnership)
 - 합자회사(limited partnership)
 -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ies) : 단독 유한책임회사
 - 주식회사(Joint-stock companies) : 단독 유한책임회사
 - 지분부 합자회사(limited partnerships with shares)
 - 개인사업자(sole traders)
- 외국인 개인이 합명회사의 무한책임사원으로 참가하거나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기로 한 경우 불가리아에 항구적인 주거를 두어야 함.
- 은행이나 보험영업, 투자펀드, 관리회사, 투자중개업, 특별사업권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상기 유형의 법인을 설립하는 데는 정부기관의 사전허가가 필요하지 않음.
- 지사(Branches)
 - 외국의 개인, 법인 또는 비법인체가 본국의 법에 의거 영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경우 불가리아에 지사를 등록할 수 있음. 지사는 지방법원의 상업등기부에 기재됨.
 - 외국 회사의 일부이긴 하지만 지사는 독립체로 간주하고 따라서 별도의 회계장부를 유지하고 대차대조표를 작성해야 함. 지사 설립은 등기 자본금을 요하지 않음.

- 대표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
 - 본국의 법 조항에 따라 영업활동의 허가를 받은 외국의 법인이나 개인은 불가리아에 대표사무소를 둘 수 있음. 이들은 별개의 법인체로 간주되지 않으며 불가리아 법에서 정한 영업활동을 영위할 자격이 없음.
 - 대표사무소는 불가리아 상공회의소에 등록되며 마케팅, 정보제공 및 홍보활동을 영위할 수 있음.

34. 투자인센티브

가. 불가리아 헌법은 국내외인의 투자에 차별을 두지 않고 보호함.

투자 인센티브는 소유자의 국적과 관계없이 불가리아에 등록한 회사에 부여함. 불가리아 투자자에 대해 차별적인 조치를 취하는 국가의 투자자에게는 평등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음. 평등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 국가들은 각료회의에서 지정할 예정임.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런 국가가 없었음.

나. 투자 장려법이 불가리아 투자의 조건과 절차를 정함.

새 법에 따라 경제부 장관이 투자부문에서 국가정책을 수행하는 주도적인 행정권을 가짐. 그런 활동을 실시함에 있어 경제부 장관은 타 행정부처와 협력해 투자장려 전략을 입안함. 동 전략과 지역개발전략에 따라 도지사가 해당 지역에 대한 투자장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실시를 조정함.

투자 절차에서 중요한 역할은 불가리아 투자청(Invest Bulgaria Agency, IBA)이 담당함. 투자 장려법(The Encouragement of Investment Act)은 불가리아 외국인 투자청을 경제부 산하의 집행기관으로 변모시켰음. 변모 후 IBA의 기본적인 기능은 투자 장려 정책을 실시할 때 경제부 장관을 보좌하는 것임. IBA의 주요 기능 중 하나는 투자과정에서 기업을 지원하는 것임. 장래 투자자에게 투자절차에 대한 최신정보와 법적 자문을 제공하고 적절한 불가리아 측 파트너 물색을 도우며 타 기관과 투자정책을 조정함.

투자 장려법은 다음과 같은 특정 기준에 부합하는 투자에 대해서는 우대조치를 하고 있음.

- 신설, 확장 또는 기존 상품생산이나 서비스의 현대화를 위한 고정자산 인수에 쓰이는 투자
- 고용 창출
- 3년 이내에 실시하는 투자 계획

투자는 투자사업의 가액에 따라 3등급으로 나뉘므로 우대조치는 투자의 등급에 따라 달라짐.

가액의 기준은 투자 장려법 시행령에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음.

- 1등급 : 7,000만 BGN(3,600만 €) 이상 투자
- 2등급 : 4,000만~7,000만 BGN (2,000만~3,600만 €)의 투자
- 3등급 : 1,000만~4,000만 BGN (500만~2,000만 €)의 투자

모든 투자등급에 대하여 중앙 및 지역 행정당국과 지자체는 통상적인 기간보다 1/3이 단축된 기간 안에 투자자에게 행정 서비스를 제공함. (면허, 허가 등 발급).

행정 서비스가 빨라지는 것 이외에 3등급 투자는 IBA로부터 다음과 같은 정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 국가 경제 분석과 업종정보 자료
- 잠재적 파트너에 대한 정보
- 투자사업의 수행과 관련한 모든 행정절차에 관한 자문

2등급 투자에 대해서는 IBA가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함.

- 정보 서비스
- 중앙 및 지방 정부기관과 관련한 개별적인 행정 서비스. 투자자는 에이전시의 관리로 하여금 기존 법에 의거, 유관부처로부터 투자자를 대신해 투자자의 명의로 특정 투자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서류를 입수하도록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

1등급 투자에 대해서는 IBA가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함.

- 개별적 정보 및 행정 서비스
- 부동산 ‘취득’ 문제와 관련한 지원
 - 1등급 투자자의 요청에 따라 에이전시는 입찰 없이 또는 우대가격에 투자사업의 실행에 필요한 부동산(사유, 국영 또는 지자체 소유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해당 관청에 제의하거나 제한적인 소유권을 설정할 수 있음.
- 투자 사업장 주변에 투자계획 수행에 필요한 기술적 인프라 구축 요소 공급
 - 기술적 인프라 네트워크와 운송, 수도, 배수, 통신, 기타 시설들이 공공 시설인 경우 그 건설은 국가예산 또는 지방의회 결정에 따라 해당 지자체가 부담함. 그 밖의 모든 경우에는 관리 운영회사가 부담함.

다. 불가리아 노동시장에서 청년 및 빈곤층 고용 프로그램과 대책

- 다음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고용청(the Employment Agency)은 각 고용인의 고용계약 기간(단 12개월 이내)에 대해 급여와 고용주가 사회보장청과 건강보험기금에 납부해야 할 분할 납부금 그리고 전문능력을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훈련비용(6개월 이내)을 부담함
- 요건
 - 해당자는 에이전시와 고용주간의 계약을 근거로 고용청 해당 부서의 지시를 받아야 함.
 - 군에 복무한 적이 없는 29세까지의 실업자
 - 작업능력이 저조한 29세까지의 실업자
 - 교육을 완수한 사회기관 출신의 청소년
 - 작업능력이 영구히 미흡한 실업자
 - 3세까지의 자녀가 있는 독신부모(양부모) 또는 어머니(양모)인 실업자
 - 50세 이상의 여성과 55세 이상의 남성 실업자

- 6개월 이하의 훈련 또는 견습 기간 동안 체결한 계약을 근거로 고용청 해당 부서의 지시에 따라 29세 이하 실업자의 전문능력 취득을 위한 훈련 및 견습근무에 동의하는 고용주에게도 동일한 인센티브가 유효함.

라. 평생교육을 위한 프로그램과 대책

- 피고용 근로자와 종업원의 능력 유지와 향상을 제공하는 고용주는 1인당 최대 훈련비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의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음.(국가작업직고용계획에 따른 최대 금액은 450 BGN임).
- 절차
 - 고용청의 지방 부서인 ‘고용국’은 매달 게시판과 최소 두 개의 지방 또는 지역 광고 매체에 익월에 고용주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장려대책을 발표함.
 - 고용주는 지방 ‘고용국’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 최소 6개월 동안은 종업원의 고용을 유지한다는 신고를 함.
 - 신청 기간 경과 후 3일 안에 협력위원회는 제출된 신청서를 논의하고 매월 계약
 - 체결 가능자와 고용주의 명단을 ‘고용국’ 국장에게 제출함.
 - 승인된 고용주 명단은 ‘고용국’ 게시판에 게시함.
 - 고용주는 1인당 최고 훈련재원(450 BGN) 범위 내에서 훈련기관을 지정해 전문능력을 취득하기 위한 훈련을 수행할 권리를 가짐

마. 일반적인 금융 인센티브

1) 고실업 지역 투자에 대한 세제상 인센티브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06년 1월 1일 현재 불가리아의 법인소득세는 15% 임.

□ 고실업 지역

경제부가 허가한 명단에 포함된 고실업 지역 투자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함. 인센티브는 일부 사전 및 추후 등록요건과 통지가 따름. 면제/인센티브와 기타 지역개발을 위한 정부 보조금의 가액이 7,500만 BGN을 초과할 경우 경쟁보호위원회의 허가가 필요함. 정부 보조금 (세제상 인센티브에 의한 보조금은 제외)의 합계가 3년 동안 20만 BGN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세제상 인센티브는 완화된 조건에서 사용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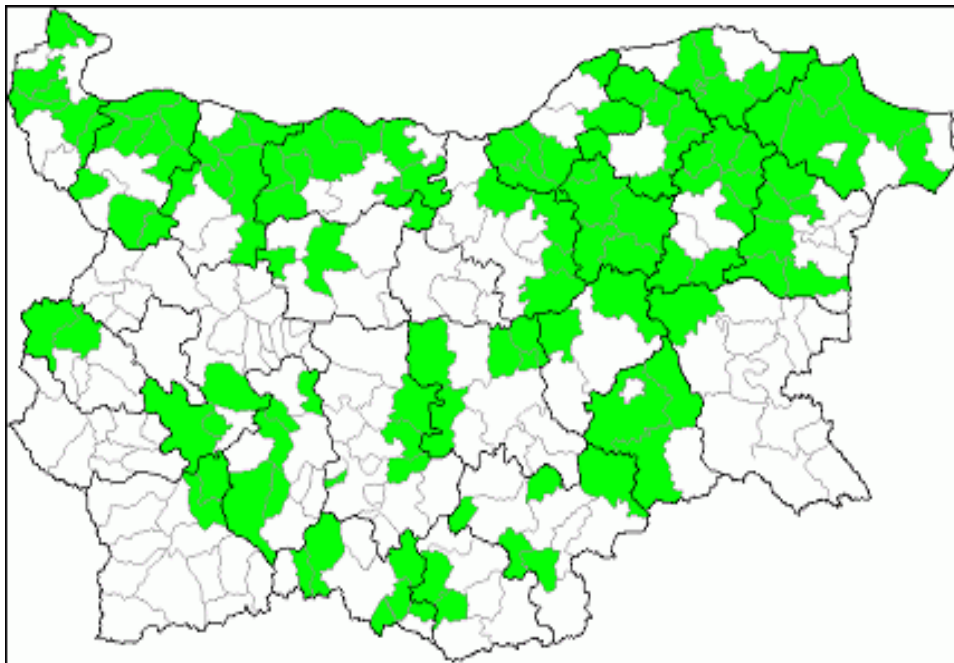
□ 제조업에 대한 세금면제

- 고실업 지역에 투자한 제조기업은 다음과 같은 기본조건에 따라 법인소득세의 완전 면제를 받을 자격을 가짐.
 - 납세자의 모든 사업장과 건물은 해당 고실업 지역에 소재해야 함.
 - 납세자의 모든 자산(은행에 예치된 현금과 계열사 투자자산 제외)은 해당 고실업 지역에 소재해야 함.
 - 납세자는 면제를 청구하는 연도에 대해 세금이나 사회보험료 또는 그에 대한 벌금 이자의 잔액이나 항의의 여지가 없는 채무가 없어야 함.

각 연도의 세액공제 금액은 면제를 청구한 연도의 익 3년 이내에 제조활동에 투자해야 함. 적격 투자는 유형고정자산 또는 면허, 유형고정자산 비용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가액의 특허와 노하우로 이루어 짐. 투자자는 또 최소한 세액공제의 25%에 해당하는 자기자금을 투자해야 함. 이행해야 할 다른 추가조건도 있음. 취득한 자산은 합병이나 구조조정을 제외하고 5년 동안 처분할 수 없음.

각 연도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약 5년 동안 인센티브를 공여 받는 것이 가능함. 5년 기간 동안에 해당 지역을 고실업 지역에서 제외할 경우 인센티브를 박탈하지 않으며 기간이 만료할 때까지 적용할 수 있음. 회사가 고실업 지역에서의 투자를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갔는데 제조업종을 가동하기 전에 동 지역을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에도 회사는 4년 동안 인센티브를 이용할 자격이 있음.

2005년에 법인소득세 면제 기회를 제공하는 고실업 지자체(녹색 표시)



바. 원천징수세 면제

- 외국인이나 외국법인, EU 회원국 국민을 위해 내국인이 계산한 배당금과 청산 할당금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는 원천징수세의 적용을 받지 않음.
 - 해당 EU 회원국의 세제에 따라 당해인을 세무상 불가리아의 내국인으로 간주하고 제3국과의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라 EU 외 국가의 현지인으로 간주하지 않을 때
 - 당해인에게 선택권이 없거나 본 세금이 면제되지 않으면서 법인세가 부과될 때
 - 당해인이 사실상 소득의 소유자로서 국내 법인의 지분/주식을 최소 20% 보유하고 있을 때

사. 투자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물품을 수입하기 위한 부가세 우대 체제

- 적격 투자사업을 수행하는 부가세 등록 투자자는 수입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고 사업에 필요한 자산을 수입할 자격이 있음. 뿐만 아니라 동 투자자는 월별 부가세의 최소한 80%가 부가세 계좌를 통해 지급한 구매에서 발생한 경우, 세무신고 10일 이내에 국내 구매에서 발생한 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있음.
- 투자자가 특별투자규칙의 혜택을 받으려면 재정부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승인을 받으려면 투자사업이 일정한 조건에 부합해야 함.
 - 2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투자 규모가 최소한 1,000만 BGN(500만 유로)이어야 함.
 - 사업 완료를 위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음.
 - 사업 결과 최소한 50인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어야 함.
 - 사업이 지역발전을 위한 국가지원에 합당해야 함.
 - 투자자는 사업자금 조달능력을 증명해야 함.

아. 농업 업종을 위한 인센티브

- 시장에 비가공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업종(양봉, 양잠, 양식업)에는 납부할 법인소득세의 60%를 세액공제로 부여함. 세액공제 금액은 농업활동에 재투자해야 함. 농업 산물을 생산 및 가공하는 업종에는 이 같은 인센티브를 주지 않음.

자. 기타 세제상 인센티브

- 장애자 고용을 위한 기관, 협동 기관, 대학, 학교 등과 같은 특정 기관에 적용하는 기타 세제상 인센티브도 있음.

35. 타당성조사

불가리아에서 비즈니스를 하기 위한 법인, 지사설립 등 투자의 타당성을 검토할 때 아래와 같은 부분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불가리아 투자에 대한 기본 정보는 불가리아 투자청(IBA; Invest Bulgaria Agency; <http://investbg.government.bg>)을 접촉하면 쉽게 구할 수 있으며, 부가적인 컨설팅 지원도 하고 있음.

가. 구체적인 투자 목적 설정

- 불가리아에 투자하는 목적은 유럽 및 인근시장 진출을 위한 투자, 불가리아 내수시장을 겨냥한 투자, 비용절감을 위한 투자 등 다양할 수 있으며, 통상 이들 여러 목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를 결정하고 있음.
- 그러나 투자 목적이 막연할 경우 투자 계획 단계에서부터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설정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실패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뚜렷한 투자 목적을 정하고 투자시행 후 벌어질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그려보는 것이 바람직함.

나. 철저한 투자 여건 사전 분석

- 많은 비용과 위험 부담이 동반되는 것이 투자이기 때문에 투자여건에 대한 철저한 사전 분석이 반드시 필요함.
- 불가리아에 이미 투자한 기업인들이 밝히는 대불가리아 투자의 주요 애로점은 협소한 내수시장 규모, 정부의 관료주의, 열악한 인프라, 충분한 사전예고 없는 잦은 신법 제정 및 개폐, 은행시스템 낙후, 민영화 지연, 복잡한 조세 및 회계제도 등임. 따라서 비용측면에서 수익성이 있는 지, 관료주의 및 행정의 부패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 지 등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대비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며 진출 방법의 결정과 설립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한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 투자 품목의 장기적인 시장성 검토

- 2007년 EU 가입을 앞둔 불가리아 시장이 최근 급속히 변화하고 있어 투자결정에 있어 불가리아 시장의 중장기적인 변화를 예측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함.
- 가장 특징적인 현상은 저가 중국제품의 진출이 활발하다는 점으로 현재 중국제품 대비 비교우위에 있는 품목이라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도 중국제품과의 경쟁이 가능할 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라. 합작 투자 시 신뢰성 있는 파트너 엄선

- 단독 투자의 장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불가리아에서는 복잡한 행정절차와 의사소통 문제로 인해 합작투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많음. 하지만 합작투자에 참여할 불가리아 기업의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합작투자 역시 많은 문제를 낳을 수 있음
- 이런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합작 파트너에 대한 신용 상태를 전문 신용조사기관을 통해 재정 및 신용 상태를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음.

36. 투자 진출형태 및 설립절차

가. 투자진출형태

- 불가리아에서 인정되는 사업체의 형태는 다음과 같음.
 - 무한책임조합(an unlimited partnership)
 - 유한책임조합(a limited partnership)
 - 주식책임조합(a partnership limited by shares)
 - 주식회사(a joint-stock company)
 - 공개기업(a public company)
 - 개인사업자(a sole trade)
 - 합작회사(a joint venture)
 - 지사(a branch)
 - 지주회사(a holding)
 - 협동조합(a co-operative)
 - 연락사무소(a representative office)

- 협동조합과 연락사무소 형태의 사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형태의 사업체는 Commerce Act 1991에 의거하여 설립 운영되며 은행, 보험회사, 및 공개기업 등에 대해서는 특별법이 일부 적용되게 됨. 협동조합의 경우 Cooperative Act 1999에 의해 관리되며 연락 사무소의 경우 Foreign Investment Act 1997에 의해 관리됨.
- 대부분의 외국기업이 현지 투자 시 채택하는 사업체의 형태는 1명의 단독투자 형태를 포함하는 주식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임. 이들 법인은 해당 지역 법원에 사업등기를 하여야 함.

나. 회사 형태의 사업체

1)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OOD)

- 회사자본 출자자는 1인 이상이며 출자자의 책임은 출자지분에 한함.
- 출자자는 내국 및 외국의 자연인 또는 법인이 가능함
- 최소 수권자본금은 BGN5,000(2,557유로)이며 주식의 액면가치는 BGN10 이상이어야 함
- 설립 등기시 최소한 수권자본금의 70%이상이 납입되어야 함
- 주주총회는 최소 연 1회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가 반드시 설치되어야 함
- 주주가 1명인 경우 회사의 명칭은 EOOD를 사용하며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구성함
- 대차대조표 및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함

2) 주식회사(Joint Stock Company;AD)

- 주식회사의 주식 액면가치는 최소 BGN10이상임
-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되어야 함
- 출자자는 1인 이상의 내국 및 외국의 자연인 또는 법인이 가능함
- 최소 자본금은 BGN50,000(25,574 유로) 이상임. 다만 사업영역에 따라 최소 자본금 규모가 달라질 수 있는데 은행의 경우 BGN1천만, 인명보험 BGN2백만, 재산보험 BGN3백만, 재보험 BGN4백만, 투자회사 BGN50만, 민간의료보험 BGN2백만, 민간연금 BGN3백만 등임
- 주식은 보통주, 우선주 등의 형태로 발행할 수 있음
- 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함
- 대차대조표 및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함

3) 공개기업(Public Company)

- 주식회사이며 Securities, Stock Exchanges and Investment Act 1995에 의해 관리되어 왔으나 현재는 Public Offering of Securities Act 1999에 의해 관리되고 있음.

4) 지주회사(Holding Company)

- 주식회사, 유한책임조합 등의 형태로 설립될 수 있으며 타 기업에 대한 경영참여 또는 개입 등을 목적으로 할 수 있음.
- 지주회사는 경영권을 행사할 대상 기업의 지분을 최소한 25% 이상 보유하여야 함.

5) 지사(Branch)

- 모국에 등록된 외국법인 및 자연인은 불가리아에 지사를 설립할 수 있음.
- 지사는 법인은 아니지만 독립된 법인처럼 회계장부를 비치하여야 함.

6) 연락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

- 모국에 등록된 외국법인 및 자연인은 불가리아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음.
- 연락사무소는 법인은 아니며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음.

다. 회사 형태의 사업체 설립 절차

회사가 지방법원의 상업등기소에 등록된 날짜가 회사의 설립일로 간주됨.

1)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OOD)

- 등록하기 위해서는 정관을 작성하고 이사를 선임하여야 하며 수권자본금의 70% 이상 납입하여야 함. 출자자가 다수일 경우 각 출자자는 최소한 지분의 30%이상 납입하여야 함.
- 회사가 상업등기소에 등록되면 관보에 그 내용이 게재됨.

2) 주식회사(Joint Stock Company; AD)

- 등록하기 위해서는 정관을 작성하고 수권자본금이 완전히 주주간 배분되어야 하며 주식의 25% 이상 납입되어야 함.
- 이사회 및 감독기관을 선임하여야 하며 일부 특별분야 사업에 종사하는 경우 관련 허가(은행, 보험 등의 경우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허가증)를 득하여야 함.
- 회사가 상업등기소에 등록되면 관보에 그 내용이 게재됨.

3) 지사(Branch)

- 사업등기소에 등록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는 Commerce Act 1991을 참조

4) 연락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

- 불가리아상공회의소(BCCI)에서 정한 서류를 작성하여 부대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등록에는 1-3일 정도가 소요됨.

라. 기타 형태의 사업자 및 설립 절차

1) 무한책임조합(unlimited partnership)

- 2명 이상의 파트너가 필요하며 각 파트너는 상호 무한책임을 짐.
- 외국인이 파트너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영주권을 획득하여야 함.
- 최소 등록 자본금 규정은 없음.
- 파트너는 각각 1개의 표결권을 행사함.
- 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 등록하여야 함.

2) 유한책임조합(Limited Partnership)

- 2명 이상의 파트너가 필요하며 1명 이상은 무한책임 파트너가 있어야 함.
- 외국인이 무한책임파트너가 되기 위해서는 영주권을 획득하여야 함.
- 무한책임파트너가 해당 조합의 경영권을 행사함.
- 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 등록하여야 함.

3) 주식유한책임조합(Partnership Limited by Shares)

- 1명 이상의 무한책임파트너와 3명 이상의 유한책임파트너로 구성되어야 함.
- 외국인이 무한책임파트너가 되기 위해서는 영주권을 획득하여야 함.
- 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 등록하여야 함.

4) 협동조합(Co-operative Society)

- 자발적 개인 조합으로 자본과 조합원이 고정되어 있지 않은 형태임.
- 조합원은 개인만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최소 7명 이상이어야 함.
- 외국인이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영주권을 획득하여야 함.
- 조합원은 총회에서 각각 1개의 표결권을 행사함.

5) 개인사업자(Sole Trader)

- 영주권을 가진 개인은 누구나 개인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음.

6) 외국인이 개인사업체를 설립할 경우 체재허가 취득

- 통상적으로 개인사업체의 경우 10인 이상을 고용할 경우 장기체류허가(1년짜리)를 획득할 수 있음.
- 외국인 개인 사업체의 현지 종업원이 10인 미만인 경우 6개월짜리 체류허가가 발급될 수 있음.
- 외국 개인의 투자규모가 500만 레바(25만유로) 이상일 경우 종업원 규모에 관계없이 장기체류허가(1년짜리)를 발급 받을 수 있음.

7) 통상적으로 현지 법인의 경우 두 가지 등록번호를 발급 받음

- Bulstat 번호: 통계번호로 불리며 대사관을 포함한 모든 법인이 부여 받게 됨.
- Tax 번호: 납세자번호로 불리며 대사관을 제외한 모든 법인이 부여 받게 됨.

마. 회사 설립 비용

- 회사설립비용은 모든 절차를 스스로 할 경우에는 등록수수료 및 번역공증비용 등이 소요되며 등록수수료 및 번역공증비용으로 약 300 레바(150유로) 정도 소요됨.
- 회사설립 절차를 대부분 현지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 경우 변호사 수수료를 포함한 등록비용은 대체로 다음과 같음.
 - 일반 개인 변호사: 700레바(약 350유로)
 - 유명 법무 법인: 4,000레바(약 2,000유로)

37. 입지선정

불가리아에는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해 자유무역지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자유무역지대를 Industrial Zone으로 변경하여 설치, 운영하는 법안 제정을 추진하였으나 중단 상태에 있음

자유 무역지대는 87년의 칙령 번호 2242(Duty Free Zones and Its Regulations for Application)에 의해 6개 지역에 설치되어 있으며 정부가 설립한 회사에 의해 관리, 운영되고 있음. 2개는 다뉴브강 인근 (Vidin, Rousse)에 설치되어 중앙 및 서유럽으로의 접근이 용이한 지리적인 이점이 있으며 2개는 유럽의 주요 통로인 세르비아와의 국경지대 (Dragoman)와 터키와의 국경지대(Svilengrad)에 설치되어 있음. 그 외에 1개 처는 불가리아의 제2도시인 Plovdiv에 설치되어 있고 다른 하나는 흑해연안인 Bourgas에 설치 운영되고 있음.

‘99년 1월 관세법에 의해 자유무역지대는 자유지대(Free Zone)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자유지대 내에서는 생산, 무역 및 서비스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활동이 가능하게 되었음.

2003년에 들어서서는 외국인투자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Industrial Zone 법의 제정을 추진하였으나 2003년 말 경제부 장관의 교체와 함께 중단된 상태에 있음. 동 법안에 의하면 산업단지 입주 시 어떠한 특혜를 제공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건 별로 협상토록 하고 있음

불가리아 내 자유지대(Free Zone) 연락처는 다음과 같음

- FREE ZONE - BOURGAS PLC
 - Address: 5 Trapezitsa Street, P.O. Box 154, 8000 Bourgas, Bulgaria
 - Tel.: (+359 56) 84 20 47
 - Fax: (+359 56) 84 15 62
 - Web: www.freezonebourgas.com
 - E-mail: info@freetradezone-bourgas.com
- FREE ZONE - DRAGOMAN PLC
 - Address: 16 Zahari Stoyanov Street, 2210 Dragoman, Bulgaria
 - Tel.: (+359 7172) 2431
 - Fax: (+359 7172) 2431
- FREE ZONE - PLOVDIV PLC
 - Address: 242 A, Vasil Levski Street, P.O. Box 75, 4003 Plovdiv, Bulgaria
 - Tel.: (+359 32) 906 233
 - Fax: (+359 32) 960 833
 - Web: www.freezone-plovdiv.com
 - E-mail: frzone@plovdiv.techno-link.com, freezone@plovdiv.techno-link.com
- FREE ZONE - SVILENGRAD PLC
 - Address: 6500 Svilengrad
 - Tel.: (+359 379) 73344, 73445
 - Fax: (+359 379) 73541
 - Web: <http://www.dutyfreezone.hit.bg/>
 - E-mail: freezone@infotel.bg

○ FREE ZONE – VIDIN PLC

- Address: Severna Promishlena Zona, 3700 Vidin, Bulgaria
- Tel.: (+359 94) 602 060, 602 047, 602 048
- Fax: (+359 94) 602 046

○ FREE ZONE – ROUSSE PLC

- Address: 5 Knyazheska Street, P.O. Box 107, 7000 Rousse, Bulgaria
- Tel.: (+359 82) 831 113, 831 111
- Fax: (+359 82) 831 112
- Web: www.freezone-rousse.bg
- E-mail: trade@freezone-rousse.bg, manager@freezone-rousse.bg

38. 공장설립

가. 농지에서 산업용으로 토지의 법적 용도를 전환

○ 구입한 토지가 농지일 경우

허가 당국	1. 요청한 면적이 5ha 이하이고 토지가 각 지역의 영역 안에 있는 개척 지구에 소재하고 있을 경우 → 지역 농림위원회 2. 그 외의 경우 → 농지위원회
필요서류 및 절차	1. 농지분류법령에 따라 발급된 농지분류 결의서 2. 환경보호법의 지시에 따른 구체적인 개발계획과 환경영향평가에서의 긍정적인 결정을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업의 기반 또는 진로. 3. 공간계획법 제129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구체적인 개발계획 4. 토지 소유권 - 승인을 받은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있는 경우 토지의 소유자 또는 부지에 대한 투자자는 필요한 농지의 지정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들은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농지 지정의 변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신청자는 신청 할 때 승인을 받은 구체적인 개발계획서 2부를 첨부해야 한다. - 농지를 농업 이외의 용도로 지정을 변경하는 결정을 한 경우 토지대장 기재를 위해 동 사본을 소관 위원회의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토지관리소로 발송해야 한다.
수수료	정부 수수료는 각료회의 요율표에 따라 결정된다. 수수료는 농지의 용도 변경을 필요로 하는 소유자 또는 투자자가 납부한다.
소요기간	90일 (60일)
근거법	농지보존법

나. 설계 허가

허가 당국	각 지자체의 건설국장
필요서류 및 절차	1. 신청서 2. 소유권 증서 3. 건축권 확인서 4. 부동산의 제한적 권리 확인서 5. 기타 서류 참고: 환경영향 평가는 환경 보호법에 따라 설계허가를 발급하기 전에 실시한다.
수수료	지방세 및 수수료 법 9조에 따라 지방의회가 각 지자체의 설계 허가 발급 수수료를 정한다.
소요기간	14일 (5일)
근거법	공간계획법

다. 건축 사업안의 준비와 승인

허가 당국	1. 지자체 건설국장 2. 사업에 한 개 이상의 지자체가 포함될 경우 지역의 도지사 3. 사업에 한 개 이상의 지역이 포함되거나 국가적 중요성이 있는 경우 지역개발 및 공공 사업부 장관
필요서류 및 절차	1. 신청서 2. 부동산이나 건축권 증명서류 3. 설계허가
수수료	지방세 및 수수료 율 제 9조에 따라 지자체 별로 지방의회가 수수료를 결정한다.
소요기간	1달(14일)
근거법	공간계획법

라. 기술적 또는 투자사업의 조정과 승인

허가당국	1. 지자체의 건설국장 2. 사업에 한 개 이상의 지자체가 포함될 경우 지역의 도지사 3. 사업에 한 개 이상의 지역이 포함되거나 국가적 중요성이 있는 경우 지역개발 및 공공사업부 장관
필요서류 및 절차	1. 신청서 2. 부동산을 입증하는 서류 3. 설계허가 4. 투자사업서 사본 3부 5. 환경영향평가서(공간계획법 144조)

	다음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국립전기회사(NEK)의 전기 공급망 연결을 위한 예비 계약서 2. 상하수 회사(VIK)의 수도 및 하수구 연결을 위한 예비 계약서 3. (작업장이 200개 이상인 현장과 기타 지정된 건물의 경우) 소방당국의 사업 허가서
수수료	지방세 및 수수료 율 제 9조에 따라 지자체 별로 지방의회가 수수료를 결정한다.
소요기간	1달(14일)
근거법	공간계획 법

마. 건설 허가

허가 당국	1. 자자체의 건설국장 2. 지방의회의 결정에 따라 지역이 나뉘는 도시들의 경우는 지역의 건설국장.
필요서류 및 절차	투자설계에 대한 허가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의 건설허가는 건설국장 앞 허가 신청서와 소유 및 건축권 또는 특별법에 의거 타인의 부동산에 건축할 수 있는 권리를 나타내는 서류에 의해서만 발급될 수 있다.
수수료	지역개발 및 공공사업부 징수 수수료규정 14호
소요기간	7일
근거법	공간계획법

바. 소방법규 준수 증명서

허가 당국	국가 '소방방재 위원회' 위원장
필요서류 및 절차	1. 국가 '소방방재 위원회' 위원장 앞 서면 신청서 2. 건설, 전문적, 기술적 서류 3. 확인서 검토를 위해 필요할 경우 전문가 대동 4. 국세 납부 영수증 5. 기타 필요한 경우 요청한 서류 - 국가 '소방방재 위원회'는 서면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현장의 소방안전규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이들은 점검 결과를 기록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현장의 소방안전규칙 준수 여부를 결정한다. 증명서는 3년간 유효하다.
수수료	내무부 징수수수료규정 4호 31조에 따라 수수료를 결정한다.
소요기간	1달(14일)
근거법	2003. 5. 15일 발표된 국가 화재방지, 통제, 소방, 구조 활동법 1-117호

주1: 괄호 안의 소요기간은 투자 장려법(신속한 행정처리)에 따라 확인된 투자자에 적용하는 것임.

주2: 평균 건설비용은 건축 장소와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평방미터당 약 300유로임

39. 투자관련 정부기관

□ 불가리아 투자청(INVEST BULGARIA AGENCY, IBA)

- 주요 활동
 - 2004년 5월에 제정된 투자법(The 2004 Law on Investment)에 의거 종전의 외국인 투자청(Foreign Investment Agency)은 불가리아 투자청(Invest Bulgaria Agency)로 개칭되었으며 외국인투자뿐만 아니라 내국인 투자에 대해서도 총괄적인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불가리아 경제부 산하 기관임. IBA는 투자항목에 대한 인가서가 발급된 후 투자자에게 정보와 개인적 행정서비스를 제공함. IBA는 또한 투자자의 의뢰를 받아 마케팅과 기타 조사를 수행하고 불가리아의 투자기회를 해외에 소개 및 홍보하는 투자 마케팅을 실시하며 불가리아 투자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함.
- 연락처
 - 주소 : 31 Aksakov Street, 1000 Sofia, Bulgaria
 - 전화 : (+359 2) 985 5500
 - 팩스 : (+359 2) 980 1320
 - 이메일 : iba@investbg.government.bg
 - 웹사이트 : www.investbg.government.bg
 - 대표자 : Mr. Pavel Ezekiev(Executive Director)

40. 투자관련 서비스기관

가. 불가리아 국제기업협회(BULGARIAN INTERNATIONAL BUSINESS ASSOCIATION, BIBA)

1) 주요 활동

- 외국인 투자자 협회인 BIBA는 1992년 4월에 설립되었으며 불가리아에 소재한 국제기업들을 결집해 외국인투자자들의 관심사를 표명하는 것을 주요 설립 목적으로 하고 있음.

2) 연락처

- 주소 : 55 Al. Stambolijski Blvd., floor 3, 1000 Sofia, Bulgaria
- 전화 : (+359 2) 981 9169
- 팩스 : (+359 2) 988 6776
- 이메일 : office@biba.bg
- 웹사이트 : www.biba.bg
- 대표자 : Ms Sasha Bezuhanova(President)

나. 불가리아 상공회의소(BULGARI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BCCI)

1) 주요 활동

- 상공회의소 산하에 설치된 사무국을 통해 국제회의와 국내 법규 그리고 일반 상법 및 국제관행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많은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2) 연락처

- 주소 : 42 Parchevich Street, 1058 Sofia, Bulgaria
- 전화 : (+359 2) 987 2631
- 팩스 : (+359 2) 987 3209
- 이메일 : bcci@bcci.bg
- 웹 사이트 : www.bcci.bg
- 대표자 : Mr Bojidar Bojinov(President)

다. 불가리아 경제인연합회(BULGARIAN INDUSTRIAL ASSOCIATION, BIA)

1) 주요 활동개요

- BIA는 1980년에 비 영리, 비 정부 기구로 설립된 불가리아의 경제인 연합회 임. 이 연합회의 회원은 87개 부문(업종) 단체, 26개 지역 단체, 58개 지방단체, 불가리아 과학 대학, 대학 및 과학기술 연합, 중앙조합 연합, 불가리아 300대 기업 중 263개가 포함된 15만 상업회사들임.

2) 연락처

- 주소 : 16-20 Alabin Street, 1000 Sofia, Bulgaria
- 전화 : (+359 2) 932 0911
- 팩스 : (+359 2) 987 2604
- 이메일 : office@bia-bg.com
- 웹 사이트 : www.bia-bg.com
- 대표자 : Mr Bojidar Danev(President)

라. 불가리아 주요 법률 회사

1) Lega InterConsult

- Add : 22, Iztok Dstr., 1113 Sofia, Bulgaria
- Tel : +359 2 737930, +359 2 736133, +359 2 732936
- Fax : +359 2 722452, +359 2 710162
- Internet: www.legainterconsult.com
- E-mail: penkov@legainterconsult.com

2) Borislav Boyanov & Co

- Add : 24, Patriarch Evtimii Blvd., Sofia 1000, Bulgaria
- Tel: (+359 2) 981 3007, 981 3103
- Fax:(+359 2) 981 7733
- E-mail : mail@boyanov.com
- Internet: www.boyanov.com

3) Djingov, Gouginski, Kyutchukov & Velichkov

- Add : 10 Tsar Osvoboditel Blvd., 1000 Sofia, Bulgaria
- Tel : (+359 2) 932 1100
- Fax : (+359 2) 980 3586
- E-mail: dgkv@dgkv.com

41. 노무관리

가. 노동시장 여건

- 불가리아의 노동시장은 현재 공급 초과상태이며 2004년 9월 기준(입수 가능한 가장 최근 수치를 반영) 실업률이 11.8%에 달하고 있음. 따라서 저기능 및 고기능 노동력의 조달이 용이하며 임금도 상당히 낮은 상태임.
- 실업률은 지역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농촌지역의 경우 50%를 넘는 곳이 많음.
- 직장을 구하기가 어렵고 임금이 낮아 고급기술인력은 외국으로 빠져 나가는 현상이 심하며 대부분의 근로자가 인근 서유럽에서의 취업기회를 모색하고 있음.

나. 정부의 고용 증대 정책

- 높은 실업률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는 외국 기업의 진출을 적극 유치하고 있으나 제도적으로는 아직도 미흡한 상황임.
- 정부에서는 고용촉진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노동자 재교육을 통해 연간 4-5만 명의 신규 고용창출을 도모하고 있음.
-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실업률은 최근 수년간 완만하게나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그러나 재정정책에 대한 IMF의 관여 등으로 인해 고용촉진정책의 시행에 한계점도 있음.

다. 인력 확보

- 신규 노동시장에 공급되는 대학졸업인력 등의 확보는 비교적 용이하지만 시장 경제 체제에 익숙한 중간 관리자 및 고위경영진을 확보하는 것은 비교적 어려움.
- 현지에서 가장 보편적인 인력 확보 방법은 인력조달 에이전트를 활용하는 것임. 인력 공급 에이전트는 4-5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 인력공급 에이전트를 통해 필요한 인력을 조달하는 것이 빠르고 용이함. 현재 활동중인 업체로는 Hill International, New i, PMC, AIMS Human capital Bulgaria 등이 있음.
- 다른 방법은 현지 일간지의 광고를 통해 인력을 모집하는 것임. 현지에서 인력 확보에 가장 많이 이용되는 일간지는 24Hours, Troud 등이 있으며 경제지인 Pari나 Capital 등도 외국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광고 매체임.

라. 임금수준

- 정부의 공식적인 평균임금은 월 150유로(미\$200) 정도임.
- 그러나 민간기업의 경우 이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매년 불가리아 국제경영협회(Bulgarian International Business Association; BIBA)에서는 부문별로 20-30개 기업의 평균임금을 조사해서 발표하고 있는 바 이의 수치가 비교적 적합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음.
- 기본임금 외에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경우 이도 개인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아울러 고용주 및 피고용자에게 사회보장세 납부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함.
- 한편 정부에서 정한 2004년도 최저임금은 월 120레바(60유로), 2005년도 최저임금은 월 150레바(약 75유로)임. 불가리아 정부는 상공회의소, 산업협회 등 경제단체의 반대와, 국제통화기금(IMF)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05년도 최저임금을 전년도에 비해 25%를 인상한 바 이는 2005년도 6월의 총선을 의식한 조치로 해석되고 있음.

마. 고용계약

- 고용계약 및 조건은 불가리아 노동법의 Labour Code에 명시되어 있으며 노동법상 인종, 성별 기타 요인에 의해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 국가 차원에서의 노동조건은 노동조합연합, 경영자협회, 정부 등 3자간의 합의에 의해 설정됨.
- 불가리아의 노동조합연합은 The Confederation of Independent Trade Unions of Bulgaria와 Podkerpa 등 2개가 있음.
- 개별 기업차원의 고용계약은 고용주와 노동조합 간의 합의에 의하며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고용주와 피고용자간의 합의에 의하도록 하고 있음.
- 불가리아의 경우 실업률이 높고 전반적인 경제상황이 어려워 노동조합의 권한이 강하지 않은 상황임. 따라서 노동조합의 파업사태 등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
- 고용 계약서에는 장소, 일의 내용, 급여 등이 명시되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무기한 계약이어야 함.
- 2005년도부터 단기간 용역이 인정되는 경우는 법률 또는 컨설팅 서비스에 국한되며 기타 임시고용계약의 경우에도 소득세 및 사회보장세 원천징수 납부 대상이 되었음. 법률, 컨설팅 서비스의 경우 15%의 소득세 원천징수납부 의무가 있으며 사회보장세는 부담하지 않아도 됨. 임시고용계약의 경우에는 지급 시 연간소득수준에 의거 소득세와 사회보장세를 원천징수 납부하여야 하며 고용주의 사회보장세 부담의무가 발생함. 통상적으로 단기용역계약의 경우 연도 시초부터 받은 소득을 신고 받아 소득세를 산출 납부하도록 되어 있음.

- 수습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 인정됨.
- 소득세, 법정 사회보장세 등은 원천 징수하여야 함.
- 고용계약 해지 시 30일에서 3개월까지 사전 통지 대상임.

바. 사회보장세

- 고용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회보장세 담당기관에 등록하여야 함.
- 불가리아 내에 근무하는 모든 내국인 및 외국인은 사회보장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 사회보장세는 모든 위험을 커버함.
- 사회보장세는 2004년까지는 고용주와 피고용자간 75:25의 비율로 납부했으나 2005년부터는 부담율이 70:30으로 변경되었으며 2007년까지 피고용자의 부담을 높이고 고용주 부담을 낮춰 50:50의 부담률로 조정할 예정임.
- 의료보험(보험율 6%)을 포함한 사회보장세율은 피고용자 총 급여의 42.7%임. 이중 30.1%는 고용주부담이며 12.6%는 피고용자 부담임.
- 세부 사회보장세 내역 별 고용주와 피고용자간 부담율(피고용자 총 급여의 %를 의미)
 - 사회보장세 : 23.8%/9.9%
 - 연금기금부담 : 2.1%/0.9%
 - 의료보험부담 : 4.2%/1.8%

사. 근무시간

- 대부분 1일 8시간 1주일 40시간의 근무시간 제도를 채택함.
- 일일 근무시간은 통상적으로 9시부터 17시이며 공장의 경우 7시-15시 근무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도 많음.

아. 유급휴가

- 고용계약 후 8개월 근무 이후 최소 20일의 유급연차휴가를 주어야 함. 연차휴가는 최소한 2주간 단위로 분할할 수 있음.
- 출산 여성의 경우 135일간 사회보장 당국으로부터 90%의 임금을 받을 수 있음. 또한 출산 후 자녀가 2세에 이르기까지 보험을 받을 수 있음.
- 상당히 많은 종류의 유급 휴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병가, 국가시험 휴가, 학생의 경우 시험휴가 등 매우 다양한 편임.

자. 정년

- 정년은 일반적으로 63세이나 직종별로 다르게 적용하고 있음.
- 비교적 육체노동이 심한 직종의 경우 57세가 정년으로 되어 있음.

차. 외국인 고용

- 불가리아 영주권을 취득한 자는 불가리아 내국인과 동일하게 취업할 수 있음.
- 그 외의 외국인이 취업하기 위해서는 노동허가증을 발급 받아야 함.
- 노동허가증 발급 신청 시에는 신청서 2부, 사진 3매, 고용주의 취업요청서, 회사등록 서류, 사업증명서, 자격증, 피고용자 신원증명서, 고용주의 과거 12개월간 외국인 고용 실적 증명서, 고용계약서, 특정 직업과 관련된 증명서, 여권 사본 등이 필요함.
- 노동허가증 발급에는 3주-1개월 정도 소요됨.
- 고용주는 불가리아 정부에 BGN600을 납부하여야 함.
- 외국 인력은 전체 고용인력의 10% 를 초과할 수 없음.

42. 조세제도

□ 불가리아의 조세는 종류는 다음과 같음

- 직접세 :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 간접세 : 부가가치세, 특별물품세
- 기타 : 지주세, 관세

가. 개인소득세

- 개인소득세는 개인소득세법(Personal Income Tax Act)에 의해 개인(거주자 및 비거주 자)에게 부과됨. 거주자는 불가리아에 영구 거주자가 있거나 1년 365일중 183일 이상 거주하는 사람을 의미함. 거주자는 전세계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비거주자의 경우 불가리아로부터 얻은 소득에 한해 소득세 납부 의무가 부과됨.
- 불가리아 내에서의 사업활동으로부터 얻은 개인소득은 과세 대상이며 개인의 사업활동이라 함은 불가리아 내에 사업체가 있거나 활동 근거가 있고 불가리아 내에서 소정 과업을 수행하거나 부여 받은 것을 의미함.
- 개인소득세 면제 대상
 - 부동산의 교환 또는 판매로부터 얻은 소득
 - 동산의 판매 또는 교환으로부터 얻은 소득
 - 법정연금 또는 의료보험, 사회보장보험으로부터 받은 보상
 - 은행 저축으로부터 발생한 이자, 법정으로부터 얻은 이자 또는 비용명목으로 받은 금액
 - 사회금융지원금 및 실업수당 등의 금전적 및 비금전적 소득
 - 정부의 아동양육비
 -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교육비
 - 비엔나 협약에 의한 외교관 소득
 - 농지 임대료
- 과표 : 과세대상 소득의 연간 합계

- 과표 공제
 - 확정적으로 과세된 소득
 - 법정 사회보장세, 개인 사회보장세
 - 기여금 (과표의 10% 이하를 한도로 함)

소득세율(2005년도 기준)

연간소득(BGN)	소득세
0-1,560(월 130)이하	면제
1,560(월 130)초과-1,800(월 150) 이하	1,560 초과금액의 10%
1,800(월 150)초과-3,000(월 250) 이하	BGN24+1,800초과금액의 20%
3,000(월 250)초과-7,200(월 600) 이하	BGN264+3,000초과금액의 22%
7,200(월 600) 초과	BGN1,188+7,200 초과금액의 24%

- 원천징수 : 고용주가 매월 원천 징수하여 납부
- 소득 별 과세 기준
 - 자본이득 : 자본취득가액과 판매가액의 차이를 과세 대상 금액으로 산출
 - 자유직업소득 : 소득 발생 시 15%를 징수하되 법정 사회보장세 등 납부금액은 공제할 수 있음
 - 경영진소득 : 민간계약에 의해 이사로 활동하는 사람이 취득한 소득은 연간종합소득세 정산 대상임. 소득발생시 15%를 원천 징수 함. 다만, 경영진이 연간 183일 이상을 근무하는 경우에는 연간소득세 납부 기준에 의거 징수하며 사회보장제도 원천징수 납부하여야 하고 고용주부담 사회보장제도 납부할 의무가 있음
 - 개인사업소득 : 연간종합소득세 정산에 의해 과세
 - 임대소득 : 연간종합소득세 정산 대상이며 소득의 15%는 과표에서 공제 허용됨. 임대 소득이 외국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15%의 지주세 징수
 - 로열티 및 기술료 : 비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경우 15%의 지주세를 원천 징수. 경영 서비스 수수료는 기술료로 간주되지 아니하며 지주세 과세 대상이 아님
 - 배당소득 : 소득의 15%를 확정적으로 원천징수함.
 - 리스, 팩토링, 프랜차이즈 계약 소득 : 연간 정산대상 소득임.
 - 이자소득 : 비과세대상으로 명시되지 않은 소득은 15% 확정 과세 대상
 - 기타 소득 :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150% 를 확정 과세 원천 징수함
- 배우자는 독립된 과세 대상이며 배우자간 소득의 합산 및 분배 신고는 허용되지 아니함
- 개인연간소득종합신고 기한은 익년 4월 15일
- 개인소득세와 관련한 세부 내용은 개인소득세법(Private Income tax Act; www.bfia.org 사이트) 참조

나. 법인소득세

- 법인소득세법(Corporate Income tax Act)에 의해 모든 회사 및 조합은 법인소득세 납부 대상임.
- 법인소득세율은 지방세율을 포함하여 15.0%가 적용됨.
- 특별 법인소득세율
 - 보험 및 재보험료에 대한 세율은 7%이며 생명보험료에 대한 세율은 2%임.
 - 게임, 복권 등에 종사하는 업체의 경우 베팅수익금에 대한 세율은 8%이며 티켓 판매에 대한 세율은 12%임.
 - 선물구입, 오락, 후원 등에 대한 비용처리와 관련 적용세율은 25%임.
 - 관리목적으로 사용되는 차량의 수리, 관리 비용 등은 20%의 세율이 적용됨.
- 재산세율 : 부동산 소유자에 대해서는 0.15%의 재산세가 부과됨.
- 지사의 소득 : 지사 소득에 대해서는 15%의 법인세율이 적용되며 기타 지방세, 부가가치세 등 납부의무가 있음.
- 자본 소득 : 자본소득은 법인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소득세 과세 대상임.
- 배당 소득 : 타 내국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지주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며 불가리아 업체가 납부해야 할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5%의 지주세가 부과됨. 불가리아 기업이 외국기업에게 지불한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15%의 지주세가 부과됨.

< 고 실업률 지역 투자에 대한 세금우대 정책 >

- 과거 2개년간 연속으로 실업율이 평균 50%를 초과하는 지역(해당지역은 법인소득세법 부록에 첨부되어 있음)에 투자할 경우 법인소득세가 감면됨. 그러나 지방세는 감면되지 아니함.
- 해당 기업의 투자는 인수, 현대화, 유형고정자산의 재건축 등의 형태로 이루어져야 하며 아울러 해당 투자자금은 신주인수를 위한 주주들의 추가 출자 등으로부터 발생한 것이어야 함.
- 법인세 감면금액은 출자금액의 10%를 한도로 함.
- 법인세 감면금액은 투자연도로부터 5년까지 가능함.

다. 지주세(Withholding Taxes)

- 불가리아에서 발생한 특정형태의 소득 중 외국에 지불해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15%의 지주세가 부과됨.
- 지주세 부과 대상 소득 유형에 대해서는 법인소득세법에 명시되어 있음.
 - 배당소득

- 이자 및 금융리스
 - 로열티
 - 기술 서비스 료
 - 임대료
 - 리스 및 프랜차이징, 팩토링
 - 부동산 처분 자본이득, 주식 및 금융자산 자본이득
- 우리나라와는 이중 과세방지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 (외국 기업의 지분이 15% 이상인 경우)%,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 (정부 및 국가금융 기관, 비 금융 기관 등에 대해서는 면제)%, 로열티에 대해서는 5%의 세율이 적용됨.
- 지주세 납부기한은 익년도 3월 31일임.

라.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는 '99년 1월 1일부터 도입되었으며 유럽의 부가가치세법과 제도적으로 매우 유사하게 운영하고 있음.
- 과거 12개월간 과세매출 BGN75,000 이상인 개인이나 법인은 부가가치세 등록을 하여야 함. 과세매출액이 BGN50,000에서 BGN75,000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등록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음.
- 부가가치세 등록자는 매월 부가가치세 신고자료를 관리하여야 하며 다음 달 14일 이내에 전월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함.
- 현재의 부가가치세율은 20%임. 다만 수출의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됨.
- (2005년부터 부가가치세율을 18%로 인하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품목별로 세율을 다르게 적용하려고 하였으나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데 실패함).

마. 특별물품세

- 특정물품의 반입시에는 물품세를 납부하여야 함.
- 과세품목 : 주류(맥주 및 포도주 포함), 담배제품, 연료, 일정규모 이상의 자동차, 카지노설비 및 게임용품, 커피 및 차

바. 관세

- 물품 수입 시 관세가 부과되며 관세 납부 시 물품세 및 부가가치세도 납부하여야 함.
- 불가리아와 자유무역협정에 의해 다음 국가 원산지 물품에 대해서는 특혜관세율이 적용됨 : EU, EFTA, CEFTA, 마케도니아, 터키, 크로아티아, 이스라엘, 몰도바. 특히 공산품에 대해서는 대부분 무관세로 수입됨.

43. 외환관리

불가리아 정부는 IMF의 권고에 따라 1999년 외환관리법을 개정하여 2000년 1월1일부터 국제환 거래를 자유화하였으며 동 법에 의해 내외국인의 외환 반출입이 허용됨.

외국인 투자자는 원천징수세를 포함한 법인세를 정히 납부한 후 외국통화를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으며 송금 대상은 다음과 같음.

- 투자수익
- 국가적 필요에 의해 수용된 투자의 보상금
- 투자 종료에 따른 청산금
- 투자물 판매 대금
- 행정소송의 결과로 수령한 금액

그러나 외화 송금의 경우 1만유로 이상의 금액은 반드시 소정의 서류에 근거하여 은행을 통해 지불하여야 함.

또한 외환관리법은 영업활동(자영업포함)에 의한 해외 지불은 은행 송금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품의 수입, 운송, 원금 및 이자, 보험, 종업원 교육, 의료비 등과 같은 경상적인 국제 지급에 대한 송금이 20,000 BGN 상당 액수 이상일 경우에는 그 지불 목적을 서류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44. 이주정책 가이드

가. 외국인 비자 취득 요건 및 절차

불가리아 체류를 희망하는 외국인은 비자나 거주허가를 받아야 함. 거주허가는 근로허가나 기타 법적 근거에서 발급할 수 있음. 비자면제협정에 따라 1회 입국 때 90일부터 6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는 한국을 비롯한 국가의 국민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비자가 요구됨.

전세계에 있는 불가리아 외교관서와 영사관은 다음과 같은 비자를 발급함.

- 단기 비자 : 1회 또는 복수 입국을 위한 90일부터 6개월 또는 1년까지의 단기 체류
- 장기 비자(Type D): 1회 입국 때 90일부터 6개월까지. 이 비자는 불가리아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을 담당하는 관청과의 협의를 거쳐 발급함.

나. 거주 허가(Residence Permits)

장·단기 거주 허가는 불가리아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을 행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당국이 발급함.

단기 거주 허가는 90일까지의 단기 체류를 허용함. 장기 거주허가는 1년간의 장기 체류를 허용함.

특정 사유에 대한 장기 거주허가는 보통 다음과 같음.

- 근로허가가 이미 발급되었을 때
- 외국인이 불가리아에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며 최소한 10명의 불가리아인을 고용하고 있을 때
- 불가리아에 소재한 외국회사 대표사무소에 고용된 무역 관련 대표자
- 외국인 투자법 등의 조항에 의거한 활동을 수행하는 외국인

장기 거주 허가를 신청하기에 앞서 외국인은 불가리아 입국을 위한 장기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함. 이 비자는 해외에 소재한 모든 불가리아 대사관에서 발급 받을 수 있음. 장기 비자 발급에는 약 1 개월이 소요됨.

불가리아계 외국인과 불가리아인과 결혼한 자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음. 영주권은 5년 동안 계속해서 불가리아에 거주한 외국인, 합법적으로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불가리아에 투자한 외국인에게도 발급할 수 있음.

다. 근로허가(Work Permits)

외국인의 경우에는 근로 허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는 다음과 같은 조건의 외국인을 제외하고는 근로허가를 발급받은 후에만 불가리아에서 근로를 할 수 있음. 근로허가 취득 근거는 고용계약 또는 특정한 활동(근로허가 없이 단기적 업무로 불가리아에서 일하는 외국인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상의 여행임.

근로 허가는 국내 고용주가 신청하고 고용청(National Employment Agency)이 발급한다. 허가를 받으려면 수많은 법적 조건을 충족해야 함.

근로 허가는 최장 1년간에 대해 발급함. 발급 조건이 계속 유효한 경우 근로허가는 1년간을 더 갱신할 수 있음. 단기비자를 가진 외국인은 불가리아에서 일자리를 찾거나 근로허가 신청을 할 수 없음.

불가리아에서 일반적으로 근로 허가를 요하지 않는 외국인(즉, 근로허가 없이 불가리아에서 근로할 수 있는 외국인)은 다음과 같음.

- 회사나 외국 법인체 지사의 관리자
- 노동계약으로 고용되지 아니한 국내 회사 이사회의 일원.
- 불가리아 상공회의소에 등록된 외국기업의 무역관련 대표자
- 불가리아에 영구적인 거처를 둔 외국인

근로 허가 없이 단기 업무를 위해 근로할 수 있는 외국인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단기업무 수행계약을 할 수 있음.

- 고정 주거지는 계속 외국일 것
- 외국인 고용주에 의한 업무상 불가리아 여행일 것
- 불가리아에서의 업무는 3개월을 넘지 않을 것
- 업무는 다음 중 하나를 포함할 것

- 수입 기계 장치의 설치나 보증수리, 장치의 작동 교육이나 주문한 장치, 기계, 기타 품목의 인도, 상품공급을 위한 수출계약이나 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교육

그 외 다른 항목의 종업원은 근로허가를 필요로 함. 법에서 정한 모든 요건에 부합하면 근로허가를 발급함.

고용주는 근로 허가를 요하지 않는 경우에도 고용 개시 3일 이내에 노동국 (Labor Bureau)에 외국인을 등록해야 함.

라. 외국인학교

불가리아에는 국립·사립을 막론하고 많은 외국어학교가 있음. 하지만 외국인 자녀를 국립학교에 다니게 하는 것은 정책이 분명하지 않고 그들의 졸업장이 통상 불가리아 외의 단일 국가에서만 유효하기 때문에 더욱 복잡함. (가령 제9 프랑스어학교의 학생들은 유효한 불가리아 및 프랑스 학위를 모두 받음). 커리큘럼은 불가리아에서 수학하는 대부분의 과목을 포함한 국가적 기준을 따름.

사립학교는 국제 학생들의 필요에 더 잘 부응하기 때문에 선호됨. 사립학교는 국제적 커리큘럼을 사용하고 국제적인 인가도 있으며 서로 다른 국적의 학생들이 서로 의사를 교환하는데 ‘학교에서의 언어’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이 현지인에 섞인 외국인이 아니라 국제 학생들 사이의 국제 학생이라는 기분을 들게 함.

1) 영어학교

○ American English Academy (<http://www.aea-bg.com/>) : (프레스쿨, 유치원, 1학년 ~ 12학년)

- American English Academy는 International Educational Society의 일부로 1993년 이래 ACSI (Association of Christian Schools International)의 회원이었음.
- American English Academy는 3-18세 아동과 학생을 교육하며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 Anglo-American School (<http://sofia.ecis.org/>) : (프레스쿨, 유치원부터 8학년까지)

- The Anglo-American School of Sofia는 다방면의 분야를 가르치는 친근한 학교임. 비토샤산 아래에 자리잡고 있는 이 학교는 도시와 자연이 가까이 있다는 지역적 이점을 많이 가지고 있음. 불가리아의 수도인 소피아의 외국인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함. 현재 34개국에서 온 3-14세 아동 172명이 재학중임. 미국과 영국의 좋은 제도를 결합한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있음.

○ American College of Sofia (<http://www.acs.bg/>) : (8학년부터 12학년까지의 고등학교 과정)

- The American College of Sofia(ACS)는 1860년에 플로브디브에 세운 남자학교와 1863년에 스타라 자고라에 세운 여자학교에 뿌리를 둔 학교로 미국 밖에서 가장 오래 된 미국 교육기관임. 이 학교는 1942년에 불가리아 정부에 의해 폐쇄되었다가 1992년 9월 학생 100명에게 준비 과정을 제공하기 위해 다시 문을 열었음. 매년 1개 반을 증설 했고 1997년 5월에 재개교 이후 첫 졸업식을 거행하였음.

- American University of Bulgaria (<http://www.aubg.bg/>) : (학부 및 대학원 교육)
 - The American University in Bulgaria (AUBG)의 설립은 1980년 가을에 불가리아와 미국의 교육자, 불가리아 정부가 불가리아에 새로운 형태의 대학을 설립하는 문제를 논의하면서 시작되었음. Open Society Institute의 설립자인 조지 소로스가 사업 타당성 조사를 후원하였음. 블라고브그라드시가 후보지로 선정됐고 University of Maine 관계자들이 1990년 가을에 초청을 받았음.
 - 계획과 대화가 진전된 결과 불가리아 공화국, 블라고브그라드시, Open Society Institute, University of Maine이 파트너 십을 맺어 AUBG를 설립하였음. 신흥 민주주의국가에서 구 자유예술 고등교육의 모델을 제공한다는 목표로 미국 국제 개발처 (USAID)가 일부 운영자금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하였음. 성공적인 5년이 지난 후 USAID는 독자적인 지속과 미래의 재정독립을 위해 AUBG에 대한 추가 지원을 결정하였음. 이 대학은 1991년 9월 30일 정규 교직원 16명과 208명의 초 학년도 불가리아 학생으로 개교하였음.

2) 불어학교

- French School Victor Hugo (<http://www.vhugo.org/>) : (프레스쿨, 유치원, 1학년부터 12학년)
 - 소피아에 소재한 이 프랑스학교는 전세계 125개국에 소재하고 있는 400개 교육기관 네트워크의 일부임.
 - 이 학교는 'Brevet des Collèges'와 'Baccalauréat' 등 두 개의 프랑스 학위를 수여함. 학생 수는 지난 몇 년 동안 급속히 증가해 2004년에는 300명에 달하였음. 학생들의 연령은 3-17세 임.
- IFAG-French-speaking Institute for Business Management (<http://www.ifag.refer.bg/>) (경영대학원)
 - IFAG는 중·동유럽을 위한 야심찬 프로그램으로 불어를 사용하는 고등교육기관 네트워크의 일부임. 이 학교는 불가리아, 루마니아, 몰도바, 마케도니아,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알바니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크로아티아 등 발칸지역을 커버하는 지역 센터임. 프로그램의 목표는 모든 산업 분야에서 유능한 동유럽인 경영자를 육성하는 것임. IFAG는 자체적인 DEPA와 프랑스 낭트 대학의 CAAE(프랑스에서 MBA와 유사) 등 두 개의 학위를 수여하고 있음.

마. 주택 임차

- 전반적으로 신규 주택 건설이 활발하여 다양한 선택이 가능함
- 다만, 전반적으로 주택임차료가 상승하여 협상할 필요가 있음
- 주택 임차 시에는 반드시 경비원이 있는 것을 확인하여 도난 방지
- 주택 임차 시에 자동경보시스템(SOT)이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
- 위치는 취학자녀 학교 위치와 사무실 위치 등을 고려하여 편리한 지역을 택할 필요가 있음.

바. 현지 교민 및 주재원 관련

1) 우리나라 진출 업체

- 현대중공업현지법인 : 구경본 법인장, 대형변압기 제조

- LG전자 지점 : 여현구 지점장, 전자제품 판매
- 현대중합상사연락사무소 : Mr. Kalin Damianov
- 삼성물산연락사무소 : 이장직 소장, Mr. Vladimir Kaitazov
- 삼성전자연락사무소 : Mr. Nick Iconomoff
- (주)아이피에스현지법인 Qual Tek Ltd : 황재도 사장, 재생잉크
- (주)초이스 : 박종태 사장, 식품 수입
- (주)KorBul : 허성춘 사장, 자동차부품 수입
- (주)AutoBulgaria : 권영광 사장, 자동차부품 수입
- (주)HKA : 김태동 사장, PET 수출
- (주)Harex 현지법인 : 이영우 사장, 건축자재생산설비 판매
- Korean House : 박용태 사장, 한국식당
- (주)창조 : 정난실 사장, 김밥 및 간단한 한국음식
- Korea Motor : 여동익 사장, 자동차정비
- Jiko Tour : 민지홍 사장, 여행/관광
- Lee's Kor Bul : 이상종 사장, 여행/관광/행사
- KMC Consulting : 김경작 사장/컨설팅서비스(실제 활동 무)
- K&C Ltd : 최원석 사장/보안장비, 화장품 수입

2) 유학생

- 주로 음악 분야 유학생이 많으며 최근에는 전공이 상대적으로 다양해지고 있음. 중, 고등 학교 유학생도 증가하고 있음.

3) 선교사

- 12-3명의 선교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전체 교민 중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후원을 받지 않고 자비로 선교활동을 하는 선교사도 있음. 한국 기독교 실업인(CBMC) 소피아 지회가 창립되어 있음.

4) 주재원

- 대사관, 현대중공업, LG전자 직원 및 가족이 중심임.
 - 대사관 : 정재식 대사, 정운진 참사관, 유경호 참사관, 박정민 영사, 박재필 서기관
 - 현대중공업 : 구경본 법인장
 - LG전자 : 여현구 지점장 등

사. 식품조달 관계

- 한국 식품점이 없으므로 인근국가에서 구입, 조달하여야 함.
- (주)초이스에서 한국산 라면을 수입하며 가끔 교민들로부터 식품을 주문받아 수입하는 경우가 있음.

아. 병원 및 의료 관계

- 아동전문병원, 응급병원, 군인병원 등 공공 병원 이용이 가능함.

- 민간병원도 있으나 규모가 크지 않음. Toraks 라는 민간 병원의 경우 분야별로 의사가 있으나 매일 진료하지 않으므로 해당 분야의 의사가 언제 진료하는지 사전에 확인 및 예약 필요함.
- 치과의 경우 민간 시설이 많으며 대부분 민간 치과를 이용함
- 현지 병원 및 의료시설이 열악하므로 의료보험에 가입하여 비상시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자. 쇼핑 관련

- 서유럽 유통매장이 진출해 있어 식품이나 잡화의 경우 쉽게 구입할 수 있음. METRO (식품 및 일용품, 잡화), VILLA(식품), HIT(식품), Praktiker(DIY제품) 등. METRO에서 물품을 구입하려면 회원카드를 발급 받아야 하며, 회원카드는 매장 입구에 신청하는 곳이 있음.
- 가전제품의 경우 국내 전문 유통매장에서 구입할 수 있음(Technomarket Europa ; 삼성, Technopolis ; LG, Technolux 등)
- 백화점은 시내에 1개처(TZUM)가 있으며 쇼핑거리로는 Vitosha Blvd가 있는데 유명 브랜드 상점이 많이 진출해 있음.